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박사학위논문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전 재 현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Japanese Buddhism o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Tea Culture Contents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전 재 현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지도교수 황 병 하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전 재 현

전재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金河林 (인)
위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崔鍾助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許成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康淑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黃炳河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전재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배경	1
2. 연구 내용과 방법	7
II. 일본 불교의 발전 과정과 특징	11
1. 일본 불교의 발전 과정	11
1) 초기에 전래된 일본의 불교	11
2) 일본의 고대 불교	14
3) 일본의 중세 불교	22
4) 일본의 근세·근현대 불교	29
2. 일본 불교의 사상적 특징	32
1) 신불습합사상	33
2) 진언밀교사상	35
3) 정토사상과 아미타불 신앙	37
4) 선사상	41
3. 일본 불교의 문화적 특징	45
1) 중국으로부터 선불교와 선문화의 유입	45
2) 가마쿠라 시대의 선문화와 차문화의 대중화	45
3) 무로마치 시대의 귀족 중심 선문화와 정원문화	53

4) 전국 시대의 사원 중심 선문화	55
5) 에도 시대 이후 선문화의 다양화	57

Ⅲ. 일본 불교가 차문화와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61
1. 일본 차문화의 발전 과정	61
1) 고대 일본의 차문화	61
2) 나라 시대의 차문화	62
3) 헤이안 시대의 차문화	63
4) 가마쿠라 시대의 차문화	67
5) 무로마치 시대의 차문화	71
6) 센고쿠 시대의 차문화	77
7) 에도 시대의 차문화	80
8) 메이지 시대의 차문화	87
2. 일본 정원문화의 발전 과정	88
1) 고대 일본의 정원문화	89
2) 아스카 시대의 정원문화	89
3) 나라 시대의 정원문화	90
4) 헤이안 시대의 정원문화	91
5) 가마쿠리 시대의 정원문화	93
6) 무로마치 시대의 정원문화	94
7)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정원문화	97
8) 에도 시대의 정원문화	97

9) 페이지 이후의 현대식 정원문화	100
3.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101
1) 일본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101
2) 일본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116
3)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130
IV.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135
1. 교육적 측면의 영향	136
2. 정신적 측면의 영향	141
3. 사회적 측면의 영향	149
4. 예술적 측면의 영향	153
5. 산업적 측면의 영향	160
V. 결 론	174
1. 연구 결과	174
2.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사점 ·	181
참고문헌	189

<표 목 차>

<표 1>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단위 %)	182
<표 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과 특징	184
<표 3>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만족도	185
<표 4> 템플스테이의 의미와 가치	186

〈그림 목 차〉

〈그림 1〉 如庵(國宝·重要文化財, 江戸時代)	114
〈그림 2〉 如庵의 내부	114
〈그림 3〉 表千家 不審菴의 表門	137
〈그림 4〉 不審菴	137
〈그림 5〉 裏千家 今日庵의 兜門	138
〈그림 6〉 今日庵의 내부	138
〈그림 7〉 武者小路千家의 通用門	139
〈그림 8〉 官休庵	139
〈그림 9〉 赤樂茶碗 銘「無一物」(長次郎作, 穎川美術館藏), 國宝·重要文化財(美術品)	158
〈그림 10〉 利休 万代屋釜(与次郎作, 今日庵藏)	159
〈그림 11〉 차 자료관	163
〈그림 12〉 차의 고향	164
〈그림 13〉 시즈오카현 차에 관한 공공적 문화시설	167
〈그림 14〉 あんどーなつの 한 장면	170
〈그림 15〉 花より男子의 한 장면	170
〈그림 16〉 일본 슈퍼마켓의 차	171
〈그림 17〉 오차켄 캐릭터	171
〈그림 18〉 일본 20~50대 즐겨 마시는 음료 조사 결과	172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Japanese Buddhism on the Development of Japanese Tea Culture Contents

Jhun Jae Hyun

Advisor : Prof. Hwang Byung-ha,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ea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year, as countries short in natural resources, both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and industries have acknowledged that both needs to invest in improving their presence in cultural enterprises to utilize their national powers more efficiently and have been in talks to find a practical method to do so. It should be noted that Dado(다도, 茶道, tea ceremony) is a very important asset as a business and as a central theme for multiple cultural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Dado and to utilize that information to develop contents which will boost South Korea's Dado. After being organized by Sen no Rikyū(千利休, 1522~1591) in the 14th century a tea ceremony Meister program was established around Japanese E-ye-moto(家元) and became one of the most unique cultural system to represent Japanese tea ceremony. Originally tea was brought over to Japan by monks who traveled abroad to Tang Dynasty(618~907) to study Buddhism. They would bring over the tea seeds and plant them in Seburi mountain located in Saga-hyun. Tea's popularity hit near rock bottom until in 1191 where Eisai(1141~1215), who built the Shofujuki temple,

brought back tea from the Song Dynasty. During the Muromachi period Dado began to establish its basic form by embracing the flashy styles of Higashiyama culture. As a reaction to the overly extravagant ways, Murata Jukō(1432~1510) preferred a more simple and modest approach and established the Wabi tea style based on his philosophy that tea and meditation is one(다선일미, 茶禪一味). His style was passed down to Takeno Jōō(武野 紹鷗, 1502~1555) who in turn passed the torch to Sen no Rikyū during the Azuchi-Momoyama period. Sen no Rikyū perfected the art of tea ceremony and completed the Wabi tea culture started by Burata Shuko. Wabi tea is considered the original tea ceremony form for Japanese tea culture and Sen no Rikyū was the one who defined it. Sen no Rikyū not only establish and refine the Wabi tea style but also the sōan tea(lit., "grass hermitage") which emphasized on freedom and practicality. Sen no Rikyū's pupil Yamanoue Shoji(1544~1590) added his philosophy of Ichigo-Ichieh(一期一會, Once in a lifetime) to that of Shikishichisoku of Sen no Rikyū and continued to improve upon it. Tea began to reach the general public only after modern era. There are three groups who make up the Sansenke, which is in the very heart of Japanese tea culture, and they are Omote Senke(1613~1672), Ura Senke, Mushano Kouji Senke. Some also consider Yabunouchi Ryu and Sadohayami Ryu and call them the big five. Japan has not only embraced Tea ceremony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but also has turned it into a great medium and utilized it in various business and content creations to raise its marketability. First of all, various venues such as Tanabe museum, Irimashi museum, Tea information center and culture centers hold tea ceremonies and classes where everyone can join in for a nominal fee. Second, places such as Numas Koyotei Memorial Park, Uahhonjin park, Porenakakawane Tea center, Shijuokas Tea center, Shimistei Park serves tea to the general public and also hold entertainment events with Tea infused into their programs. Third, various mediums such as Ang Donuts, Nihonjin

no shiranai Nihongo(Japanese even Japanese don't know), Hanayori Dango, Aoki Sachikos Chabashirakuri comic in weekly publication Times, and Japanese webtoon the Tears of Tea-Larmes de The by Minamo Kaeroo published in EDEN provides multiple angles for tea to reach the general public and last, sales of tea drinks, instant teas, and tea related character products for adding values to teas. As seen above the reason why Dado has become so accessible to the public was due to the abundant amount of information provided via media and public services and the sales of various tea and tea related products. Enjoying tea is no longer a luxury but a part of every days life as a hobby or for fashion. South Korea should learn and absorb the strong points of Japanese practices and begin spreading the Dado spirit by naturally augmenting Dado into everyday activities.

Key Words: Japanese Tea Culture, Japanese Buddhism, Garden, Tearoom, Zen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차(茶)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인간의 교류와 물품의 교역과 함께 점차 주변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실크로드¹⁾는 차가 전파되는 주요 통로였다. 실크로드는 서역(西域) 국가들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민간인, 구법승, 그리고 사신들의 잦은 왕래를 통해 동·서 문화교류를 촉진시킨 통로였다.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들 중에는 차뿐만 아니라 찻잔과 다호(茶壺) 등 도자기류와 비단, 철기, 약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차가 처음 음용되기 시작한 것은 파·촉 지방의 소수민족에 의해서였다. 진대(秦代)에는 한족들이 처음 차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한대(漢代) 이후 차문화는 동방과 서북으로 전파되었다. 실크로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차는 서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수·당 이후 서쪽 변경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무역과 교역은 당대부터 차마무역(茶馬貿易)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차마古道(茶馬古道)는 비단길보다 앞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역통로였다. 중국의 차는 송(宋)대에 이르러 아라비아,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일본 등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의 향구를 왕래하면서 상품화된 찻잎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재배하는 방법과 기술도 배워갔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차가 건너간 시기는 나라 시대였으며, 그 역할은 견당사(遣唐使)들이 담당하였다. 일본의 차문화는 선사상의 유입과 함께 가마쿠라 시기에 대중화되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차문화는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에 일본 차문화가 전파된 시기는 1610년경 일본 나가사키 현에서 무역을 하던 네덜란드인이 처음으로 유럽에 차문화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차문화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 유럽인들은 찻잎에 유독물질(有毒物質)이 담겨있는지

1)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총길이 6,4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中原) 지방에서 시작하여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변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른다.

의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차문화와 차상품은 16세기부터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아시아 지역이 서방으로 나가는 중계지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 중요한 차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운남(雲南) 지역으로부터 중국의 서부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방의 몽골, 그리고 러시아 등에도 차가 전파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흥성하지는 않았다. 이후 17세기까지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차무역을 주도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차는 영국에 의해 다시 전 세계로 역수출되었다. 이후 차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료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차(茶)의 기원설(起源說)에는 신농설(神農), 편작설(扁鵲說), 기파설(耆婆說), 달마설(達磨說), 이아설(爾雅說), 그리고 왕포설(王褒說) 등이 있다. 차의 기원설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한 설이었다. 공통적인 특징은 차가 처음에는 건강 보건의료, 즉 약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해독 작용과 각성작용, 그리고 숙취 등에서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차가 차문화로 발전된 시기는 한나라 때였다. 한나라 때 문인들이 차를 마시는 습관은 차문화가 형태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모습이었다. 차문화에 관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전한(前漢) 때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이었는데, 여기에는 “차를 끓이고 다구를 씻고 정리하며, 무양(武陽)에 가서 차를 사온다.”²⁾는 기록이 있었다. 중국에서 초기에 차문화를 즐긴 사람들은 대부분 문인과 선비들이었다. 유가에서 차는 심학(心學)의 일환으로 간주되었으며, 심신수양과 실천철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차문화사에 철학적 바탕을 제공하였으며, 예도(藝道)로 발전되었다. 다심일여(茶心一如), 중도(中道), 중용(中庸), 그리고 다덕(茶德) 등은 차의 철학적·사상적 배경을 대변해 주었다. 불교에서는 차를 끓여 마시는 과정이 참선의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차문화에 선사상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문화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길잡이 노릇을 하였다. 다선일미(茶禪一味)는 차문화와 선사상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였다. 이처럼 차문화는 등장 초기부터 종교, 사상, 철학,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즐겨 마시는 차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

2) 왕포(王褒), 『동약(僮約)』, “烹茶盡具 武陽買茶”참조.

아권은 물론이고,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등 서구권에서도 독자적인 차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는 각각 다른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이후 그 나라의 전통과 정신에 걸맞게 발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도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차의 종주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차문화에 대한 세계성, 고유성, 그리고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이래로 정착된 다도는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차문화를 형성해 왔다.³⁾ 이러한 다도 전통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회적·사상적·문화적·예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차문화가 창의적·산업적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차문화콘텐츠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하며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도 전통의 시대적 변화는 차상품과 도구들뿐만 아니라 정신적·미적 감각의 변화도 유도하였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문화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며, 일반인들의 대중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차가 일반 대중음료로 자리 잡으면서 차상품의 생산은 다양화·대량화되었으며, 2차 산업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차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차문화 관련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킨

3) AD 48년 허황옥은 인도 야유타국 공주로 차의 산지인 사천 보주를 거쳐 김해 가야로 출가하였다. 김해 백월산에서는 인도, 운남, 사천에서 성장하는 대엽종의 차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에 의하면 661년 신라 문무왕 때 가야의 종묘에 시절 제사를 지내는 음식으로서 떡, 밥, 과일, 차 등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 나라(奈良)의 도다이사(東大寺)의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는 백제의 행기 스님이 절 주변에 차를 심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규보의 『속동문선(續東文選)』 66권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는 635년 원효대사가 부안의 원효방(元曉房)에서 수도하며 차를 끓여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선덕왕(AD 632~647) 때부터 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차의 재배는 신라 흥덕왕 3년(AD 828) 대렴(大廉)이 당의 문종 황제로부터 차를 대접받고 귀국 길에 차 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차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진흥왕(540~575) 때 화랑도들이 차를 마신 흔적도 있다. 신문왕(神文王, 681~692) 설총(薛聰)은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할미꽃을 빚대어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고(親正直遠佞邪), 차와 술로서 정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茶酒以清神).”라고 말했다. 674년에 만들어진 경주 안압지에서 회색토기가 출토되었다. ‘언정영(言貞榮)’이라는 찻잔에 작은 글씨로 ‘茶’자가 쓰여 있었다. 이는 차 생활을 통해 ‘말이 바르면 영화를 얻는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1968년 경주 창림사(昌林寺) 절터에서 ‘다연원(茶淵院)’이라는 기와파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옥(茶屋)이었다.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金海白月山有竹露茶 世傳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來之茶種云”; 『三國史記』, 권46권, 「列傳 제6.薛聰」 참조.

나라는 일본이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란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그 밖의 각종 정보자료나 도서 저작물 등 사람들의 감각기관에 포착되어 소통하고 유통되는 모든 자원들을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다.”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협의적 의미를 벗어나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승국은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였는데, 그는 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의 원형 연구에서 도출되는 소스(source)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통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만들어 내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플랫폼(platform)에 담겨져 유통되는 총체적인 인문지식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외연을 확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화콘텐츠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음향,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하였다.⁵⁾ 여기에는 음식문화, 음료문화, 정원문화, 다실문화 등 기호, 문자, 음성, 소리,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형태의 표현물이 포함되었다.⁶⁾

현대에 이르러서 차문화는 중요한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차는 일반대중들에게 건강음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문화 산업은 정신적 측면에서 치유와 명상의 건강음료와 기호식품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예절교육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

4)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p. 17에서 재인용.

5) Ibid., pp. 17~18.

6) 광의적 의미로 문화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자료와 정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관광자원이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 또는 원형’ 등을 말하며, 협의적 의미로는 ‘IT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전달, 유통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연구가 내용과 이론과 방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제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제간 연구에서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기호학이다. 문화기호학은 문화콘텐츠를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재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전통적인 기술(IT)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기호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학제적 접근을 전제한 커뮤니케이션 중심, 즉 인문학과 사회학 기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문화콘텐츠를 온라인 매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지적·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확장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개념에는 오프라인의 다양한 문화형태나 개념, 즉 다실문화, 정원문화, 꽃꽂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pp. 72~75.

다. 따라서 차문화 산업은 이미 국가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문화로서 다도는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다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문학적성을 고려해 볼 때 차라는 소재는 문화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창작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산업계는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두 나라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21세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문화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문화인 다실문화와 정원문화를 문화관광 산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차상품과 다실문화와 정원문화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정신문화 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차문화콘텐츠가 역사성, 전통성, 지속성, 예술성, 그리고 산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한국과 일본은 현대적인 문화 흐름에 맞춰 자국의 전통 문화자원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제적 위상의 재정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문화산업 측면에서 그 교두보 역할들 중 하나를 차문화콘텐츠의 활용에서 찾고 있으며, 차생산국인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차문화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차문화를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를 고찰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차문화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차문화콘텐츠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차문화의 연구는 크게 물질문화, 제도문화, 교육문화, 민속문화, 행위문화, 그리고 정신문화 연구로 나누어지며, 현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문화 관련 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차문화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로 차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며, 차문화 소통공간을 확대해야 하고, 차문화 공간을 일상화해야 하며, 차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차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일본 불교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양희는 「『신코킨와카슈』(심고금화가집) 연구 : 불교사

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⁷⁾에서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일본 증세의 척찬와카집인 『신코킨와카슈』(1205)와 불교사상과의 관련양상을 규명하였고, 명천은 「선(禪)과 일본무사도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⁸⁾에서 선사상이 일본 무사들에게 끼친 영향과 그로 인한 무사도 형성 등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박규태는 「창가학회(創價學會)에 대한 일고찰 : 불교혁신운동의 측면을 중심으로」⁹⁾에서 근세에 창가학회가 불교혁신운동 측면에서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김성도는 「19세기 일본 불교 건축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일원 사찰의 불전 건축 의장을 중심으로」¹⁰⁾에서 19세기 동경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의 특성을 사찰의 건축 양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 차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서현은 「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 다도의 정신문화 中心으로」¹¹⁾에서 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를 비교하고 그 속에 담긴 일본과 한국의 다도 정신을 살펴보았으며, 노근숙은 「일본 초암차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차문화 구조에 관한 연구」¹²⁾에서 일본의 초암차가 형성된 과정을 일본의 불교 사상을 통해 살펴보았고, 김경애는 「일본 '와비차(わび차)'의 성립과 전개」¹³⁾에서 선불교를 받아들였던 가마쿠라 시대를 중심으로 와비차의 성립과 전개를 고찰하였다. 또한 김경희는 「센리큐의 다도정신에 관한 연구」¹⁴⁾에서 와비차를 완성시킨 센리큐의 다도정신을 『남방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송상숙은 「日本 茶書에 나타난 佛敎思想 : 『禪茶錄』을 중심으로」¹⁵⁾에서 일본다도 형성에 영향을 준 불교 사상

7) 김양희, 「『신코킨와카슈』(신고금화가집) 연구 : 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5.

8) 명천, 「선(禪)과 일본무사도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 석림 제41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7, pp. 229~253.

9) 박규태, 「창가학회(創價學會)에 대한 일고찰 : 불교혁신운동의 측면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20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pp. 69~86.

10) 김성도, 「19세기 일본 불교 건축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일원 사찰의 불전 건축 의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제22권 제7호 통권 제213호, 대한건축학회, 2006, pp. 163~172

11) 김서현, 「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 다도의 정신문화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1.

12) 노근숙, 「일본 초암차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차문화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9.

13) 김경애, 「일본 '와비차(わび차)'의 성립과 전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5.

14) 김경희, 「센리큐의 다도정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2.

15) 송상숙, 「日本 茶書에 나타난 佛敎思想 : 『禪茶錄』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을 일본의 다서(茶書) 『긱다양생기(喫茶養生記)』, 『산상종이기(山上宗二記)』, 『남방록(南方錄)』, 『선차록(禪茶錄)』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강현숙은 「일본의 전다도(煎茶道)에 관한 연구」¹⁶⁾에서 에도 시대에 나타난 전다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 불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본의 불교사상, 선사상, 불교혁신운동, 그리고 일본 건축양식에 불교가 끼친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 차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다도, 초암차, 와비차, 긱다양생기, 그리고 센리큐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과 선행연구들의 차이점은 일본 불교와 차문화, 그리고 차문화콘텐츠 개발과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것과 일본 불교가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차문화(또는 다도)의 현 위치를 인식하고, 먼저 일본의 차문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일본의 차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일본의 차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교가 차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일본 불교의 역사와 문화, 사상적·문화적 특징, 그리고 일본의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일본의 차문화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차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대한 고찰은 일본 차문화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런 분석 결과는 한국 불교 사찰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일본의 차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불교와 정원문화, 그리고 다실문화

석사학위, 2010.

16)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煎茶道)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8.

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차문화와 불교문화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문화를 통해 차문화가 발전하였다. 따라서 일본 차문화와 차산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불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선사상을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특징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일본의 차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선사상, 차문화의 발전과정과 특징, 정원문화의 발전과정과 특징, 그리고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내포된 문화콘텐츠 요소들을 고찰할 예정이다. 일본의 차문화 산업은 일본의 불교와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실문화 및 정원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불교는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II장은 일본 불교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일본 불교의 특징은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할 예정인데, 역사적 특징에서는 불교의 전래 과정과 불교 전래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일본 불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초기,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와 근현대로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이고, 사상적 특징은 신불습합사상, 진언밀교사상, 정토사상, 아미타불 사상, 그리고 선사상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예정이며, 문화적 특징은 중국으로부터의 선불교와 선문화 유입, 가마쿠라 시기의 선문화와 차문화 대중화, 무로마치 시기의 귀족 중심 선문화와 정원문화, 전국 시대의 사원 중심 선문화, 그리고 에도 시대 이후 다양해진 선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III장은 일본 불교가 차문화와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과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특징, 그리고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을 고찰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시대별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특징을 고찰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차문화와 정원문화가 일본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차문화의 발전 과정은 고대,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센고쿠, 에도, 메이지 시대로 구분하여 고찰할 예정이며, 정원문화의 발전과정은 고대 일본,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아즈치·모모야마, 에도, 그리고 메이지 이후의 현대식 정원문화로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차문화와 정원문화가 문화콘텐츠에 끼친 영향은 종교, 사상,

예술, 사회 분야별로 구분하여 고찰할 예정이다.

본 논문의 IV장은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 장에서는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형성과 개발에 끼친 영향을 교육적, 정신적, 사회적, 예술적,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본 논문의 V장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일본 차문화가 주는 시사점을 고찰할 예정이다.

일본 불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확립이었으며, 일본 차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와비사상이었고, 일본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을 적용한 검소하고 소박한 다실문화였다.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통문화인 다도문화와 정원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외래문화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과 화합,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이 일본의 불교 역사와 차문화, 그리고 차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본의 차문화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서 종교, 사상, 문화, 예술, 산업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차문화콘텐츠는 종교적 측면에서는 신도와 불교의 영향, 사상적 측면에서는 선사상과 자연숭배사상, 그리고 와비사상의 영향, 교육적 측면에서는 차문화 집단들의 사제교육과 현장체험, 시청각 자료 등의 영향, 예술적 측면에서는 자국의 소박한 예술문화와 중국의 화려한 예술문화의 영향,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실 공간의 개방과 소통과 화합의 영향,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종교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 차사랑 정신,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차상품 연구와 개발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불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차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본 불교와 차문화의 상호 연관성을 문헌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며, 일본 차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와 현장 방문도 병행할 것이다. 본 논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본 차산업과 차문화콘텐츠의 특징과 장점을 고찰하여 한국 차산업과 차문화콘텐츠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한국 차문화 발전과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일본 불교의 역사, 문화, 사상에 대한 연구와 차문화 및 콘텐츠

에 대한 연구를 문헌 중심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그 해석과 적용은 기존의 보편적인 차문화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정량적 틀이나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성적 해석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적 접근방식은 중요 문헌이나 서적으로 전달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불교의 역사와 문화, 일본 차문화의 역사와 문화, 일본 정원문화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한 후 이를 통해 현재 일본 차문화콘텐츠를 분석하고 상호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일본의 사례를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에 활용하는데 있다. 일본 불교와 차문화콘텐츠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은 해석적 순환관계(hermeneutic circle)에 의한 분석 기법이다. 이 방법은 일본 불교와 역사, 그리고 사상에 대한 개별 연구결과를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연구에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다시 교육적, 정신적, 사회적, 예술적, 산업적 측면에 대한 해석과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 불교와 차문화, 다실문화, 그리고 정원문화에 대한 해석은 서적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전체적 맥락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 이를 차문화콘텐츠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에 응용한 후, 다시 세부적이고 다면적인 의미의 해석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II. 일본 불교의 발전 과정과 특징

1. 일본 불교의 발전 과정

1) 초기에 전래된 일본의 불교

일본의 불교 신자는 9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¹⁷⁾ 일본은 신도의 나라이자 불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의 사찰 수는 약 11만 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일본의 불교 신자 수와 사찰 수를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불교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승려들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 불교가 발전을 지속해 온 배경에는 전통적인 진호(鎭護) 국가관을 바탕으로 왕조들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관계는 불교가 처음 전래된 6세기 초부터¹⁸⁾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역사적 현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관계 형성은 불교의 종교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대 일본 불교의 전래 역사는 『원흥사가람록기병유기자재장(元興寺伽藍緣起並流起資材帳)』을 비롯하여, 『상궁성덕법왕제설(上宮聖德法王帝說)』, 『부상략기(扶桑略記)』, 『원형석서(元亨釋書)』, 『대안사심상대덕기(大安寺審祥大德記)』, 『일본서기(日本書記)』 등 여러 고대 불교 전적(典籍)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불교는 한반도로부터 전해졌지만, 중국의 대륙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의 문화적 요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본 열도로 유입되었

17)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rint/country/countrypdf_ja.pdf. (검색일: 2014.03.23) CIA의 "The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127,103,380명(2014년 5월 기준)이며, 이중 신도 신자는 83.9%, 불교 신자는 71.4%, 기독교 신자는 2%, 그리고 기타 7.8%에 이른다. 신도와 불교 신자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이유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신도와 불교를 동시에 믿고 있기 때문이다.

18)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에 대해, 『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 552년 10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원흥사가람록기병유기자재장(元興寺伽藍緣起並流起資材帳)』에는 538년 12월이라고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후자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다. 공식적 유입에 관한 가장 유력한 설은 『일본서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선화(宣化) 3년(538) 백제 성왕(聖王, 523~554)이 일본으로 불상과 경전과 스님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 또한 긴메이(欽明, 509~571) 천황 6년(545)에 백제가 일본 천황을 위해 장육(丈六)의 불상을 만들었고, 야마토(大和) 조정인 흠명천황 13년(552)에 이 불상을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하지만 이 시기 이전에 이미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 왔으며, 이들을 통해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신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²¹⁾

『일본서기』 「민달(敏達) 13년(584) 9월조」에는 “불법(佛法)의 시초가 여기에서 성립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해 시바노다츠토(司馬達等)의 딸인 시마(島)를 11살의 나이에 출가시켜 쯔신니(善信尼)라고 불렀다. 그리고 쯔신니의 제자 두 명을 출가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는 한인야보(漢人夜菩)의 딸인 풍녀(豊女)로, 범명을 쯔조니(禪歲尼)로 하였고, 다른 하나는 금직호(錦織壺)의 딸인 석녀(石女)로, 범명을 게이쨌니(惠善尼)로 하였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가 혼자 불법에 의지해서 세 명의 비구니를 공경했다.”²²⁾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민간교류 차원에서 불교는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이미 오래 전에 전해졌으며, 최초의 출가자는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식적으로 불교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시기는 538년이였다.

새로운 종교인 불교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지기 전 일본은 토속신앙인 자연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씨족 집단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에 대한 관념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우지(氏) 숭배 신앙이었다. 우지 숭배는 당시 일본 사회의 기본적 신앙이었는데, 부족사회의 우지 숭배는 씨족과 동족, 그리고 기능 집단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漢書)』 「지리지(地理誌)」에는 “낙랑의 바다 맞은편에 왜인이 있는데 100여 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다.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친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전(東夷傳)」에는 “지금 사신을 파견해 오는 곳이 30개 국”이라는 기록이

19) 마츠오 겐지,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 33.

20) 笠原一男, 川崎庸之, 계환스님 역, 『일본불교사』, 우리출판사, 2009, p. 15.

21) Ibid., pp. 15~16.

22) Ibid., pp. 16~17.

있다.²³⁾ 『삼국지(三國志)』의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는 "1,000호(戶)에서 7만 호까지 이르는데 그 크기가 다양한 100개의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는 왕들에 의해 다른 일부는 여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²⁴⁾ 이를 통해서 일본은 소국가(小國家)의 형태로 혈족(血族) 중심의 여러 집단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대 일본 사회는 씨족 중심의 사회였으며, 각 지방의 작은 씨족(小氏族)들은 큰 씨족(大氏族)을 형성하였고, 큰 씨족 위에는 황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황실의 조상신을 존송하고 섬기면서 자기 씨족의 조상신과 결부시켜 숭배하였다. 이것이 일본인의 조상신의 관념이었다. 황실 숭배 밑에는 통일된 대중의 씨족 제도 정신이 있었고 점차 종합적이고 씨족적인 조신교(祖神敎)의 성격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모테이추구 조상신이 곧 이에(家)의 수호신인 우지가미(氏神)였다.²⁵⁾ 우지가미의 숭배 신앙은 신토(神道)로 체계화 되었다. 이처럼 우지가미(氏神, 씨족신) 신앙은 조상숭배의 전형적인 예로서 개인의 사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으로서 출발했다.

하지만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개인의 병사(病死)에 따른 고통에 응답하는 보편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는 강력한 토속신앙에 밀려서 배척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 집단들도 불교의 유입을 반대하였다. 당시 배불론을 주장했던 모노노베(物部, 507~584)와 숭불론을 주장했던 오오미(大臣) 소가(蘇我, ?~626)는 원래 정치적 대립관계였으나, 후에 종교적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배불과 숭불을 둘러싼 긴장관계와 논쟁은 두 가문의 대를 이어가며 지속되었다.²⁶⁾ 587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배불론을 주장했던 모노노베가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의 기습으로 사망한 후, 모노노베의 배불론은 호족들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반대로 숭불론을 앞세운 소가는 왕족과 호족의 지지를 얻으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로 인해 불교는 국가불교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23) 서영애, 『일본문화와 불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3, p. 23.

24) Ibid., p. 23.

25) 무라오카 츠네츠클, 박규태 역, 『일본 신도사』, 예문서원, 1998, p. 37.

26) 마츠오 겐지, op. cit., pp. 33~36.; 구태훈, 『일본문화사』, 재팬리서치21, 2011, p. 63. 숭불론의 소가(蘇我)는 이나메(稻目, 505~570), 우마코(馬子, 550~626)이고, 배불론의 모노노베(物部)는 오코시(尾輿, 496~570), 모리야(守屋, 515~587)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불교가 발전을 지속해 온 배경에는 전통적인 진호(鎭護) 국가관을 바탕으로 왕조들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관계는 불교가 처음 전래된 6세기 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역사적 현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관계 형성은 일본 불교의 종교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일본의 고대 불교

불교는 기원전 5세기에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대륙의 문화, 특히 유교, 불교 등이 들어오면서 일본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특히 정신문화면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정치면에서도 지배체제의 재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 ?~626)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588년 선진 기술을 보유한 백제의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법흥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며, 609년에 완성하였다. 왕족으로서 최초로 불교에 귀의한 사람은 쇼토쿠(聖德, 574~622) 태자였다. 그는 요메이(用明, ?~587) 천황의 아들이자 스이코(推古, 554~628) 천황의 조카였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의 정신을 정책에 반영하여 문화수준을 높이고 호족들의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교를 보호하였고, 호류지(法隆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 등 많은 사찰을 지었다.²⁷⁾ 이처럼 일본 불교의 초석을 다진 쇼토쿠 태자는 스승이었던 고구려 스님 혜자(惠慈)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불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는 604년 17조의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불교의 이념을 근간으로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할 것을 명시하였고, 유교적 덕목들을 칭송하였다. 쇼토쿠 태자는 훗날 일본 불교의 교조(教祖)로 평가받으며, 불교의 전래는 단순한 신앙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직접 유학승을 파견하며 대륙 불교를 받아들였고, 국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대사원을 건립했다. 또한 일본 불교는

27) <http://cafe.naver.com/seereligion/302>(검색일: 2014.04.25)

고대 일본의 종교와 습속을 지키려는 세력과의 타협책으로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본지수적설이란 본체인 부처나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일본 재래의 제신(祭神)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설이다. 이 같은 신불습합(神佛習合)은 이후에도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로 계승되었다.²⁸⁾

7세기 초 아스카 시대에 쇼토쿠 태자의 적극적인 숭불의 노력에 의해 불교를 수용한 일본 불교는 나라(奈良) 시대에 국가 불교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스승이었던 혜자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혜충(慧聰) 스님에게서 삼장을 배우고, 주석서를 저술하여 불교 신앙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한국과 중국으로 불교 학문 연구를 위한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대륙 불교를 받아들여 국가의 정치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쇼토쿠 태자의 『십칠조헌법(十七條憲法)』 ‘독경삼보장(篤敬三寶章)’에 “부처[佛]는 모든 생명체[四性]의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終歸]이며, 만국(萬國)의 최고의 중심[極宗]이다.”라고 극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²⁹⁾

『일본서기』에 의하면 고교쿠(皇極, 594~661) 천황이 639년 백제대사(百濟大寺; 大安寺)의 건립을 통해 불법홍룡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10사를 임명하였으며, 이들에게 승려들을 지도하고 불교 수행에 정진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는 백고좌(百高座)를 설치하였고, 1000개의 납 가사로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를 행하였다. 이 법회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회가 창시된 이후 일본 불교는 호국화 되기 시작하였다.³⁰⁾ 6세기 말 아스카지역에 일본 최초로 당탑가람(堂塔伽藍) 양식으로 정비된 아스카데라가 건립되었다. 이때부터 왕을 비롯한 지방 유력 호족들은 거대한 분묘대신 불교 사원 건축을 권세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아스카 시대에는 아스카데라를 비롯하여 46개의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³¹⁾

아스카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는 사상과 학문, 문학, 건축, 기술, 공예 등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백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서 대

28) 폴 발리, 박규태 옮김, 『일본문화사』, 경당, 2011, p. 53.

29) 서영애, op. cit., p. 50에서 재인용.

30)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 24.

31) 서영애, op. cit., p. 59.

거 이주한 기술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나라의 남쪽 아스카 지방에서 문화의 꽃을 피우며 고도로 발달한 문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아스카 문화는 백제를 중심으로 이룩된 문화로 일본 최초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 남북조 문화는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동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스카 문화는 일본 문화 중 최고의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672년 진신의 난(壬申の亂)에서 승리한 오오아마 황자는 덴무(天武, 631~686) 천황으로 즉위한 후(672) 각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도교에 관심을 두고 신도(神道)를 정비하여 국가 신도를 확립하였고,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불교를 추진하였다. 또한 그는 칭호를 대왕(大王)에서 천황(天皇)으로 변경하여 천황의 지위와 권력을 크게 강화하였고, 일본(日本)을 국호로 정한 최초의 군주가 되었다. 681년 덴무 천황은 율령 제정과 보급을 통해 불교를 일본 전역으로 전파하였다. 하지만 불교는 율령제도 속에 편입되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원은 왕권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백성과는 엄격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왕의 허락 없이 승려가 될 수 없었다. 이처럼 덴무 천황의 불교 흥륭(興隆)정책은 왕권 강화와 국가안온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³²⁾

덴무 천황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토(持統, 645~703), 몬무(文武, 672~710) 천황이 재위하던 672년부터 710년까지는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가 완성되는 시기이며 천황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정무를 직접 통치하던 시기였다. 야마토를 중심으로 일개 수장에 불과했던 대왕이 우지들을 관료로 전환시키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서 일본 최초로 천황제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중국의 당나라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며 하쿠호(白鳳) 문화를 생성하였다.³³⁾

하쿠오 문화는 아스카 문화와 달리 7세기 후반 율령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기운이 넘치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견수사(遣隋使)와 견당사(遣唐使)가 파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궁중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의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스카 문화가 중앙 호족들이 일으킨 불교문화였다면, 하쿠오 문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불교문화로서 호

32) 폴 발리, op. cit., p. 65.

33)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출판사, 2006, pp. 47~48.

국불교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³⁴⁾ 하쿠오 시대의 호국불교 정책을 바탕으로 8세기 중기 덴무 천황은 승관제도를 발전시켰고, 고쿠분지(國分寺)와 도다이지(東大寺)를 중심으로 새로 건립된 사원은 무려 480여 개에 이르렀다.

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쇼무(聖武, 701~756) 천황 재위 시절에 불교는 최전성기를 맞았다. 일본 불교는 신도의 체계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확보하였다. 동대사 대불 개안식³⁵⁾은 불교가 신도와 융합하여 존재하는 신불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 불교는 나라 시대에 일시적으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헤이안 시대까지는 귀족들을 위한 종교로 발전하였으며, 국가의 보호 아래 번영하면서 더욱 토착화되었다. 나라 시대 불교의 특색은 교학적(敎學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사상적 근거를 확립하였다는 점이었다. 나라 시대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많은 경론서를 수입하였고, 중국의 학문적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불교의 수입경로에 따라 다양한 종파가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삼론종(三論宗), 성실종(成實宗), 법상종(法相宗), 구사종(俱舍宗), 화엄종(華嚴宗), 율종(律宗)의 6종 학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남도 6종(南都六宗)이라 불렸다.³⁶⁾

남도 6종의 첫 번째는 삼론종으로 고구려의 혜관에 의해 쇼토쿠 태자 시절에 전해졌다. 혜관은 원흥사에서 삼론을 가르쳤으며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두 번째는 성실종인데 백제의 도장(道藏)이 712년 일본에서 “성실론”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으며, 후에 삼론종으로 통합되었다. 세 번째는 법상종으로 당나라에 유학한 도소(道昭, 629~700)가 전래해 온 것이 최초인데, 이후 일본 유학승과 신라 승려가 4차례에 걸쳐 교의(敎義)를 전했다. 흥복사를 중심으로 법륜사(法隆寺), 약사사(藥師寺) 등에서 학풍을 떨쳤다. 네 번째는 구사종이다. 법상종의 유식학과 쌍벽을 이룬 구사학은 오랫동안 불교학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법상종에 통합되었다. 다섯 번째는 화엄종으로 신라의 심상(審祥)이 동대사에서 『화엄경』을 강설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때 낭변(浪辯, 689~773)은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후에

34) Ibid., pp. 82~86.

35) 정혜선, 『일본사』, 도서출판 가람, 2011, p.92.: 쇼무 천황은 동대사에 거대한 불상을 조영하여 자신을 비로자나불의 노예라고 자칭하며 부처의 공덕으로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개안식에는 인도의 승려를 초청하며 대대적인 불교적 행사를 열었으나, 불교적 행위는 일본의 신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신탁에 의해 행했다.

36) 구태훈, op. cit., p. 97.

일본 화엄을 확립하였다. 이후 일본 화엄은 동대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섯 번째 율종은 당나라 감진(鑑眞, 687~763)의 입국으로 성립되었다. 감진은 다섯 차례나 율종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고, 여섯 번째로 성구카이 『사분율(四分律)』에 의한 계율 종단을 설립했다.³⁷⁾ 당시의 학문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일사일종(一寺一宗)이 아니라 하나의 사찰에 각기 다양한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하나의 종파가 하나의 사찰을 독점하지 않아 종파로서의 결속력은 약했다.³⁸⁾ 남도 6종 중 특히 번성했던 종파는 법상종과 화엄종이었다.

나라 시대에는 매년 득도(得度)하려는 승려(또는 대승, 大僧)의 수를 국가에서 통제해야 할 만큼 불교가 융성했다. 일본의 승려들은 득도와 수계(受戒)의 두 관문을 통과한 후 승려가 되었다. 이처럼 조정은 한편으로 불교를 국가에 종속시키고 국가불교로 보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승니령(僧尼令)을 내려 불교를 통제하였다.³⁹⁾ 또한 국가는 사원 이외의 지역이나 민간에 대한 개인적 포교를 금지시켰는데, 8세기 중기 쇼무(聖武, 701~756) 천황의 등장으로 국가불교의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승려들은 사찰을 떠나 은밀하게 민중을 대상으로 포교하였으며,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백제계로 일본 최초의 큰스님이었던 교키(行基, 668~749)는 대중포교를 위한 사회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농촌 개량사업 등을 전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교키 스님의 사회사업은 복전사상(福田思想)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⁴⁰⁾ 또한 당나라 때 승려였던 감진 스님은 천보(天寶) 12년(753) 일본에 와 일본 율종의 시조가 되었다. 일본의 국가적인 수계(授戒) 제도는 감진 스님에 의해 비롯되었다.⁴¹⁾

이처럼 일본 불교는 현세구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당시 일본사회의 현실에 적합하게 변용되어 갔다. 특히 이 시기에 불교와 신도는 본래 동일한 것이라는 신불습합사상(神佛習合思想)이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일반 백성

37)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재팬리서치21, 2008, pp. 143~144.

38)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 29.

39) 불교를 율령국가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작성된 승니를 통제하는 법령이었다. 승니는 유년에 출가하여 스승을 모시고 수도하였으며, 15~16세에 일정한 국가시험을 치른 후 승려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를 득도(得度)라 하였다. 이후 몇 년간 더 수행한 후 계(戒)를 받고 나서 승려가 될 수 있었다.

40) 홍윤기, 『일본문화사』, 서문당, 2000, pp. 187~194.

41) 마츠오 겐지, op. cit., p. 53~54.

들의 출가가 허용되었으며, 장례문화에서도 화장(火葬)하는 풍습이 빠르게 확산되어 8세기 초 민간에게 보급되었다.⁴²⁾ 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사원은 야쿠시지(藥師寺), 다이안지(大安寺), 고후쿠지(興福寺), 간고지(元興寺), 도다이지(東大寺), 사이다이지(西大寺), 도쇼다이지(唐招提寺) 등이었으며, 이들은 대사원으로서 국가불교의 중심이 되었다.⁴³⁾

간무 천황이 헤이안교(平安京) 천도 이후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불교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다. 나라 시대의 불교가 국가불교인 호국불교(護國佛敎)였다면, 헤이안 시대의 불교는 진호국가(鎮護國家) 불교를 표방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새로운 불교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덴교대사(傳敎大師) 사이초(最澄, 769~822)와 코보대사(弘法大師) 구카이(空海, 773~835)가 중국으로부터 천태교학(天台敎學)과 당나라에서 밀교(密敎)를 배우고 진언종(眞言宗)을 수입하였다. 사이초와 구카이는 헤이안 시대 대표적 불교인 천태종⁴⁴⁾과 진언종을 개창하면서 종파의 주체성을 확립하였다. 사이초는 중국에서 형이상학적인 천태교학을 배웠지만 신도의 신을 부정하지 않고 불교와 신도의 신을 과감하게 습합시켜 신도를 천태종 속으로 융합하였다. 사이초 이후 일본의 천태종은 더욱 밀교적 의식이 강조되어 조정과 귀족들을 위한 가지기도(加持祈禱)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카이의 진언밀교는 우주 만물이 본질적으로 대일불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 즉 모든 인간은 손으로 합장을 하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마음으로 깊은 진리를 보면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초는 804년 견당사를 따라 당나라로 건너가 천태교학과 선, 그리고 밀교를 배워 귀국한 후 타락한 남도 불교를 비판하였다. 이는 남도 불교에 대한 비판과 결별이었으며 나라 시대 불교인 국가불교에 대한 비판과 결별을 의미하였다.⁴⁵⁾ 그는 새로운 불교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경도 동북쪽 히에이잔(比叡山)에 엔라쿠지(延曆寺)를 세웠고, 수행을 하며 『법화삼부경』과 『천태사교의』를 강의했다. 그는 천태교학의 바탕위에 정토의 염불과 밀교를 혼합시킨 독특한 일본 천태

42) 구태훈, op. cit., p. 144.;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46~50.

43) Ibid., pp. 51~62.

44) 천태종은 중국에서 법화경을 최고의 진리로 하여 정리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이상학적이며 철저하게 관념을 중심으로 철학을 확립하였다. 정신 집중을 통해 실상을 직관하는 선의 수행을 가르쳤다.

45) Ibid., pp. 74~75.

종의 개창자가 되었다. 특히 히에이잔은 남도 불교가 소송의 구족계를 받았던 것에 반해 원행(遠行)을 강조하는 일본 독자(獨子)의 출가의식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일본 불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창시한 일본 천태종은 중국의 천태종과 달리 밀교적 수행 방법이나 염불 수행법을 도입하면서 발전하였다. 천태종은 점차 염불 수행을 주로 하는 종파로 변질되었으나, 히에이잔의 엔라쿠지는 오늘날까지 교학의 도량과 진리탐구의 도량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다.⁴⁶⁾

구카이는 사이초와 같이 804년 당나라로 건너가 밀교를 배우고 806년 귀국 후 일본 진언종(眞言宗)을 창시하였다. 그는 고야산(高野山)에 곤고부지(金剛峰寺)를 세우고 밀교를 수행하며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위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⁴⁷⁾ 그는 수행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며 일반인들에게는 비밀로 하였다. 특히 구카이는 수행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밀교 의식을 진행할 때 진언을 외우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기도의 가피력(加被力)을 통해 입신양명, 국가의 평안과 풍작, 그리고 현세구복을 갈망하던 귀족과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진언종에 귀의하였다. 이는 일본 불교가 전래된 이후 원래 불교의 원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진언종의 밀교 수행방식은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일반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본 불교는 지금까지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밀교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수행자로서의 승려상이 제시되었다.⁴⁸⁾ 구카이는 사이초와 달리 남도 불교와 대립하거나 새로운 계단을 세우지는 않았으며, 계율도 구족계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헤이안 시대에는 사이초의 천태종과 구카이의 진언종이 부흥하였다. 후에 천태종은 밀교와 융화되어 천태 밀교로 형성되었고, 밀교 교학은 더욱 체계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천태종과 진언종은 교리 상 상호영향을 주고받았다. 천태종과 진언종은 종래의 도성 내에 있는 사원에서 주로 불교 교리를 학습하는 수준이었으나, 사이초와 구카이를 비롯한 헤이안 시대의 승려들은 산 속의 사원에서 수행하며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천태종은 사이초의 제자 엔닝(圓仁, 794~864)이 당에 들어가 밀교를 수학하고

46) 구태훈, op. cit., p. 121.

47) 마츠오 겐지, op. cit., p. 67.

48) 구태훈, op. cit., p. 161.

귀국한 후 천태교학에 밀교를 접목시키면서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를 태밀(台密)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진언종은 경도의 교왕호국사(敎王護國寺)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천태교학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데, 이를 동밀(東密)이라 불렀다. 그러나 천태와 밀교는 나중에 교단조직을 확립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종파 불교의 원형이 되었다. 이처럼 신불습합사상이 헤이안 시대에 더욱 성행하게 된 것은 9세기에 시작된 밀교의 영향이 컸다.⁴⁹⁾

헤이안 시대 중기에 일본의 전통적인 토지제도는 붕괴되었고, 귀족의 장원이 출현했으며, 지방호족과 무사계급의 쟁투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호넨(法然, 1132~1212)이 나타나 왕생을 위해 다른 잡행(雜行)을 버리고 오로지 염불할 것을 제창했다. 그는 천태종에서 공부했으나, 독립을 선언하고 정토종(淨土宗)을 세웠다. 헤이안 시대 후기는 고대 질서가 붕괴되고 중세 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로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도 연이어 발생하며 밀법사상이 성행했다. 고통스런 현실도피와 극락정토의 왕생을 기원하는 자들이 증가하면서 내세를 강조하는 정토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⁵⁰⁾

호넨의 제자 신란(親鸞, 1137~1262)은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해서만 왕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타력보은의 염불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 정토종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종파를 세웠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 최대의 종파가 된 정토진종(淨土眞宗)이다.

호넨과 친란은 중국의 담란(曇鸞, 467~542), 도작(道綽, 562~645), 선도(善導, 613~681)의 가르침을 계승하며 이를 새롭게 해석하여 독특한 정토교의를 확립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처음에 히에이잔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어 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헤이안 시대 중기에 불교의 교리와 의식이 귀족 및 일반 민중들의 삶의 모든 분야로 침투되었다. 장례 의식의 불교화나 신불습합의 이론 등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처럼 정토종과 정토진종으로의 개종은 종래의 귀족 불교가 민중 불교로 전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히예산(比叡山)은 학문을 중심으로 많은 승려가 모여 가마쿠라 시대 새로운 불교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49) 한국의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편, 『일본사회와 문화』, 제이앤씨, 2010, p. 149.

50) 구태훈, 『일본문화사』, pp. 138~140.

3) 일본의 중세 불교

가마쿠라 시대는 신불교가 탄생한 시기로서 일본에 새로운 불교 흐름이 유입되었고, 과거와 달리 불교교리를 단순화시켜 포교였으며, 이로 인해 불교는 민중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시대에 신불습합과 본지수적설이 확산되면서 신도, 불교, 유교를 하나로 보는 삼교일치설(三教一致說)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불교는 민중 속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에이잔 엔라쿠지는 일본 불교의 본산이 되었으며,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고,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중세는 문화수용의 기반이 확대된 시기로서 고대의 귀족뿐만 아니라 중세의 귀족, 무사, 그리고 서민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했던 시기였다. 이는 불교가 서민 계층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⁵¹⁾

임제종(臨濟宗)의 성립과 유행정토교의 성행과 함께 가마쿠라 시대를 빛낸 것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이었다. 선종은 이전까지 사이초에 의한 천태의 지관법(止觀法)이 기본이었으나, 헤이안 시대 말기 송(宋)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기의 불교는 호넨(法然, 1133~1212)의 정토종과 에이사이(榮西, 1141~1215)의 임제종으로 시작되었다. 호넨의 문류(門流)와 친란의 정토진종, 잇펜(一遍, 1239~1289)의 시종(時衆) 교단, 에이사이 문류의 임제종, 도겐(道元, 1200~1253)의 조동종, 니치렌(日蓮, 1222~1282)의 법화종 교단 등 새로운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 교학은 더욱 다양화되었으며, 불교교리의 실천 문제로 그 깊이는 더욱 심오해졌다.⁵²⁾

에이사이는 중국에 건너가 임제선 계통의 선법을 배워 귀국한 후 겐닌지(建仁寺)를 세우고 본격적인 선종을 개창했다. 임제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제창하고 좌선을 하면서 스승에게 받은 공안(公案)을 참구(參究)하는 것을 중시했다. 1199년 에이사이는 막부의 초대를 받고 가마쿠라로 진출했다. 당시 무사들은 귀족 문화에 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종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막부의 후원을 얻게 된 에이사이는 다시 교토로 진출하였으며 권력과 유착해 포교활

51) Ibid., pp. 185~186.

52) 서영애, op. cit., pp. 144~145.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많은 중국 승려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에 선불교의 바람을 일으켰다.

한편 도겐은 처음에는 히에이잔으로 출가해 천태를 배웠으나 나중에 겐닌지로 옮겨 선을 배웠으며, 1223년 중국으로 유학하여 조동종 계통인 여정(如淨)의 심인을 얻어 귀국했다. 그는 엄격한 인격의 완성을 통해 중생구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즉 선의 진리는 철저한 자력본원(自力本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조동종(曹洞宗)이나 선종이란 이름 대신에 불심종(佛心宗)이라는 이름으로 선법을 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는 다시 조동종으로 종명을 개칭하고 독립교단을 세웠다.⁵³⁾ 이에 비해 임제종 계통은 중국의 전통적 공안선을 중시하여 공안에 의한 견성오도를 강조했다. 이 파는 가마쿠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 장군과 중앙의 무사귀족의 귀의를 받아 크게 번창했다. 이는 선의 자기단련과 간결한 교리체계가 행동적인 무사 계급에게 인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선은 차(茶)와 함께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아 떨어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건축과 회화, 그리고 시문(詩文)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⁵⁴⁾

가마쿠라 시대 새로운 불교 운동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니치렌의 일련종(日蓮宗) 창종(創宗)이었다. 니치렌은 다른 종파의 조사(祖師)들처럼 처음에는 히에이잔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법화경』 하나만을 의지하는 것을 종지(宗指)로 세우고 독립을 선언한 후 법화종(日蓮宗)을 개창하였다.⁵⁵⁾ 니치렌은 독특한 주장과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막부(幕府)의 박해를 받아 한때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련종의 교의는 간결한데다 일본의 신들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존중하는 등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 가장 일본적인 불교 종파로 발전했다. 이밖에도 가마쿠라 시대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교의의 중심에는 염불, 선, 『법화경』이 있었다. 이는 과거의 불교가 국가주의 또는 귀족주의였던 것과 달리, 이 시기의 불교는 개인의 종교로 출발해 민중 사이에 교단의 기초를 확립한 후 민중종교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마쿠라 시대에 위대한 고승들이 출현한 것과 함께 불교가 귀족들의 종교에서 서민이나 무사들을 위한 새로운 종파로 변모하면서 일본의 신(新)불교는 전

53)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p. 288.

54) 구태훈, 『일본문화사』, pp. 185~186.

55) 와타나베 쇼코, 김진만 옮김, 『日本の 佛教』, 昭和, 1995, p. 130.

계층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각종 새로운 종파가 창설되어 호넨, 친란, 도겐, 니치렌 등의 승려들이 민중에게 알아듣기 쉽게 불교를 전파하였다. 선종은 이때 무사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며, 오늘날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다도(茶道)와 꽃꽂이 등도 이 시기에 선종과 함께 유행하였다.⁵⁶⁾

무로마치 시대의 불교는 교학적으로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마쿠라 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나아갔다. 신불교 중에서 임제종은 무로마치 막부를 창설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선종 무소 소세키(夢想 疎石)에게 귀의하고, 교토에 덴류지(天龍寺)를 창건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무로마치 막부 쇼군가는 대대로 임제종에 귀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3대 쇼군 요시미쓰는 5산 10찰(五山 十刹)⁵⁷⁾의 제도를 정비하고 임제종을 통해 종교를 통제하였다. 5산은 막부가 주지를 임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선종 사원이었다. 그는 5산의 승려를 정치·외교의 고문으로 임용하였으며, 5산은 막부의 보호를 받으며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⁵⁸⁾ 그러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사회에서 장원제도(莊園制度)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라와 교토의 사찰들은 매우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궁핍상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계에서는 가지기도(加持祈禱)가 유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불교는 밀교화(密敎化)로 치달았다. 이 시대에 크게 번창한 교단은 렌노(蓮如, 1415~1499)의 진종(眞宗)인 정토진종(淨土眞宗)뿐이었다. 진종은 교리뿐만 아니라 세력 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여 본원사를 세웠고, 개인 구제를 목적으로 사회활동도 전개하였으며, 호국기도대신 조상숭배와 습합하였고, 농민의 종교가 되기 위해 선도와 결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진종 이외에도 조동종, 임제종, 일련종, 정토종도 생겨났으며, 이때부터 일본 불교는 조사(祖師)불교, 종파(宗派)불교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가마쿠라 시대 이래 서민층 중심으로 변모했던 일본 불교는 에도 시대에 다시 국가불교 체제로 변화되었다. 즉 에도 시대 불교는 사원제도의 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막부권력에 의한 불교의 정치적 보호는 불

56) 폴 발리, op. cit., p. 178.

57) 교토의 5산은 덴류지, 쇼코쿠지(相國寺), 겐닌지(建仁寺), 도후쿠지(東福寺), 만주지(万壽寺)이며, 가마쿠라의 5산은 겐초지(建長寺), 엔가쿠지(圓覺寺), 주후쿠지(壽福寺), 조치지(淨智寺), 조묘지(淨妙寺)였다. 10찰이란 5산에 속하는 관사를 말한다.

58) 구태훈, 『일본문화사』, p. 228.

교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에도 시대의 폐불훼석은 국가불교 초기부터 나타났다. 유학자와 국학자, 그리고 경제적 욕구에 의해 세속적 번영이 강조되자 불교계에 폐불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⁵⁹⁾ 이로 인해 불교는 무로마치 말기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강하게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德川) 이에야스는 이중적인 불교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불교를 보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승려를 통제하면서 불교 세력을 굴복시켰다. 에도 시대의 도쿠가와 막부는 사찰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농민들과 결속해 체제에 대항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사찰을 무장해제 시켰다. 그 결과 그때까지 봉건 영주화 되어 강력한 사병을 보유하고 있던 불교 사찰들은 세력을 잃고 국가체제에 예속되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불교의 자유로운 포교, 사원 건립, 출가 득도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국가권력에 의한 본말사(本末寺)의 행정체계를 확립했다. 막부의 명령은 본산(本山)을 통해 곧바로 말사(末寺)까지 전달됐으며, 각 종파에서는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인한 종파의 본산에 소속되지 않은 사찰은 모두 폐쇄되었다. 이때의 불교는 새로운 봉건체제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다.⁶⁰⁾ 막부가 주지의 임명권까지 장악하자 승려들은 주지가 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이는 종학(宗學)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막부는 타 종교인 기독교의 금지를 위해 불교를 이용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불교로 개종하여 사원에 신자로 등록을 하도록 했고, 그 증거로 사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런 일은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었으며, 혼인, 여행, 이사 등에 사찰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했다. 이것은 일종의 호적제도였는데, 사찰이 이를 관리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누구나 어느 사찰에 소속되어야 했다. 이는 나중에 일본 불교의 특색들 중 하나인 단카제(檀家制)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불교의 단카 제도는 한편으로 승려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 승려를 체제 순응적으로 만들어 승려의 관료화와 이에 따른 안일과 타락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일본 불교가 적극적으로 권력에 봉사하면서 침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본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복고운동이 스즈키 쇼산(鈴木正三, 1579~1655)을 중

59)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 337.

60) 구태훈, 『일본근세.근현대사』, pp. 49~50.

심으로 일어났다. 그는 법어를 가나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며 민중 교화에 앞장섰다. 임제종 고승으로 시문(詩文)과 참선을 하며 수행에 앞장선 다이토쿠지(大德寺) 다쿠안(澤庵, 1573~1645)과 묘신지(妙心寺)의 구도(愚堂, 1577~1661)는 에도 시대 초기 명망 있는 선사였다. 일본 황벽종(黃蘗宗)의 종조인 인겐(隱元, 1592~1673) 선사는 1654년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우지(宇治)에 산문을 연 후 반푸쿠지(萬福寺)를 세우고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으며, 1678년 황벽종 3대 선사인 데스겐(鐵眼)이 잇사이교(一切經, 1618부 7334권)를 간행하여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다도 문화의 센차(煎茶)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던 바이사오(賣茶翁) 고유가이(高遊外, 1675~1763)는 에도 시대의 세속화된 사원과 시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급자족하는 매다(賣茶) 생활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글로 기술하였다.⁶¹⁾ 바이사오는 『賣茶翁集成(매다옹집성)』, 『梅山種茶譜略(매산종다보략, 梅尾藏板本)』에서 차의 의미를 기술하였으며, 에도 시대 승려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그 후, 차는 점차 사방으로 퍼지고, 차를 마시는 자가 많아졌다. 그런 까닭에, 차사에서 불 때 일본에 에이사이, 묘에가 있는 것은 당나라에 육우, 노동이 있었던 것과 같다. 도덕으로 논해보면, 큰 법(불법)을 짚어지고 깨달음과 행동이 하나 되도록 하는 선의 가르침이 뛰어난 대중장이라 말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다. 불교의 지혜가 몸속에 가득차서 그 덕의 빛남이 밖으로 넘쳐 나와 풍아한 차사로 이르게 된 것이다. 근래 방탕한 승려들은 제멋대로 차사를 흉내 내며, 세상의 잡다한 일을 좇으니 옛 선인을 돌아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爾シヨリ漸ク四方ニ播シテ. 賞茶ノ者多シ. 故ニ茶事ニ於テ見ルトキハ. 吾邦ノ榮西明慧アルハ. 大唐ノ陸羽盧仝有ガ如シ. 若道德ヲ以テ論セバ. 大法ヲ荷擔シテ. 行解上應テ 禪教拔群ノ大宗匠ナリ. 譬ハ車ノ兩輪ノ如シ. 智水内ニ滿テ. 德澤外ニ溢ルルノ餘リ. 風雅茶事ニ及ブモノ歟. 今時遊蕩ノ僧. 漫ニ茶事ニ倣ヒ. 世塵ヲ逐ヲ以テ. 古人ヲ見ハ. 霄壤ノ隔ナリ)⁶²⁾

61)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 조울, 2010, p. 53.

62)主婦友社編輯部, 『賣茶翁集成』, 『梅山種茶譜略(梅尾藏板本)』, 主婦友社, 東京, 1975, pp. 204~214.

바이사오는 불교와 다도의 본질을 잃고 세속적이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승려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당시의 세속화된 사찰의 실상을 비판하였다.

한편 그는 『賣茶翁集成(매다옹집성)』의 「여모인(與某人)」이란 제목의 단문에서 다도의 역할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예도 시대 선종 사찰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였다.

“에이사이, 묘에 선사가 차를 마신 것은 참선할 때 잠을 깨우고, 기를 맑게 하려는 까닭이었다. 지금은 오로지 세상의 놀이도구가 되어, 출가자도 속세의 사람들처럼 즐기는 일에 이르렀으니 두 분 선사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중략……) 관원에게 주는 봉급을 탐하는 일, 차의 본뜻을 모르고 색 · 향 · 미에 빠지는 일과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되고 있어서 차를 비유하여 선종의 쇠락을 탄식하게 된다.”

(兩師茶賞 禪觀眠醒 氣故然唯 今世間物 出家世間 同遊事兩 師本意不知 (……中略……) 官祿事 茶本意色香味 茶禪宗衰歎息)⁶³⁾

또한 그는 승려가 차를 마시는 것은 참선수행에서 잠을 깨우고 기를 맑게 하려함인데, 그 목적을 잊고 차의 맛이나 멋진 색과 향, 그리고 미에 빠져 호사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세태를 통탄스러워하였다. 그는 『대객언지(對客言志)』에서 승려들의 보시와 걸식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하였다.

“지금의 승려들을 보면, 몸은 절에 있으나 마음은 속세의 잡다한 일로 치닫는 자가 열 중 여덟아홉이다. 또 출가자가 보시를 받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허울삼아 여러 계략으로 보시를 구하려한다. 보시를 하는 자에게는 아첨하고, 스승이나 부모보다도 정중하게 대한다. 따라서 보시하는 쪽도 얼마간의 보시를 하며 그 공을 자랑하고, 은혜를 입고 받는 자를 내심 경멸하고 있다. [이는 본래] 보시한 자, 받는 자, 시물이 모두 공하다는 삼륜공적의 본뜻을 모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今時の輩を見るに 身は伽藍空間に處して心は世俗紅塵に馳す者の十に八九な

63) 福山有聲軒 編著, 『賣茶翁-偈語外集』「與某人」, 京都名古屋, 1934, pp. 10~11.

り. 又出家は財施を受るに堪たりと 云ふの言を假て 千態萬計して信施を貪求す. 施す者有るときんば 媚び諂て師長父母よりも敬重す. これに依て 施者も少き財施を以て 其功に誇り重恩の恩ひを作て受者を輕蔑す. 施者受者共に本より三輪空寂の名字をも知らず)64)

바이사오는 승려가 보시와 결식의 의미를 잊고 있고, 또 시주하는 쪽도 이를 자랑삼아 행함으로써 대중 생활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결식과 보시의 폐해를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용진사를 떠나 교도에 온 57세부터 61세 사이의 4년여 기간 동안 몸소 차를 팔기 시작하면서 결식과 보시로 생활하였다. 그에게 매다는 결식과 보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자족의 실천이었고, 검소하고 소박한 차 정신, 즉 선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실천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불법이 있음을 전하는 선차의 의미로 매다 생활을 선택하여 몸소 매다를 통해 어느 곳이든 수행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에도 시대에도 바이사오는 다도문화의 개선과 검소한 차 정신의 회복, 그리고 조주선사의 평상심을 직시한 선차를 통해 대중적이고 소박한 차 정신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쇠퇴와 세속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불교는 에도 시대에 경제적 안정으로 세속화되어 갔다.⁶⁵⁾ 뿐만 아니라 에도 시대 초기에는 불교의 은둔적이며 해탈적인 교리가 유해무익(有害無益)하였으며, 신불습합으로 국세가 쇠미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 등은 폐불훼석(排佛毀釋) 사상까지 낳았다. 또한 에도 시대 중기에 국학의 발흥과 신도의 부흥운동은 폐불론을 확산시켰다. 이처럼 에도 시대의 막부 체제 아래에서 불교 탄압 정책이 지속되자 교학 불교가 크게 성행하였다.⁶⁶⁾ 일본 불교는 난학(蘭學, 네덜란드 학문)과 국학(國學) 연구에 힘입어 중세의 실천적인 모습을 점차 잃어갔으며, 학문 불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 종파는 경쟁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1000명 이상씩의 학생을 모아 강의를 하고 연구하게 되었으며, 불교를 민중에게 급속하게 전파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일본 불교의 특색인 단카

64) 福山有聲軒 編著, 『賣茶翁-偈語外集』「對客言志」, 京都名古屋, 1934, pp. 7~10.

65) 구태훈, 『일본문화사』, p. 318.

66)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337~338.

제도가 확립되면서 민중은 자연스럽게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다. 에도 시대 막부의 보호를 받으며 확립된 단카제도는 사찰이 장례의식을 전담하도록 제도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불교의 종교적 역할은 당시의 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일본의 근세 · 근현대 불교

에도 시대의 불교는 여러 개혁가들을 낳았지만 전체적으로 막부 체제하에서 어용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불교는 최고의 암흑기를 맞이하였다.⁶⁷⁾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불교는 토속 신앙인 신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신불습합(神佛習合) 사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는 70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막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천황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이를 위해 1866년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도를 우선시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1867년에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1867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자 메이지 정부는 학제 개편,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미(歐美) 근대 국가를 모델로 관주도(官主導)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새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근대 국가의 등장과 자본주의의 육성은 일본의 정신과 사상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불교는 배불론자들에 의해 폐불훼석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1868년 이후 메이지 정부는 신도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신억불 정책을 펼쳤으며, 일본 불교계는 난관을 겪게 되었고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의 사찰들은 폐쇄되었고 철거되었으며 매각되기도 하였다.⁶⁸⁾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의 국학자들은 신도에 의한 교육의 추진을 선포하고 신불(神佛)을 분리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서구 사회로부터 기독교를 비롯한 자

67) 스에키 후미히코, 이태승·권서용 역, 『근대 일본과 불교』, 그린비, 2009. p. 31.

68) 구태훈, 『일본근세·근현대사』, pp. 373~374.

유, 민주, 민권 사상 등 합리주의 정치사상이 유입되자 일본은 신도와 국학으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서구 사상의 유입에 일본의 신도는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했고 무기력했다. 일본은 서구 사상에 맞서 일본을 지켜내고 세계를 지배할 민족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사상이 필요했다. 그 결과 메이지 22년(1889) 대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되고 종교의 자유가 천명되면서 비로소 불교가 국가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락되었다.⁶⁹⁾ 일본인 최초의 독일 유학생으로 일본 근대철학의 개척자였던 철학자 이노우에 데쓰지로우(井上哲次郎, 1855~1944)가 교육칙어의 해설서 격인 『칙어연의(勅語衍義)』를 저술하자 일본에서는 교육과 종교의 충돌 논쟁이 촉발하였다. 이 논쟁에서 기독교는 국가 도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노우에가 내세운 근거는 기독교는 세간문의 도덕이 아닌 출세간의 도덕이며, 내세에 치중하고 있고, 무차별적 사랑을 설하며, 충효를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상당 부분 불교의 교리와 겹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불교계는 이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 측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기독교가 국가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근대 일본 불교계도 국가에 영합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일본 불교가 한편으로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에 동조하여 천황제를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긍정하며 대동아의 이상을 설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본은 일찍부터 서구 학문을 수용하여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교도 학문적인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었다.⁷⁰⁾

일련종은 니치렌(日蓮, 1222~1282)이 야마나시현 미노부산에 세웠던 구원사(久遠寺)를 본사로 삼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학문적 발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해왔으나,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니치렌의 한 종파인 일련정종은 현대에 들어와 신도 조직인 창가학회(創價學會)를 조직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28년 교육자였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1871~1944)는 니치렌의 불법을 접한 후 니치렌의 불법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여 인격가치의 창조를 깨닫고 창가학회를 창설하였다. 창가학회는 니치렌 사상의 근본인 색심불이(色心

69) 서영애, op. cit., p. 391.

70)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350~351.

不二)의 생명철학에서 출발하여 민중을 구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웅대한 문화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각 개인의 인생 가치를 창조하여 자신의 생명 근원 으로부터 독창성을 활발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초대 회장을 맡았다. 그는 창가학회를 교육개혁운동의 범위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혁명과 생활혁신, 그리고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종교단체로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이 학회의 회원수는 1937년 현재 이미 3천 세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군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神道) 중심으로 사상통일을 추진하면서 창가학회는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이후 조직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초대 회장을 맡았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감옥에서 병사하였고 조직의 수뇌부들이 투옥되자 창가학회는 그 활동 영역과 범주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1년 종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불교계는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련종의 한 종파였던 창가학회는 조직을 재건하였으며 발전 계획을 추진하였다. 특히 창가학회는 교육, 문화, 평화를 이념으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였다.⁷¹⁾ 이렇듯 일본의 일련종은 오늘날 창가학회로 거듭나 민중들 사이에서 교세를 확장⁷²⁾시키고 있으며, 지금은 정토진종과 함께 대중파를 형성하고 있다.

에도 시대 이후 종학(宗學) 불교의 발달을 바탕으로 각 종파가 세운 4년제 대학은 10여 개가 넘었고, 2년제 단기 대학도 상당히 많았다. 일본의 불교 종단에서 세운 대학으로는 릿쇼(立正), 고마자와(駒澤), 무사시노(武藏野), 류코쿠(龍谷), 소카(創價), 미노부산(身延山), 시텐노리(四天王寺), 다이쇼(大正), 도요(東洋), 붓교(佛敎), 하나조노(花園), 고야산(曹野山), 고꾸사이붓교(國際佛敎) 등이 있다.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는 보다 세련된 학문 불교로 전환하면서 서양 유학생들에 의해 세계 불교학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엄격한 종파 불교라는 점이다. 일본의 종파 불교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시작되어 무로마치 시대에 완전하게 확립되었다. 사이초의 천태종, 구카이(구카이)의 진언종, 법연의 정토종, 친란의 정토진종, 도겐의 선종, 니치렌의 일련종 등이 대표적이다.

71) 폴 발리, op. cit., pp. 532~534.;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4.05.23)

72) 창가학회는 2009년 회원 세대가 1,000만으로 집계되었다.

1945년 이전까지 일본 불교는 13종 56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13종은 법상종, 천태종, 임제종, 조동종, 황벽종, 일련종, 시종(時宗) 등이다. 그런데 종전(終戰) 이후에는 화종(和宗), 아함종(阿含宗) 등 신흥 종파가 더 생겨났다.

일본의 『종교총감(宗教總鑑)』에 의하면, 현재 일본의 불교 종파는 7개 계통의 108파에 이르고 있다. 천태계가 20파, 진언계가 43파, 정토계가 25파, 선종계가 23파, 일련의 법화계가 36파, 기타 33개의 종파 등이다. 이중 전국에 4천개 이상의 말사를 가지고 있는 종파는 천태종, 진언종, 일련종, 임제종, 정토진종 등 8개 종파로 알려져 있다.⁷³⁾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불교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점차 쇠퇴하다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그 교세가 완전히 꺾였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여 세속화되었다. 이처럼 일본 불교는 침체시기와 부패시기, 그리고 정권과의 협조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대중들의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뜻있는 불교신자들에 의해 새로운 혁신 운동이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종파들의 부흥운동이 추진되었고, 이후 현대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있다.

2. 일본 불교의 사상적 특징

일본의 불교는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불교가 갖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파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초기의 일본 불교는 궁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토착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세 이후 일본 불교에서는 불교교단의 종파적 성격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에는 천태종, 진언종, 일련종, 임제종, 정토진종 등 8개 종파가 등장하였다. 8개의 종파는 일본의 정치, 사상, 그리고 문화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 중 가마쿠라 이후부터 근세 이전까지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종파는 정토종, 시종, 일련종, 임제종, 그리고 조동종 등 5개 종파였다. 일본의 불교는 정치문화와 결부

73) 주간종교사, 『종교총감(宗教總鑑)』, 성화사, 1976판 참조.

되면서 일본 특유의 불교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불교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배경은 신불습합사상(神佛習合思想), 진언밀교 사상, 정토사상, 그리고 선사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사상적 배경들은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신불습합사상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기 전 일본인들은 원시 신앙인 토지신(자연 현상과 동식물바다 등)과 조상신(씨족의 수호신)을 가미(神)로 숭배하였다. 이는 신도(神道, しんとう)라 불렸다. 즉 신도는 일본 고유의 자연종교였으며, 독특한 토착신앙이었고, 자연에 대한 숭배를 종교로 발전시킨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animism)의 일종이었다. 신도는 초기에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신으로 삼았지만, 점차 선조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신도라는 용어는 『일본서기(日本書紀)』(720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는 종교 의식, 신(神, かみ), 신사(神社) 등을 의미했으나, 12세기 후반 이후 특정종교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신을 숭배하는 습관은 역사시대 이후 등장하였다.⁷⁴⁾

신불습합사상(神佛習合思想)은 나라 시대부터 형성되었다. 이 사상은 나라 시대 쇼무 천황이 동대사 대불 개안식을 수행할 때 처음 나타났다. 동대사 대불 개안식은 대대적인 불교행사였으며, 인도의 승려까지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이 의식에서 불교적 행위는 일본의 신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신탁에 의해 행해졌다. 애초에 비로자나불 불상 제작은 이세신궁에 모신 신도의 최고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あまてらすおみかみ)에게 고한 후 시작되었으며, 규슈 우사 지방에서는 신이자 군신(軍神)이었던 하치만(八幡)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규슈 사원 안에 신사를 건립하였다. 즉, 천황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최고 부처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본지불로 정해졌으며, 이세(伊勢)의 신은 비로자나불을 본지불로 삼았다. 이처럼 동대사 대불 개안식은 불교가 신도와 융합하여 함께 공존하는 신불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불습합은 10세기 헤이안 중기에 고대 일본의 종교와 습속을 지키려는 세력

74)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2011, p. 134.

과의 타협책으로 숭불론자들이 받아들인 사상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신과 불교의 부처를 직접 관련짓는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이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본지수적설이란 부처는 근본 실체(本地)이며, 신도의 신들은 부처의 화신(垂迹)이라는 설이었다. 일본의 본지수적설은 신도 세력이 강했던 일본의 풍토 속에서 불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본지수적설은 신불습합과 더불어 일본 불교의 사상적 특색을 반영한 이론이었으며, 이후 신불습합사상은 일본 불교의 가장 큰 특색들 중 하나로 계승되었다.⁷⁵⁾

신불습합이 하나의 체계적 종교가 된 것은 천태종과 진언종에 의해서였다. 천태종과 진언종은 종래의 도시 불교와 달리 깊은 산 속에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 고유의 산악신앙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슈겐도(修驗道)가 탄생하였다. 불교를 수용하기 이전 일본의 산악신앙은 신성시되고 있는 산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는 일반적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불교, 특히 밀교는 수행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신불습합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은 나라 시대에 두드러졌다. 또한 헤이안 이후에 사이초(最澄)와 구카이(空海)가 각각 비예산(比叡山), 고야산(高野山)을 수행의 거점으로 삼아 기도하면서 신불습합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겐도는 일본의 전통 산악신앙과 외래의 밀교, 도교, 유교 등이 융합된 형태로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전국에서 다수의 산들이 영산(靈山)으로 간주되어 수행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슈겐도는 특정교조의 교설에 의한 창창(創唱) 종교와는 달리 산악수행을 통한 초자연적 힘의 획득과 그 힘을 이용한 주술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슈겐도는 실천적 의례 중심의 종교였으나, 헤이안 시대 말에 체계적인 종교로 정립되었다. 중세의 슈겐도는 천태계(天台系)의 성호원(본산파)과 진언계의 흥복사(당산파)라는 2개의 파에 의한 조직화되었으며, 에도 시기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슈겐도는 메이지 시대에 일시 폐지되었지만 그 후 부활하였다.

슈겐도 등의 영향을 받은 신불습합사상은 근세에 들어와 일부 배불론적 입장을 취했던 일본학자들에 의해 복고(復古) 신도 사상으로 발전하였으나, 일반인들은 일상적 신앙 속에서 보편적인 신불습합을 원했기 때문에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신불습합사상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75) 정혜선, 『일본사』, 도서출판 가람, 2011, pp. 92~94.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메이지 정부의 종교정책이었다. 메이지 정권은 신사신도(神社神道)와 불교의 종파를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하였다.⁷⁶⁾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국가를 표방하자 정부는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신불(神佛) 분리령을 내려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려 하였다. 이런 메이지 정부의 정책은 배불(排佛)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신도가 통일된 종교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 메이지 정부가 천황주권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천황권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한 메이지 시대 이후였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조상신을 숭배한 신도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국교화 하였다.⁷⁷⁾ 이로써 신사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교육기관에서 신도의 교의가 교육되었다. 또한 신사신도는 국가의 제사를 맡게 되어 국가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신도는 폐지되었고, 지역의 신사가 중심이 된 신사신도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종교행사는 각 신사별로 이루어지고 있다.⁷⁸⁾ 오늘날 신불습합 현상은 대부분의 일반인 신앙생활에서 목격되고 있다. 또한 근대에 형성되었던 다수의 신종교에서도 교의나 의례 등에서 신불습합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2) 진언밀교사상

밀교(密敎)는 심오한 비밀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였으며, 가지기도(加持祈禱)를 수행하였고, 4종의 만다라(曼荼羅)를 중시하였다. 불교에서 만다라는 명상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밀교는 주문과 부적, 그리고 원시적 주술을 강조하였다. 밀교는 구카이(구카이)의 진언종과 함께 일본에 전래되었고, 비밀스러운 교의 전수를 강조함으로써 비의불교(秘儀佛敎)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헤이안 시대 진언종의 밀교 방식은 민간 신앙과 결합해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음양도(陰陽道, 오행의 원리로 자연계의 재난이나 인간계의 길흉을 설명하는 것)와도 결합하여 국가의 의례나 귀족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언종의 핵심은 우주적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대일여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신앙이었다. 일본인들은

7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410&cid=103&categoryId=103> (검색일: 2014.04.25)

77) 일본지역연구회,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2005, p. 234.

78) 정형, op. cit., p. 135.

대일여래를 신도 만신적의 최고 신격인 태양의 여신과 동일시했다. 대일여래와 합일하여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하나임을 깨닫기 위해서 탄원자는 언어, 몸, 마음의 세 가지 신비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 중 언어의 신비가 가장 중요시 되었는데, 신자는 진언(眞言)이라는 주문을 외워야 했다. 몸의 신비는 주로 무드라(手印, 상징적인 손 모양)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합장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진언종 교학의 특색은 사이초처럼 구불교와 전면적으로 대립하지 않았고, 타협과 동조의 방식으로 상대를 자기 쪽으로 동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점이다.⁸⁰⁾ 이후 남도 6종은 밀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불교의 대부분은 진언밀교(眞言密敎)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언밀교는 니치렌에 의해 변형되고 확산되어 나갔다. 니치렌은 처음에 진언밀교를 배웠고, 천태종의 법화사상(法華思想)을 배웠으며, 진리를 깨닫고 니치렌종으로 개종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요체는 『법화경』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타 종파를 악의적인 비방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것은 국가의 잘못된 종교관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언밀교의 구카이를 일본 최대의 거짓말쟁이이며, 구카이의 추종자를 국적(國賊)이라고 매도했다. 그리고 선종을 악마와 귀축(鬼畜)의 교의로 간주하였고, 율종에 대해서도 그 추종자들을 날강도라고 부르며 염불을 사악한 수행법이라고 간주했다. 니치렌은 궁극적인 종교적 진리는 오직 일련종이며,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법화경』에 담긴 진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석가모니를 본래의 영원불과 동일시하였으며,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불의 현현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현실에서 구현(具現)인 보살행(菩薩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인 구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전체적 구제인 입정안국(立正安國), 불국토건설(佛國土建設)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⁸¹⁾ 또한 그는 염불과 비슷한 '남묘호렌겅교(南無妙法蓮華經)'⁸²⁾를 외우기만 하면 불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⁸³⁾ 남묘호렌겅교는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인 색(色)과 정신적인 심(心)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79) 예를 들면, 옴마니파드메훴(보석은 연꽃 안에 있다) 등.

80) 폴 발리, op. cit., p. 95.

81) 임우기 외, 『소설 토지 용어. 인물사전』13권, 솔출판사, 1997, p. 313.

82) 『법화경』을 찬미하고 그 사상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83) 마츠오 겐지, op. cit., p. 111.

고 주장하면서 색심불이(色心不二)를 설파하였다. 니치렌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알게 되니 색법이 심법을 나타내느니라. 색심불이인 고로 이이(而二)로 나타나 사람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측면이 정신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동시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개체로 나타난다.”⁸⁴⁾라고 색심불이를 설명하였다.

니치렌의 일련종은 독송과 사경을 강조한 종래의 법화 신앙이나 심원한 이치를 가르치는 천태종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현실적이며 서민적이었다. 법화창제(法華唱題)는 니치렌 이전에도 일부에서 행해져 왔으나, 신심창제(信心唱題)의 한 구절을 선취해 다른 행위를 배제했다는 점은 법화종의 특성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암흑시대에 진리를 주장하다 시련을 겪게 될 상행보살(上行菩薩)로 자처했다. 그는 지나친 신조와 과격한 언행으로 다른 종파를 부정하는 도전적인 언동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빈번한 법난(法難)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막부로부터 1261년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이즈(伊豆)로, 1271년 니이가타현(新潟縣)의 사도(佐渡)로 유배되기도 했다. 니치렌은 타 종파를 배척하였으나, 실제 그의 가르침에는 타 종파의 영향과 구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⁸⁵⁾ 니치렌 사후 종단은 일련종과 일련정종(日蓮正宗) 등 여러 분파로 갈라졌다.

3) 정토사상과 아미타불 신앙

정토사상은 7세기 정토불교의 교의를 통해 소개되었다.⁸⁶⁾ 말법사상을 배경으로 생성된 정토사상은 가마쿠라 시대 호넨에 의해 하나의 독립된 정토종단으로 성립되었다. 정토사상은 사후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권장하는 구제의 가르침을 중심 교리로 설정했으며, 초월적 붓다인 아미타불 숭배에 기초를 두었다. 아미타불은 영겁 이전에 누구든 전적으로 자기를 믿기만 하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약이었다. 단지 염불을 외우기만 하면 누구든 사후에 지복의 유포피아인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84)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p. 469.

85)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 211.

86) Ibid., p. 124.

일본의 정토사상은 9세기 전반 당나라에서 귀국한 엔닌(圓仁)이 염불삼매의 법을 히에산에 옮기고, 산의 염불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는 상행삼매당이라 불렸다. 상행삼매(常行三昧)는 90일 동안을 한정하여 행도(行道)하면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고 마음에 아미타불을忆념(憶念)함으로써 견불을 기대하는 행법이였다. 엔닌의 상행삼매당은 염불삼매에 곡조를 붙여 극락정도의 수조(水鳥)와 수림(樹林)의 염불 소리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도량 내부 중앙에 황금색 아미타불이 본존으로 안치되어 있고 사방의 벽면에는 극락정도의 광경이 그려져 있었다.⁸⁷⁾ 이처럼 엔닌은 미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적 환상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정토사상을 포교하였다.

아미타불 신앙은 불교적 가르침인 법(法)의 마지막 시대를 뜻하는 말법(末法)사상⁸⁸⁾을 배경으로 생성되었으며, 헤이안 후기 궁정조신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소승불교나 진언종, 그리고 천태종과 같은 밀교적 종파나 일부 대승불교 신자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말법시대가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아미타불의 은총으로 구제를 통해서만 정토왕생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정토사상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과 구제관을 통해 1052년 이후 일본의 모든 계층에 널리 전파되었다.⁸⁹⁾

정토사상의 전파 현상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작품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이었던 히카루 겐지(光源氏)는 그의 부인 아오이노 우에(葵の上)를 잃고 집 안으로 염불승들을 초청하였다. 염불승들의 염불 소리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새벽녘까지 이어졌다. 이 장면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와 부인을 잃고 슬픔에 빠진 히카루 겐지의 슬픈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⁹⁰⁾ 이처럼 정토불교는 헤이안 시대 귀족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세속과 교류를 통해 대중화되어 갔다. 1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토사상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를 이끈 승려들은 구야(空也, 903~972), 겐신(源信, 942~1017), 료닌(良忍, 1072~1132)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정토사상 발전에 획기적인

87)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135~136.

88) 말법사상은 고타마 붓다(Buddha)가 적멸한 기원전 5세기경 이후에 불교가 겪게 될 시대적 변천으로 불법이 융성하는 정법(正法)시대와 불법이 쇠퇴하는 상법(像法)시대, 그리고 불법이 사라져 타락한 말법(末法)시대를 말한다.

89) 폴 발리, op. cit., pp. 124~125.

90) 히나타 가즈마사, 남이숙 옮김, 『겐지모노가타리의 세계』, 昭和, pp. 86~89.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에 부처의 자비가 법체로 형상화되었으며, 새로운 아미타불로 명명되었다. 영겁의 빛을 의미하는 아미타불은 자비의 빛이었는데, 고뇌에 찬 인간들은 정토 속의 아미타불을 사모하였고 그 이름을 계속 읊조렸다. 또한 이들은 서방정토도 동경하였다. 겐신은 염불수행법을 적극 권장하면서 정토의 아름다움을 『오조요슈(往生要集)』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신도가 정토에 왕생하여 연꽃이 최초로 피어나는 기쁨을 체험할 때, 그의 환희는 예전의 백배도 넘겨 될 것이다. 그것은 소경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환희 혹은 시골구석을 처음 떠나 처음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기쁨에 비유될 만하다. 자신의 몸을 보니 자줏빛이 도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물론 그의 옷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반지와 팔찌와 보석 관 및 온갖 장식품으로 그의 몸을 휘어 감고 있다. 붓다로부터 퍼져 나오는 빛을 올려 보았을 때 그는 혜안을 얻게 되며, 전생에서의 온갖 경험을 통해 그의 모든 존재의 소리들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 무슨 색깔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는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올려다보는 하늘 위쪽이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어 그의 눈은 구름이 지나간 흔적 속에 묻혀버린다. 경이로운 불법의 바퀴소리가 이 보석의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진다. 곳곳의 궁성과 회당, 숲과 연못들이 빛으로 반짝거린다. 오리와 거위와 원앙새 떼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마치 갑작스러운 소낙비처럼 이 정토에 왕생한 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⁹¹⁾

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겐신이 그린 극락정토의 모습은 일본 정원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우지(宇治)의 보도인(平等院), 오하라(大原)의 산젠인(三千院) 등은 아미타불을 모시고 서방정토를 꿈꾸었던 당시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겐신의 정토사상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염불은 미적이고 관상적인 극락정토에 자기를 투입하는 것을 지향하였고 승려가 미묘한 음률로 염불을 외었다.

둘째, 그의 관심은 왕생과 삼매의 사이에 있었다. 삼매에 들어가 눈앞에서 아미타불의 존용을 우러러보고 극락정토의 광경을 관찰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다.

셋째, 그의 정토종의 주된 대상은 승려였고, 그 다음이 귀족이었다. 이는 세상

91) 폴 발리, op. cit., pp. 125~126에서 재인용.

사를 뒤로하고 은둔할 수 있는 출가자나 귀족들에게 가능한 일이었다.⁹²⁾

정토사상은 민중불교로서 호국불교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구제하는 불교였으며, 가장 일본적인 불교였다. 특히 정토사상은 지혜보다 자비라는 측면에서 일본 불교를 더욱 대중화 하였다. 정토사상은 이지(理智)보다 정서가 더 풍부했던 일본 국민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헤이안 후기로 접어들면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정치적·사회적 혼란 상황이 빈번해지자 일본인들은 더욱 더 말법사상으로 빠져들었다. 의지가 약한 말법 시대의 대중들은 계율, 관행, 예불 등의 전통적인 수행법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명호만 외우면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대중적 수행법은 당시의 수행자나 민중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으며, 일본 불교에서 일대 혁명으로 간주되었다.⁹³⁾

정토사상에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염불 한 가지만으로도 가능하였다. 이는 정토왕생의 업인 전수염불(專修念佛)이었다. 이를 가장 확실한 수행법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호넨이었다. 그는 일본 정토사상의 교리를 최초로 정립한 책인 『선택본원염불집(選擇本願念佛集)』을 저술하였다. 이로써 그는 염불의 한 길을 새로운 종파로 정립하였다. 이는 일찍이 중국에서도 의도되지 않았던 의외의 현상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종파의 개척은 무엇보다도 일본 불교를 민중생활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후 호넨의 가르침은 신란(親鸞, 1173~1263)에 의해 더욱 발전하여 정토진종(淨土眞宗)이라는 새로운 종파로 성립되었다. 신란은 그의 스승 호넨을 계승하였지만, 아미타불을 외우는 행(行)보다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믿음(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악인(惡人)도 미타(彌陀) 본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극락정토의 왕생이 확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염불을 외우는 것은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확정된 것을 감사하는 불은보사(佛恩報謝)의 염불이 되었다. 신란의 가르침은 정토진종의 여러 파에 의해 계승되었다.⁹⁴⁾ 정토사상은 13세기 후반 잇펜(日遍, 1239~1289)에 의해 정토종의 한 분파인 시종(時宗)의 창시로 이어졌다. 그는 호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구애 받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중들에게 아미타불을 노래하는 유행염불(遊

92)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143~144.

93) 구태훈, 『일본문화사』, pp. 202~205.

94) Ibid., p. 206.

行念佛)을 실천하였다. 구마노(熊野)에서는 중생의 왕생은 믿음에 관계없이 염불에 의해 결정된다는 깨달음을 얻어 "나무아미타불 결정왕생 육십 만인(南無阿彌陀佛決定往生六十萬人)"이라는 종이 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신도들의 이름도 기록하였다. 그는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도록 하였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마다 아미타불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며, 부처도 없고 나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왕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잇펜의 염불 사상과 선의 정신이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신주(信州)의 도모노(伴野)에서는 시종의 상징이 되는 가락을 붙인 염불이 암송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아미타불 신앙으로 개종시키면서 민중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⁹⁵⁾

잇펜은 일상의 일념이 임종하는 순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개종한 시종의 시(時)란 평생이 임종이며 임종이 평생이라는 의미인데, 그는 지금의 일각일각(一刻一刻)이 죽음이며 또한 살아 있음이라고 말했다. 잇펜은 불교의 영역을 넘어 신사(神社) 신앙과도 결합하였는데, 이는 서민들이 믿고 있는 기존의 여러 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다른 여러 신들도 아미타불을 찬양하며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사, 농민, 도시 상공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신도들을 거느렸다. 시종은 무로마치 시대에는 대교단으로 발전하면서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후 그의 언행을 기록한 「잇펜쇼닌 에덴(日遍上人繪傳)」이라는 에마키(繪卷)⁹⁶⁾가 남겨졌다.⁹⁷⁾

4) 선사상

가마쿠라 신불교인 임제종(선종)을 처음 일본에 전한 사람은 에이사이(榮西)였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선종을 전파하였다. 일본인들은 아미타불 신앙처럼 오래 전부터 선불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선(禪, jhāna)은 원래 사유나 명상을 의미하

95) 폴 발리, op. cit., pp. 168~170.

96) 일본 전국을 순회한 잇펜의 편력을 묘사한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그린 예술 작품이다. 13세기 일본 사회사를 엿볼 수 있었으며, 예술적으로 배경에 묘사된 풍경은 순수하게 일본적이었다. 그러나 양식은 중국 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마쿠라 시대의 일상적인 사회적 모습과 무아경에 빠져 오도리넴부쓰(踊念佛: 춤추며 염불을 염송하는 일본식 정토종)를 하며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잇펜의 모습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97)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p. 207~209.

였다. 곁가부좌 제서의 명상은 가장 근본적인 불교수행법들 중 하나였다. 고타마 붓다(Gotama Buddha)도 깊은 명상상태에서 해탈을 성취하였다.⁹⁸⁾ 선불교에서 해탈, 즉 깨달음(覺)이란 욕망과 집착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자각한 상태를 의미하였다. 선종은 중국 도교의 반주지적(反主知的), 반경전적 편향과 함께 도가들이 강조하는 개성과 자연의 친화를 가미하였다. 선(禪)에서는 학문적 연구보다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달되는 진리, 엄숙한 명상방법, 엄격한 자기 수련방법의 전수, 스승의 권위의 개별적 독립, 자오(自悟), 그리고 자기 수련을 통한 전통적인 불교적 해탈의 의미 터득 등을 강조하였다. 정토종이나 일련종은 구제 중심의 종파들로 아미타불이나 법화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통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종은 개개인의 수련과 노력을 통해 자기 안의 불성(佛性, buddhata)을 자각하는 깨달음이야말로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가르쳤다.⁹⁹⁾ 즉 선불교의 깨달음이란 일체 번뇌를 떨쳐버림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선불교는 사람을 가장 현혹시키는 것이 언어이기에 비언어적 가르침인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였다. 또한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호소하고 소통하는 직관을 강조하였다.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는 순간적인 통찰력과 지각으로 체험되는 것으로 돈오(頓悟)의 입장이었다.

임제종의 선은 좌선을 하면서 스승에게 받은 공안(公案)을 참구(參究)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에이사이는 자신을 비방하는 천태종의 승려들에게 “불법의 내적인 생명은 선이며 계율이다. 그리고 이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국가이다. 즉 왕법과 불법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인 것이다. 왕법이 불법을 보호하고, 나라에 계율을 지키는 자들이 많으면, 불보살이 국왕을 수호하는 것이다.”¹⁰⁰⁾라고 설파하였다.

가마쿠라 2대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이에(源賴家) 시기로 접어들면서, 처가인 호조씨 섭정(1219~1324)이 시작되었다. 호조씨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선종은 더욱 번성하였다. 특히 호조씨는 13세기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의 선승들

98) 최현각, 『선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3, pp. 15~37.

99) 폴 발리, op. cit., p. 176.

100) 구태훈, op. cit., p. 212.

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오자 이들을 포섭하였다. 중국의 선승들은 가마쿠라에서 선종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선종은 일본에서 널리 전파되었다.

귀족 문화에 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무사들은 선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막부의 후원을 얻게 된 에이사이는 권력과 유착해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선종(禪宗)은 계율에 엄격한 수양의 교법으로서 가마쿠라 시대 무사계급과 연계되어 발전하였다. 자기규율과 절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선불교는 중세 무사계급의 신념과 맞아 떨어졌다. 또한 선불교는 반주지적 입장에서 단순성 및 소통의 직접성을 주창하여 섬세한 심성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지면서 왕실과 공가(公家)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선종은 상류층, 왕실, 귀족, 무사계급의 생활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과 문화, 그리고 미학의 발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¹⁰¹⁾ 당시 중국 송대의 선승들은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과 회화 등을 비롯한 여러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교토와 가마쿠라에 설립된 선종 사원들은 중국의 선종관련 서적과 예술품들이 일본으로 들여오는 통로였으며, 중국의 선진문화를 소개하는 장이었다. 막부의 지도자들은 선종의 승려들 중에서 서기와 조연자들을 뽑았으며, 그들이 세속생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원할 때 자신들의 선종 사원을 칩거 장소로 제공하였다. 사실상 무사들은 선종으로부터 정신적·심리적 힘을 얻었던 것이다. 선종은 무사들이 인격과 강한 의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근원이었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내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¹⁰²⁾

에이사이의 제자들 중 하나로 중국에 함께 건너가서 공부했던 도겐(道元)은 1227년 일본에 귀국하면서 선종의 다른 일파인 조동종(曹洞宗)을 도입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좌선(坐禪)을 강조하였다. 조동종은 커다란 대중적 호응을 얻었으며, 오늘날 일본 선종의 주요 일파로 번창하였다.

도겐은 천태종의 교리를 배웠고, 에이사이의 제자 묘젠(明全, 1184~1225)에게서 선을 배웠다. 1223년 중국으로 건너간 도겐은 중국 각지의 선원을 돌아다니며 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송 말기 조동종의 선승으로 전통적인 선수행의

101) 폴 발리, op. cit., pp. 174~177.

102) 존 K. 페어뱅크 외, 김한규 외 옮김,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2008, pp. 463~464.

가치를 강조하며 복고적인 혁신을 수행했던 장옹여정(長翁女淨, 1163~1228) 선사로부터¹⁰³⁾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스승의 열반묘심(涅槃妙心)을 계승하였고, 오로지 좌선에 몰두하는 수행에만 정진하였다. 그는 중생구제는 단순한 문자나 지식만이 아니라 엄격한 인격완성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선의 진리는 철저한 자력본원(自力本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인식하면서 철저히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며, 현실 생활자체가 곧 수도의 장이라는 것을 체득하였다. 그는 도젠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 도시에 거주하지 말며, 권력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심산유곡에 살면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 선의 전통을 이어 갈 것을 당부했다. 도젠은 귀국 후 여정의 가르침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여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준엄하게 비판하였다. 도젠이 일본에 조동종을 전하면서 순수한 선종이 일본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젠은 묵조선(默照禪)을 수양하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제창하였다. 그는 “마음 심(心)이란 일체의 법이요, 일체법이란 다만 일심(一心)인 것이다.”, 또한 “산하대지(山河大地)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은 모두 마음이다.”¹⁰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면 그의 사상은 임제선(臨濟禪)의 철학사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젠의 조동종에도 주관적인 관념론의 철학사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동종의 선(조동선)은 스승이 낸 공안(公案)을 푸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수행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도젠은 후시미(伏見)의 후카쿠사(深草)에 관음도리원(觀音導利院)을 세우고 엄격한 좌선을 수행했다. 그는 1233년 『후젠자젠기(普勸坐禪儀)』를 저술하였고,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좌선만이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도젠은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염불이나 기도를 부정하였으며, 오직 정통 선 수행법 운동만을 따랐다.¹⁰⁵⁾

이처럼 임제종은 일본에 전파되자 조정과 막부의 장군들로부터 열렬히 지지를 받아 흥성했던 반면, 조동종은 대부분의 신도들이 하층 농민 계층으로 한정되었다. 이런 연유로 임제의 장군, 조동의 농민이란 말이 생겨났다. 일본의 선승들은

103) 조동선(曹洞禪)의 정종(正宗)을 잇는 드문 선지식이라 하여 ‘2백년 만에 나타난 선사’로 추앙을 받았다.

104) 구태훈, op. cit., pp. 213~215.

105) Ibid., pp. 214~215.

중국의 송나라를 자주 왕래하며 송나라의 선진문화를 다량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일본 불교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오산문학(五山文學)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문화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¹⁰⁶⁾

3. 일본 불교의 문화적 특징

1) 중국으로부터 선불교와 선문화의 유입

일본에 선불교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9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847년 사가천황의 황후였던 타치바나노 카치코(橘嘉智子, 786~850)의 초청으로 당나라의 선승 의공(義空)이 일본으로 건너와 선(禪)불교를 강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들은 선불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의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당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송나라의 선종을 일본에 소개한 사람들은 헤이안 시대 말기에 송나라를 방문한 불교 순례자들이었다. 이들은 송나라에서 선종이 성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 중 천태종을 창시한 사이초도 중국에서 선을 공부하였다. 이후 선불교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래된 것은 13세기 이후 에이사이와 도겐에 의해서였다.

2) 가마쿠라 시대의 선문화와 차문화의 대중화

(1) 가마쿠라 시대 선사상의 흐름

일본 임제종과 조동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 선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시대는 가마쿠라 시대였다. 이 시대에 에이사이와 도겐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처음 선사상을 도입한 이래 선문화의 유입은 계속되었다. 선사상과 문화는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중국 출신 선승들을 통해 유입된 경우와 명나라와의 감함(勘合)무역을 통해 유입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¹⁰⁷⁾ 전자는 막부의 최고 권력자

106)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pp. 397~398.

107) Ibid., p. 341.

나 입송구법승(入宋求法僧)의 초청에 의해 중국의 선승들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와 선문화를 보급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난계도룡(蘭溪道隆, 1213~1278), 올암보녕(兀菴普寧, 1197~1276), 동명혜일(東明慧日, 1272~1340) 등이 포함되었다.

난계도룡은 1246년 제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최고 실력자였던 호조 토키요리(北條時賴, 1227~1263)의 후원을 받아 선종 사찰인 겐초지(建長寺)를 설립하였고, 호조 가문을 비롯한 가마쿠라 무사들에게 남송의 순수선(純粹禪; 兼修禪의 상대어)을 보급시켰다.¹⁰⁸⁾

올암보녕은 1260년 토후쿠지(東福寺)를 개산한 엔니(圓爾, 1202~1280)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선승이었다. 그도 호조 토키요리의 요청으로 난계도룡에 이어 제2대 겐초지 주지가 되었다.¹⁰⁹⁾

동명혜일은 1309년 가마쿠라 막부 제9대 집권자였던 호조 사다도키(北條貞時, 1272~1311)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와 조동종 굉지파(宏智派)를 전파하였으며, 엔카쿠지(圓覺寺)와 겐초지의 주지를 역임하였다.¹¹⁰⁾ 이러한 일본의 선사상은 에이사이 선사와 도겐에 의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2) 에이사이의 선사상과 차문화

에이사이(榮西)는 1141년 4월 20일 현재의 오카야마현(岡山縣) 카가군(加賀郡) 키비(吉備)에서 태어났다. 에이사이의 아버지는 키비츠(吉備津) 신사(神社)의 신직(神職, 신사에서 제사나 사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던 가야(賀陽)였다.¹¹¹⁾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소양을 갖추었고, 아버지의 지도로 8세 때 이미 『구사론(俱舍論)』, 『바사론(婆沙論)』 등을 읽기도 하였다. 그리고 11세 때 고향 인근의 안요지(安養寺)의 조신(靜心)에게서 사사하였고, 13세(1153년)에 히에이잔 엔라쿠지에서 수학하다가 이듬해 수계 득도하였다. 이후 에이사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안요지, 다이센지(大山寺, 현재 돗토리현 소재) 등에서 천태교학과 밀교 등을 공부하다가 『법화경』을 읽고 유학을 결심

108) 笠原一男, 川崎庸之, op. cit., p. 251.

109) Ibid., p. 249.

110) Ibid., p. 289.

111) 마츠오 겐지, op. cit., p. 101.

하였다. 당시 히에이잔 엔라쿠지의 천태교단이 귀족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세속화가 극에 다다르자 에이사이는 교단의 현실을 일신하고 참된 불법의 흥륭을 발원하기 위해 1168년 28세의 나이로 송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송나라(남송)에서 에이사이는 조겐(重源)을 만났다. 그는 정토관련 서적과 불사리를 구하고자 입송하였던 조겐과 함께 천태산(天台山)과 육왕산(育王山; 天台山) 등을 순례하며 수학하였다. 그는 남송에서 수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육왕산을 순례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로 몹시 피곤함을 느꼈다. 그 때 그는 찻집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이후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심신의 원기가 회복되는 상쾌함을 느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에이사이는 귀국 후 선법을 펼칠 때 무사들을 위해 『꺽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저술하였다. 조겐과 함께 에이사이는 천태관련 전적의 수집과 당시 남송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선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겐은 에이사이의 귀국 재촉으로 9개월 반 만에 귀국하였다. 이때 천태관련 소(疏) 30여 부와 60여 권을 가져와서 천태종의 좌주인 명운(明雲)에게 전했다.¹¹²⁾ 에이사이는 약 6개월간의 짧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히에이잔의 전통 속에는 이미 선맥(禪脈)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³⁾ 그는 귀국 후 선을 통해 세속화되고 타락한 일본 불교의 정신을 바로 세울 것을 결심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입송(入宋)하려 했으나 막부의 도송(渡宋) 금지령 등의 영향으로 곧바로 송나라로 가지 못하고 약 10여 년간 후쿠오카현(福岡縣)의 세간지(誓願寺) 등에서 머물며 밀교와 선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특히 그는 천태 밀교를 집대성한 안넨(安然, 841~915)에 주목하였으며, 그에 관한 1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1185년 단노우라노 다타카이(壇ノ浦の戦い)로 헤이시(平氏)가 멸망하자, 마침내 그에게 송나라 유학의 길이 열렸으며, 1187년 4월 47세의 나이로 다시 송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입송 후 에이사이는 송나라를 통해 인도로의 구법을 결심하였고, 송나라 조정에 허락을 구했다. 하지만 몽골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북방의 서역로가 끊기자 그는 바닷길을 이용해 인도로 가려하였다. 하지만 그는 풍랑을 만나 남방의 온주로 돌아왔으며, 결국 인도 기행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에이사이는 천태산으로 올라가 만년사(萬年寺) 주지 허암회창(虛庵懷敞)

112) 동국대학교, 『선과 자아』,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 106.

113) 구태훈, 『일본 문화사』, pp. 211~212.

선사를 친견하였다. 허암회창은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법을 계승한 황룡혜남(黃龍慧南, 1002~1069)의 8세 사법제자였다.¹¹⁴⁾ 에이사이는 허암회창의 문하에서 임제종 황룡파(臨濟宗 黃龍派)의 선을 5년간 수행 정진하였고, 1191년 허암회창으로부터 법의와 사법(嗣法)의 인가(印可)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 그는 차 종자를 가져와 일본에 차 재배법과 다도를 전파하였다. 귀국 후 에이사이는 2차 입송 전에 10여 년간 머물렀던 큐슈의 각 지역을 돌며 선사(禪寺)의 건립, 선규(禪規)의 전파, 경론의 서사 등 선수행의 전파에 전념하였다. 그는 이 무렵 송으로부터 들여온 차 종자를 세후리야마(脊振山, 현재의 사가현 북동부에 위치)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이곳은 일본차의 재배와 보급의 발상지가 되었으며, 차문화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에이사이는 1194년 수도 교토에서 선 수행을 보급하기 시작했지만, 히에이잔(比叡山) 천태교단의 방해로 그의 포교 활동은 금지되었다. 이듬해 큐슈 하카타(博多)로 돌아온 그는 쇼후쿠지(聖福寺)를 건립하는 등 포교와 불사활동에 나섰다. 이곳에서도 하코자키(筥崎, 현재의 후쿠오카시)의 료벤(良弁)과 같은 인물이 포교금지를 조정에 탄원하는 등 기존 지방 세력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이런 구 불교세력(천태교단)의 견제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1198년 58세 때 『흥선호국론(興禪護國論)』을 저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법과 국법이 하나임을 주창하였다.¹¹⁵⁾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禪)이야말로 사이초(最澄, 히에이잔 천태종의 개조)가 전래한 선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구 불교세력의 중심지였던 교토에서의 포교를 단념하고 새로운 권력인 막부의 근거지 가마쿠라(鎌倉)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송나라 유학을 통해 얻은 에이사이의 폭넓은 식견은 비록 구 불교세력의 공격과 견제를 받았지만, 막부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교토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202년 가마쿠라 막부의 초대 쇼군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 1147~1199)의 정비였던 호조 마사코(北條政子, 1157~1225)¹¹⁶⁾의 귀의와 후원으로 주후쿠지(壽福寺)를 건립하고 주지가 되었다. 막부의 전폭적인 후원을 얻게 된 에이사이는 다

114) 동국대학교, op. cit., p. 106.

115) 마츠오 겐지, op. cit., pp. 102~103.

116) 무가정치의 창시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아내로 남편이 죽은 뒤 실권을 쥐고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시 교토로 입성하여 히가시야마(東山)에 겐인지(建仁寺)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구불교세력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겐인지를 진언[밀교], 지관[천태], 선[임제] 삼교의 도량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당시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던 가마쿠라와 교토에 대사원을 건립함으로써 에이사이가 송에서부터 들여온 임제종은 새로운 거대 종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에이사이는 1206년 입적할 때까지 교단의 관리와 사회활동, 그리고 저술활동 등에 전념하였는데, 특히 겐페이(源平)의 전란 속에 황폐화되었던 도다이지(東大寺) 등 남도(南都) 불교의 부흥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에이사이의 사상은 태밀(台密)에 대한 굳은 믿음과 지계(持戒)를 근본으로 두는 선(禪)의 고양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태밀은 원래 일본 천태종의 개조사이초(最澄)의 밀교로서 구카이의 밀교인 동밀(東密)의 상대 개념이었으며, 그 특징은 염불, 밀교, 계율, 그리고 선을 겸수하는 이른바 사종겸학에 있었다. 에이사이는 일생동안 일관되게 태밀의 입장을 취했으며, 나아가 구카이의 동밀 사상까지를 수용하여 요조류(葉上流)라는 태밀의 한 유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에이사이 선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계(持戒)를 선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입장에서 계율을 중시하지 않았던 정토진종의 신란(親鸞)의 입장과는 달리 에이사이는 지계를 지나친 세속화로 인해 근본정신을 잃어가던 당시 불교계를 일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였다.¹¹⁷⁾

에이사이의 저술 중에서 『출가대망(出家大綱)』, 『제계권진문(齊戒勸進文)』, 『원돈삼취일심계(圓頓三聚一心戒)』 등은 계율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그밖에 밀교에 관한 문답형식의 입문서로 『무명집(無明集)』,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 등 2권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 두 권의 서적은 일본 최고의 다도 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3) 가마쿠라 시대의 선사상과 문학과 예술

가마쿠라 시대 문학 분야에서 선사상과 관련된 장르는 와카(和歌)였다. 와카는 1205년 고토바 상황의 명을 받아 후지와라 이에타카(藤原家隆), 주쿠렌(寂蓮),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 등이 『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¹¹⁸⁾를 편찬하면서

117) 마츠오 겐지, op. cit., pp. 103~105.

118) 『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의 노래 수는 1978수(단가만 수록)였으며, 내용은 봄·

시작되었다. 또한 무사 출신이며 승려였던 사이교 법사(西行法師, 1118~1190)는 각 지방을 여행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신의 작품들을 『산카슈(山家集)』에 실었다. 그러나 와카는 가마쿠라 시대 중기부터 점차 쇠퇴하여 무로마치 시대에는 렌가(蓮歌)로 발전하였다. 한편 은자문학(隱者文學)의 대표 작품인 가모노 조메이(鴨長明, 1152~1216)의 『호조키(方丈記)』는 1212년에 완성한 수필 작품이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은 비참한 천재지변과 인간사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히노야마에 방장(方丈: 가로 세로가 1장 곧 3m)의 암자를 세워 은둔하게 된 과정과 한가롭게 생활하는 모습 등을 기술하였다.¹¹⁹⁾ 이 작품은 인생의 무상함과 세상사의 덧없음을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는 점과 작자의 인생관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작자의 사상은 『호조키』의 첫 부분에 잘 농축되어 있었다.

“강물은 멈추는 일 없이 항상 흐르고 있다. 그래서 물은 원래 물이 아니다. 물이 고인 곳에 떠 있는 물거품도 저쪽에서 사라졌는가 하면 이쪽에서 다시 생겨서, 절대로 이전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 집을 봐도 역시 이와 같다. 화려한 도읍지 거리에 늘어서 있는 귀천의 집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듯이 보이지만, 정말 그런가 하고 한 채 한 채 잘 보면 옛날부터 있는 집은 드물다. 작년에 불에 타서 올해 다시 지은 것도 있고, 큰 집이 몰락해서 작아진 것도 있다.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ゆく河の流れは絶えずして、しかももとの水にあらず。よどみに浮ぶうたかたは、かつ消え、かつ結びて、久しくとどまりたるためしなし。世の中にある人と栖と、またかくのごとし。たましきの都のうちに棟を並べ、薨を争へる高き賤しき人の住ひは、世々を経て盡きせぬものなれど、これをまことかと尋ぬ

여름·가을·겨울·하(賀)·애상·이별·기여(羈旅)·사랑·잡(雜)·신기(神祇)·석교(釋教) 등을 포함하였고, 주요 작가의 수는 고토바 상황을 포함해 사이교, 지엔(慈圓), 후지와라 요시쓰네(藤原良經), 후지와라 토시나리(藤原俊成), 시키시 내친왕(式子内親王), 후지와라 사다이에(藤原定家), 후지와라 이에타카(藤原家隆), 주쿠렌(寂蓮), 기노쓰라 유키(紀貫之), 와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후지와라 아사쓰네 등 총 394명에 달했다. 이 책의 시가들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서 깊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일본 시가의 새로운 경지를 창조하였다.

119) 이일숙, 『시대별 일본문학사』, 제이앤씨, 2002, p. 97.

れば、昔ありし家は稀なり。或は去年焼けて、今年作り。或は大家ほろびて
小家となる。住む人もこれに同じ。)120)

『호조키』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부에는 역사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동란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큰 화재, 기근,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야기된 무상감 등이 염세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후반부에는 자신의 불우함을 토로하면서도 히노야마에서 혼자 살았던 즐거움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는 한적하며 선적인 생활을 풍요롭게 생각하고 즐겼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한적한 생활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극락왕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면세계의 이중성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작품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고승과는 달리 세속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자기모순에 괴로워하는 작자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난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330년경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 나왔던 겐코(兼好, 1283~1352) 법사의 『쓰레즈레쿠사(徒然草)』는 자연생활과 불교의 선사상을 통해 일본 중세 시대의 속세 속에서 겪었던 갖은 혼란과 인생무상을 예리하게 묘사하였으며, 정도(政道), 연애도(戀愛道), 불도(仏道)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소감을 사색적이고 이상적으로 서술하였다. 겐코 법사는 불교, 유교, 노장 사상에 통달하였고, 유직고실(有職故實)121)에도 정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마, 바둑, 쌍륙(双六)122) 같은 오락에도 조예가 깊어 다방면에 걸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박식함과 불교적 무상관을 기반으로 『쓰레즈레쿠사』라는 작품을 완성하였다.123) 작품 제목인 “쓰레즈레(徒然)”는 서단에서 유래하였다.

“할 일 없이 심심한 때에, 하루 종일 버루를 마주보고 앉아, 마음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시시한 것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써 내려가고 있자니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스럽고 광적인 기운이 일어난다.”

120) 가모노 쇼메이, 옮긴이 조기호, 『호조키』, (주)제이앤씨, 2004, p. 25.

121) 조정이나 공가의 예식·관직·법령·행사 등에 관한 것이었다.

122)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였다.

123) 이일숙, op. cit., pp. 98~100.; 윤혜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일본문학』, 궁미디어, 2013, pp. 48~50.

(つれづれなるままに、日くらし硯にむかひて、心にうつりゆくよしなし事を、そこはかとなく書きつくれば、あやしうこそものぐるほしけれ。)124)

쓰레즈레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료함과 할 일이 없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 의해 생겨난다. 인간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텅 빈 상태로 돌아가며,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상념이었다.125)

가마쿠라 시대에는 선불교가 건축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마쿠라 시대 중기에 가라요(唐樣) 또는 쨌슈요(宋樣)라는 건축 양식이 중국의 송나라로부터 전해졌다. 이 양식은 사원 건축에 도입되었다. 원래 선종은 우상을 중요시 하지 않았고 건물 장식도 소박했다. 이런 선종의 정신이 건축 양식에 도입되었다.

회화분야에서는 주로 야마토에(大和繪)에 선사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토신앙의 영향을 받아 경전의 내용을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었다. 다쿠마 쇼가(宅磨勝賀)와 신카이(信海) 등이 활약하였으며, 선종이 발전하면서 초상화인 니세에(似繪)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주로 고승들의 초상화로 스승의 초상을 제자에게 전하는 습속은 중국 북송 때부터 성행하여 선종의 전래와 함께 일본에서도 유행하였다. 초상화의 사실적 묘사 양식은 일본 미술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니세에의 대표적인 작품은 후지와라오 다카노부(藤原陵信)의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초상으로 그의 개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에마끼노모(繪卷物)도 많이 그려졌는데, 사원의 역사, 고승의 전기, 불교설화, 전쟁 등 다양한 주제들이 그려졌다.

공예·조각 분야에서도 여러 부처나 보살상들의 작품들에 선문화가 드러나 있었다. 이처럼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초반에 막부 최고 실권자였던 호조가문의 적극적인 대륙문물 수입과 더불어 일본에 초청된 선승들에 의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선문화가 직접 일본에 유입되었다. 또한 이들 선승들의 일본인 제자들 중 많은 수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들에 의해 선을 비롯한 중국의 문화

124) 정순분, 『일본고전문학비평』, 제이앤씨, 2006, p. 170.

125) Ibid., pp. 170~171.

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다.

3) 무로마치 시대의 귀족 중심 선문화와 정원문화

선종은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서도 중국 문화를 수입하고 보급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승들은 명나라와 일본 간 조공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무로마치 막부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것은 명나라와의 감함무역을 통해서였다. 명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은 1401년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 1358~1408)가 자신을 일본의 국왕이라고 명기한 국서와 함께 사신을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1404년부터 시작되었다.

감함무역은 이른바 조공무역의 한 형태였는데, 일본 무역선을 해적집단인 왜구(倭寇)와 구별하기 위해 명나라가 교부한 감함(勘合)을 의무적으로 지참하도록 요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감함무역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답례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신과 함께 동행을 한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이었다.¹²⁶⁾

당시 일본에서는 선종의 승려들이 명나라에 전하는 국서의 작성과 감수뿐만 아니라 사신단의 대표인 견명사(遣明使)에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선종의 선승들은 가마쿠라 시기부터 무로마치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륙문물의 수입을 담당하며 대륙의 사정에 밝았고, 중국출신 선승이나 입승 구법승의 영향으로 중국어와 중국고전, 그리고 시문 등에 능통한 인재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견명사로 파견된 선승들에 의해 대륙의 선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1305~1358)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타카우지는 천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황의 오쇼(御所)가 있는 수도 교토(京都)에 막부를 개설하였다. 전대인 가마쿠라 시대는 정치적 중심지가 가마쿠라였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적 중심지가 교토와 가마쿠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천황가와 귀족들의 공가문화(公家文化)는 교토를 중심으로, 무사들의 무가문화(武家文化)는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가 교토에 개설됨으로써 공가문화와 무가문화,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선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즉 무로마치 시대 전기는 귀족과

126)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pp. 341~342.

무가의 문화가 융합되었던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선종이 번성하여 교토의 5산(五山)을 비롯하여 많은 사원들이 건립되었고, 문화에도 선종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 시기는 이른바 무로마치 문화의 개화기였으며, 선문화의 개화기였다. 무로마치 문화는 시기별로 기타야마(北山) 문화와 히가시야마(東山) 문화로 대별되었다.

기타야마 문화는 무로마치 초기의 문화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재위: 1368~1394) 때 완성되었다. 그는 교토의 북쪽 기타야마(北山)에 킨카쿠지(金閣寺, 정식명칭은 鹿苑寺)를 건립하였다. 특히 킨카쿠지 사리전은 전통적인 공가문화와 무가문화, 그리고 선문화가 융합된 형태로서 이 시기 일본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1층은 이른바 침전양식(寢殿造)으로서 전통적인 최상층 귀족의 저택에 나타나는 건축양식이었으며, 2층은 가마쿠라 시대 무사들의 주택양식을 따른 이른바 무가양식(武家造)이었다. 3층은 불사리를 모신 법당으로 가마쿠라 시대 초기 중국에서 전해진 선종양식(禪宗樣)을 따르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화려한 성향의 문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 문화의 특성은 사치성이 농후한 귀족문화와 무가문화, 그리고 대륙의 선종을 비롯한 송·원의 문화가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¹²⁷⁾

문학적 측면에서 이른바 오산선종(五山禪宗)의 선승들을 주축으로 중국풍의 한시문인 오산문학이 크게 유행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에 침체된 와카는 새로운 기운을 넣은 렌가로 변모하여 유행하였다. 렌가가 정식 문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렌가의 복잡한 규칙들은 차의 양식과 기법에 접목되었으며, 렌가의 구(句)와 구(句)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 교류관계로 접목되었다.¹²⁸⁾

일본 회화도 중국 선종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 여졸(如拙), 주문(周文) 등 걸출한 화승(畵僧)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화풍은 중국 송·원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수묵화가 성행하였으며, 수묵화는 선의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중시되었다. 일본의 수묵화는 도후쿠지(東福寺)의 명초(明兆)에 의해 기초가 수립되었다.

일본 정원은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주된 예술형식이

127) 구태훈, 『일본문화사』, p. 219.

128) 폴 발리, op. cit., p. 191.

었다. 일본 정원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⁹⁾ 히가시야마 문화의 대표적인 정원은 무소 소세키(夢窓疎石)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호지(西芳寺) 정원과 텐류지(天龍寺) 정원 등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공인과 농민들의 문화도 발달하였다. 노(能), 교겐(狂言), 렌가, 그리고 서민의 수준에 맞춘 통속적인 단편소설인 오토기조시(御伽草子)가 귀족, 무사, 서민층의 구별 없이 유행하였다. 노는 기타야마 문화를 대표하였다. 노는 노래와 춤과 장단이 어우러지는 연극으로 고전적 소재를 가지고 유희의미를 중시하면서 상징성과 절제, 그리고 암시성에 무게를 두었다.

4) 전국 시대의 사원 중심 선문화

전국 시대의 정치와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는 겐페이 전쟁(源平合戰)에서 승리하한 후 가마쿠라 막부를 개설하였다. 각 구니(國)를 감독하고 쇼군(將軍)의 요구가 있을 때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관의 직책으로 임명한 슈고(守護)는 무로마치 막부를 거치면서 지방에서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며 지방 영주[슈고다이묘(守護大名)]로 발전하였다.

한편 쇼군의 힘은 1493년 묘오(明応)의 정변(政變)과 호조 소운(北條早雲)의 이즈(伊豆) 탈취사건, 그리고 분쇼(文正)의 변(變)에 의해 점차 쇠퇴하였으며, 그 지배력은 무로마치 중기 이후 슈고 다이묘의 반란 등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오닌의 난(奥仁の亂, 1467~1477)을 거쳐 막부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던 다이묘의 연합체가 해체되자 막부의 정권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막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슈고 다이묘들이 대부분 몰락하였다. 반면 지방 무사세력은 강화되어 이른바 센코쿠 다이묘(戰國大名)들의 격렬한 세력투쟁이 이어졌다.¹³⁰⁾

또한 교토의 황폐화는 천황, 귀족, 승려 등 지배계급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교토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문화·상업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귀족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무사들에게 압도되었으나 문화 담당자로서의 역할만은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129) Ibid., p. 225.

130) 정형, op.cit., pp. 70~71.

이러한 정치·사회 상황에서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재위: 1449~1473)는 교토의 히가시야마(東山)에 긴카쿠지(銀閣寺, 정식명칭은 慈照寺)를 짓고 은거하였다. 이 긴카쿠지는 관음전으로 히가시야마(東山) 문화의 대표적 건축물이었다. 기타야마의 긴카쿠지 사리전과는 달리 긴카쿠지 1층은 주택풍의 서원양식(書院造)이었고, 2층은 선종양식의 법당이었으며, 긴카쿠지의 동구당(東求堂)은 일본 다실의 기원이었다. 긴카쿠지는 한적한 정원풍경과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은밀한 분위기가 감도는 무가문화의 특색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하게 선가풍으로 살고자 했던 무사 요시마사의 삶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종래의 무가문화와 선문화에 대중문화가 더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에서는 오산문학이 더욱 융성하여 『니혼쇼키(日本書紀)』와 주자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귀족과 무사들 사이에서 발전한 렌가는 더욱 유행하였으며, 직업으로서 렌가시(蓮歌師)가 출현하였고, 예능분야의 노(能), 다도(茶道), 화도(生け花) 등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며 대중화에 일조하였다. 이처럼 문예가 유행하면서 예능도 발전하였으며, 노가쿠(能樂)는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비롯한 역대 쇼군들의 후원으로 막부의 공식적인 의식에서 상연되었다. 이로 인해 노가쿠는 시키가쿠(式樂)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사원문화가 활성화되자 차문화도 발전하였다. 차문화는 사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차 마시는 풍습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고, 투차(鬪茶)가 성행하였다. 또한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는 선의 정신을 다도의 과정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질박 미와 불완전 미, 그리고 여백의 미를 좁은 공간에서 표현하는 와비차(詫茶)의 세계도 등장하였다. 이는 섬세하고 절제된 동작과 예법으로 적막한 분위기에서 차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에 의해 간결한 다실 안의 도쿄노마(床の間)에 릿카(立花)라는 꽃꽂이 양식이 도입되면서 감상을 위한 예술로 발전하였다. 15세기 말에 성립된 『군다이칸소우초키(君台鑑左右帳記)』에는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서원(書院)을 장식하는 방식이나 기물을 감상하는 비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도쿄노마의 탁자 중앙에 향로와 향합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촛대, 왼쪽에 꽃병을 두도록 했다. 도쿄노마를 장식하는 방법으로 3구족(三具足)을 즉

자 앞에 장식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방법은 사원에서 불전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선불교가 차문화에 끼친 영향이었다.¹³¹⁾

회화에서는 종래의 중국 선종화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일본 수묵화가 탄생하였다. 일본 수묵화는 셋슈(雪舟, 1420~1506)라는 화승에 의해 완성되었다.¹³²⁾ 그리고 전통적인 일본화인 야마토에(大和繪)의 토사파(土佐派), 야마토에와 수묵화를 융화시킨 카노파(狩野派) 등이 등장하였다. 선승들의 화두나 수묵화도 선적 요소를 지닌 서도와 그림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식의 독특한 정원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정원은 화가였던 승려 셋슈(雪舟)가 만든 정원이 처음이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백사와 돌만으로 못과 폭포를 표현한 가레산수이(枯山水)식 정원이었다. 가레산수는 석정(石庭)으로 연못이나 계곡 등의 물을 이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로만 표현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이토쿠지 다이센잉(大徳寺 大仙院)과 료안지(龍安寺)의 정원이었다. 많은 정원을 만들었던 임제종 승려 무소 소세키(夢窓疎石)는 자신의 저서 『몽중문답집(夢中問答集)』에서 "정원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주거를 꾸미고 진기한 것을 가지고 놀기 위함이 아니다. 선(禪)수행자는 산하대지(山河大地), 초목와석(草木瓦石)을 자신의 본분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수(山水)에는 득실(得失)이 없고, 득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¹³³⁾ 라고 하였다. 무소 소세키에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정신세계는 이 시기 정치, 외교, 경제, 문학, 건축, 회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였던 선승들의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5) 에도 시대 이후 선문화의 다양화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가 경장 5년(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에서 벌어진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 1563~1600)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막부(幕府)를 에도에 설치한 1603년부터 격용 3년(1867) 도쿠가와

131) 폴 발리, op. cit., pp. 213~215.

132) 구태훈, 『일본문화사』, p. 242.

133) 다카세 요이치, 나카 다카히로, 박경자 역, 『일본의 정원』, 학연문화사, 2013, p. 80.

요시노부(徳川慶喜, 1837~1913년)가 정권을 황실에 봉환(奉還)하게 되기까지 약 260년 동안을 가리킨다.

에도 시대의 학문적 특징은 중세의 불교 중심에서 유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에도 시대의 사회윤리는 유교의 가족도덕인 효(孝)와 무사의 주종관계를 강조한 충(忠)의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 특히 일본 전국 시대 말기에서 에도 시대 초기에 활약했던 성리학자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의 추천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하로 들어 간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은 주자학을 보급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바쿠한(幕藩, 막번) 체제하의 관학의 기초를 쌓았다. 이후 양명학, 또는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하여 공맹(孔孟)의 원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일본의 독자적 유학 연구인 고학(古學)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고학은 일본화 된 유학으로서 현실 파악과 역사적 이해, 그리고 인간성의 존중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밖에 에도 시대 중기부터 네덜란드를 연구하는 난학(蘭學)이 등장하였고, 막부 말기에는 양학(洋學)도 발전하였다.¹³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오사카의 신흥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겐로쿠(元祿)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시기는 에도 막부가 안정화되었던 시기였으며, 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이 막부와 막번의 보호를 받아 육성되고 발전하였던 시기였다. 더구나 이 시기는 쇄국체제의 시기였으며, 외국과의 교류가 축소되었던 시기였고, 외국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 정치체제로 접어든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성숙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겐로쿠 문화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유학은 불교사상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천문학, 의학, 본초학 등 과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실증주의적인 정신이 발휘되었다.

둘째, 상인들의 자유롭고 향락적인 기질이 하이카이, 우키요소시, 가부키 등 문예의 소재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¹³⁵⁾ 이들 문화에는 막번 체제의 안정하에서 자유로운 인간성을 추구하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넘쳤으며, 가부키(歌舞伎), 스모(相撲), 불꽃놀이(花火), 우키요에(浮世繪), 소설(草紙), 그리고 유곽(遊

134) 구태훈, op. cit., pp. 298~307.

135) 공익식 외,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2002, pp. 104~105.

리) 등 오락문화가 발달하면서 퇴폐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이처럼 에도 시대 후기 문화의 특징은 에도의 고유문화가 성숙하고 지방문화가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문화의 중심지도 교토나 오사카에서 에도로 옮겨졌다. 에도 시대 후기 문화인 가세이(化政) 문화¹³⁶⁾는 신흥 중하층 조민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예능오락을 통하여 민중의 문화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문화의 특징은 향락을 추구하였으며, 개인주의적이었고, 즉흥적이었다는 점이다. 우키요(浮世)¹³⁷⁾의 유행과 서민적인 오락의 세계는 상인들의 기분전환과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었고, 현실생활에서의 엄격한 행동규제나 검약정신으로부터 일시적이거나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였다. 게이샤(藝者), 샤미센(三味線), 통속소설, 화류계의 문학, 조류리(淨琉璃)와 가부키 등과 같은 연극은 모두가 이 시대에 발달한 것이었다.¹³⁸⁾

에도 시대 후기에 퇴폐적인 문화만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봉건제의 모순이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정신도 싹트고 있었다. 특히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고증적인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여 일본인의 고유사상을 발굴하려는 사상은 국학(國學)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는 일본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 재해석을 주창하면서 『고지키(古事記)』의 주석서인 『고지키덴(古事記傳)』을 펴냈다. 노리나가에게 심취한 히라다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는 복고신도를 열고 유교와 불교를 외래사상으로 배척하였다. 그 후 국학사상은 중국을 멸시하고 충성의 구심점을 천황으로 삼음으로써 막부 말기 존왕양이사상(尊王洋利思想)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에도 시대 초·중기에 소위 미도학파(水戸學派)로 불리는 국학자들이 신국일본(神國日本)과 만세일계(萬歲一係)의 천황 존엄성을 역설하였다. 대표적 국학자 가모 마부치(賀茂眞淵, 1697~1769)를 비롯해 그의 애제자 모토오리 노리나가, 아라키다 히사오이(荒木田久老, 1746~1804), 히라다 아쓰타네 등 많은 학자들은 황국사관(皇國史觀)으로 일본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을 하였다. 막부는 쇠국이라는 기본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기술적 우월

136) 분카(文化)·분세이(文政)라는 원호를 합쳐서 가세이(化政)라 부른다.

137) 불교의 현세적 사상에 입각해서 현세는 무상의 세계라는 뜻이었으나, 중세 말기 안정이 찾아오자 서민은 현세를 잠깐 동안의 세상이라고 여기고 향락을 추구하며 신나고 편하게 사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138) 구태훈, op. cit., pp. 331~339.

성을 수용하였으나, 봉건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양학과 국학은 서로 대립되는 사상이었지만, 막부 지배를 부정하는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과 밀착한 세속예술이 등장하면서 일본 건축에서는 무가의 서원건축과 사원건축이 발달하였고, 특히 조원술(造園術)이 발달하였다. 회화는 가노 탄유(狩野探幽, 1602~1674)를 중심으로 하는 가노파(狩野派)와 토사파(土佐派) 등이 있었고, 서민층에서 육성된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繪) 등도 있었다.¹³⁹⁾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일본의 불교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본 불교문화는 전통적인 고유문화와 중국문화, 그리고 타문화의 융합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중국 불교의 선사상은 일본 불교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셋째,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 불교의 유입과 일본 불교의 선사상 확산과 함께 발전하였다.

넷째, 일본의 정원문화는 무로마치 시기부터 등장하였으며, 불교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일본의 소박하고 검소한 문화는 불교의 선사상과 와비사상, 그리고 막부와 무사들의 정치적·문화적 후원에 의해 발전하였다.

139) 폴 발리, op. cit., pp. 295~300.

Ⅲ. 일본 불교가 차문화와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1. 일본 차문화의 발전 과정

일본으로 불교를 전달한 백제는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해당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미 차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백제로부터 불교와 함께 차가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중국의 차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는 견당사(遣唐使)가 왕래했던 나라 시대부터였다.

견당사를 파견한 일본은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건축, 회화, 불상 등 미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시 당나라의 기호음료는 차였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층들도 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차는 견당사나 유학승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선승(禪僧)들은 선문화 체득과 정신수양의 음료였던 차에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후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 송나라 시기의 에이사이와 조겐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에이사이는 남송에서 선 수행을 할 때 차문화를 접했으며, 귀국 후 선법전과와 함께 『긱다양생기』를 저술하였다. 이후 에이사이는 중국으로부터 차 종자를 가지고 들어와 일본에서 차를 재배하였으며, 후에 선사상의 전과와 함께 차를 재배하는 방법과 다도도 전파하였다. 에이사이가 차를 직접 재배하고 재배 방법을 전파하면서 일본의 차문화는 귀족 중심에서 일반 대중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일본 차문화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일본의 차문화(?~710)

일본의 차문화는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불교는 긴메이(欽明) 천황 때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 당시 백제는 남북조 시대의 송(宋), 제(齊), 양(梁) 등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 중국의 남북조시대는 중국 차문화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당(唐)나라 초기에 백제는 당과 무역을 하였으나 신라의 적극적인

외교에 밀려서 고립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백제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해상무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니혼쇼키(日本書紀)』에는 선화(宣化) 3년(538) 백제 성왕(聖王, 523~554)이 백제에서 불상과 경전, 그리고 13명의 스님을 보내자 스님들에게 차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¹⁴⁰⁾

2) 나라 시대 차문화(710~794)

견당사가 왕래했던 나라 시대에 일본은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건축, 회화, 불상 등 미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지배계층들은 선진문화였던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 받아들였으며, 당나라 문화를 동경하였다. 당시 당나라의 기호음료로 떠오르며 지배층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음료가 차(茶)였다. 차는 견당사나 유학승들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견당사들은 당나라 지배계층의 기호음료였던 차를 고급음료로 간주하였으며, 유학승들은 당시 선풍(禪風)을 이끌었던 선승(禪僧)들의 선문화와 정신수양의 음료였던 차에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였다.

견당사와 유학승을 통해 대륙의 다양한 문화와 불교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지배층과 사찰 승려들이 즐기고 있었던 차문화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는 일본의 비공식적인 기록인 『사광년중행사(師光年中行事)』와 『공사근원(公事根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사광년중행사』의 내용 중에서 쇼무(聖武, 701~756) 천황이 덴보우 원년(天平 元年, 729) 4월 8일에 기록한 기사를 인용하면, 천황은 100여 명의 승려들을 초대하여 법회를 열었고 『대반야경(大般若經)』을 강독한 후 다음날 축하연에서 행다의 의식(行茶の儀)을 행하며 차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¹⁾ 여기에서 차를 하사한 것[行茶-引茶]은 법회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약용의 의미가 담겨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회 후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승려들에게 보답하는 답례 또는 향응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또한 당시 일본의 귀중한 유물에 대한 기록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정창원

140) 김명배, 『日本の 茶道』, 圖書出版 保林社, 1987, p. 34.

141) Ibid., p. 35.

문서(正倉院 文書)』 등에는 차(茶)가 아닌 도(茶) 자의 약용 관련 기록들이 있었다. 이는 당시 차가 약용으로 음용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¹⁴²⁾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 따르면, 748년 교키(行基, 668~749) 보살이 48개의 사찰을 건립한 후 사찰에 차나무를 식목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⁴³⁾ 또한 『본조문수(本朝文粹)』에는 "산가주(參河州) 헤끼카이군(碧海郡)에 하나의 도장(道場)이 있는데 야쿠오우사(藥玉寺)라고 한다. 교키 보살이 옛날에 세운 곳이다. ……(중략)…… 차밭이 있다."¹⁴⁴⁾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비공식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차나무 재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사이초의 차나무 최초 재배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¹⁴⁵⁾

일본의 깍다기원에 대해 아시다치(足立勇)는 『일본식물사(日本植物史)』 「깍다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깍다의 기원은 헤이안조(平安朝) 이전이었을 것이다. 정창원(正倉院, 소쇼인)¹⁴⁶⁾ 문서 중 사경생(寫經生)의 음식물에 도(茶)라는 것이 있다. 그 옛날 중국에는 차(茶)라는 글자는 없고 도(茶)를 쓰고 있었으니 그 도(茶)도 차(茶)일 것이다.(『해외교통사화(海外交通史話)』) 또 쇼무천황 시대에 차 베풀기 의식이 있었다.(『화사시다사담(和事始茶事談)』·『전다기언(煎茶綺言)』기타), 그 무렵 교키가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며(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또는 연력(延曆, 782~806) 연간에 사이초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며(『일본장기(日本莊記)』), 또는 대동(大同, 806~809) 연간에 구카이가 가지고 돌아왔다지만, 명승(名僧)들이 가지고 왔다는 말은 신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조의 무렵 우리나라에서 당나라에 들어갔던 스님이 귀국할 때 가져온 것이 마침내 도착된 것 같다."¹⁴⁷⁾ 이를 종합해 볼 때, 일본 음다문화의 기원은 나라 시대임을 알 수 있다.

3) 헤이안 시대 차문화(794~1185)

142) 중국에서도 초기 차(茶)가 아닌 도(茶) 자의 기록과 차를 약으로 분류한 기록들이 있다. 『시경(詩經)』 등으로 당나라 육우의 『다경』 이전에는 빈번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43)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권 4; 김명배, op. cit., p. 34에서 재인용.

144) 『본조문수(本朝文粹)』; 김명배, op. cit., p. 34에서 재인용.

145) Ibid., p. 35.

146) 나라 시대 동대사 대불전 서북쪽에 있는 창고로 쇼무 천황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147) 김명배, op. cit., p. 35.

헤이안 시대는 교토에 도읍을 정하고 문학과 예술을 진흥시킨 일본문화의 본격적인 건설시대였다. 이 시기에 견당사가 빈번하게 왕래하였으며, 사이초, 쿠카이(空海), 에이추(永忠) 등 유학생들이 당나라(618~907)에서 차 종자를 가지고 들어와 사가현(滋賀縣) 세부리산(脊振山)에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본 차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¹⁴⁸⁾

헤이안 시대 초기의 차에 대한 비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미나모토 다카아키라((源高明, 914~982)의 『서궁기(西宮記)』에는 "산바이(山背)의 나라 가쓰노군(葛野郡)에 천도하여 이 무렵 주전료(主殿寮)의 동쪽에 차밭을 마련하고 조다사(造茶使)라는 벼슬을 두고 전약료(典藥寮)를 지배토록 하였다."¹⁴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궁정에서 다원을 조성했다는 의미이다.

804년 견당사를 따라 당나라로 갔던 사이초와 구카이에 관한 비공식적인 기록이 있다. 『일길사신도비밀기(日吉社神道秘密記, 1575~1577 경)』에는 간무천황 엔라쿠(延歷) 24년(805) 전교대사 사이초가 견당사로 갔다 오면서 천태종과 차종자를 가져와 치카에(近江) 사카모토(阪本) 히요시(日吉) 다원에 심었다¹⁵⁰⁾는 기록이 있다. 히요시 다원은 현재 일본 최고(最古)의 다원으로 알려져 있다. 『홍법대사연보(弘法大師年譜)』에도 홍법대사 구카이가 806년 중국에서 진언종과 차종자와 돌절구를 가지고 귀국했다는 기록과 히젠(肥前) 나가사키(長崎)에 차종자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⁵¹⁾ 사이초와 구카이는 킨키(近畿) 지방을 중심으로 차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천태종과 진언종이 차문화와 함께 귀족사회로 전파되어 나갔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은 일본 정사인 『일본후기(日本後記)』 권 24에 기록된 음다(飲茶)의 기록이다. 사가(嵯峨) 천황 코우닌(弘仁) 6년(815) 4월 22일 계해(癸亥)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가 천황이 사가현(滋賀縣) 고노에 국(近江國) 지가(滋賀)의 가라사키(韓崎)에 거둥하시어 문득 수후쿠지(崇福寺)를 지났다. 수후쿠지의 대승(大僧)인 에이추(永忠, 743~816), 고묘우법사(護明法師) 등이 스님의 무리를 거느리고 문밖에서 맞이하여 받들었다. 천황은 수레에서 내려 법당으로 올라 부처님께

148) 이진수·서유선, 『일본다도의 이해』, 이른아침, 2013, p. 17.

149) Ibid., p. 36.

150) 『일길사신도비밀기(日吉社神道秘密記)』참조; op. cit., p. 36에서 재인용.

151) 『홍법대사연보(弘法大師年譜)』참조; Ibid., p. 36에서 재인용.

절하였다. 다시 본샤쿠지(梵釈寺)를 지나갔다. 어가(御駕)를 멈추고 시(詩)를 읊었다. 황태자[훗날 순화천황]와 신하 중에서 받들어 화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에이추 선사가 손수 차를 달여(煎) 헌상(獻上)했다.”¹⁵²⁾

에이추 선사는 육우(陸羽, ?~804)가 활약했던 시기에 장안(長安)의 서명사(西明寺) 등에서 유학하였으며, 그곳에서 30여 년을 기거했던 승려였다. 이때 일본의 진다의식(進茶儀式)은 중국풍의 의식으로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최초의 차에 관한 사료(史料)이다. 같은 해 그는 기나이(畿內), 치카에, 단바(丹波), 하리마(播磨) 등에 차를 심었고, 매년 차를 헌상하도록 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 시기의 한시집(漢詩集)에는 사가 천황을 위시한 당시 지배층의 차 애호에 관련된 다시(茶詩)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한시문 최초의 칙선 한시집인 스가와라(菅原道眞, 845~903)의 『능운집(凌雲集)』에 언급된 사가천황이 읊은 두 편의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날 좌대장군 후지와라 후유쓰구의 한거원”
(夏日 左大將軍 藤原冬嗣閑居院)¹⁵³⁾

“시를 읊으니 향기로운 차 찢기에 싫증이 나지 않고
흥에 겨우니 오로지 거문고 타는 소리 듣기에 좋다네.”
(吟詩不厭搗香茗 乘興偏宜清雅彈)¹⁵⁴⁾

또 다른 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가을날 황태자의 연못 정자에서 천(天)이라는 글자로 읊다.”
(秋日 黃太弟池亭 賦天子)¹⁵⁵⁾

“쓸쓸하고 그윽한 흥취 있는 곳 동산 안은 차 연기로 가득하네.”

152) 黒板勝美編, 『日本後紀』, 吉川弘文館, 1974.; 김명배, 『日本の 茶道』, p. 34에서 재인용.

153) 누노메 쇼우후우, 이진수 역, 『현대과학으로 읽는 다경』, 이른아침, 2011, pp. 104~125.

154) Ibid., pp. 104~125.

155) Ibid., pp. 104~125.

(蕭然幽興處 院裡滿茶煙)¹⁵⁶⁾

이는 일본의 차문화가 문학을 통해서도 널리 보급되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당시 차는 매우 귀중한 물품으로 간주되었으며, 화려한 당풍문화를 대변해주었다. 시에 언급된 찜기(搗)와 차 연기(茶煙)는 육우의 『다경(茶經)』에 언급된 떡차로 볼 수 있다.¹⁵⁷⁾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국내 정치는 혼란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건당사 제도는 894년에 폐지되었다. 결국 일본의 차문화는 국내 경제문제로 대중 및 하층민들에게로 전파되지 못하고 승려나 귀족 등 상류층에게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당나라 중기에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안사의 난, 755~763) 등의 전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본에서는 894년 건당사 파견이 중지되었고, 842년부터 신라와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쇄국정책이 고수되었다. 그 후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하였고, 918년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멸망하였으며, 926년 고구려 유목민 대조영(大祚榮, ?~719)이 세운 발해(渤海)가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935년 신라 멸망 후 후삼국을 거쳐 고려가 건국되었고, 이어 960년 송나라가 건국하였다. 일본에서는 자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일본풍의 문화인 국풍문화(國風文化)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아직 정착되지 못했던 차문화도 외래문화로 간주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결국 일본의 차문화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초기는 유학생이나 건당사들의 빈번한 왕래와 함께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였다.¹⁵⁸⁾ 당시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에서 유행 하였던 단차(團茶)였으며, 차문화의 수준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왕족, 귀족, 그리고 승려들만이 한정적으로 차를 접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나라의 음다 풍습이 아직 일본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 내 음다 풍습은 사원 등지에서 절기에 따른 독경시의 의식적인 다례 정도로 행해졌다.

894년 건당사를 폐지한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과 외교를 단절하였으며, 공무

156) Ibid., pp. 104~125.

157) Ibid., pp. 104~125.

158)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p. 130.

역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교역이 거상(巨商)들의 사무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차문화도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1세기 중엽부터 후지와라(藤原)의 세력이 약화되자, 헤이시(平氏)가 정권을 잡았고, 1132년에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산요(山陽), 난카이(南海) 인근의 해적을 진압하였고, 일송무역(日宋貿易)에도 관여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면서 헤이시 번영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그는 일송무역을 통해 송나라 문물들을 유입하였으며, 선승들의 교류도 장려하였다.¹⁵⁹⁾ 하지만 겐지의 두령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는 헤이시를 타도한 후 가마쿠라를 근거지로 삼았고, 1184년 요시나카를 토벌하였으며, 1185년에는 사이고쿠(四國)로 패주한 헤이시 가문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바로 이들이 헤이안 시대 후기 귀족들의 장원을 지키는 무장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무사의 기원이 되었다. 천황의 혈통(桓武天皇, 간무천황, 737~806)을 이어받은 겐지의 무사집단은 그 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아울러 지방 호족세력이 강화되면서 중앙 귀족 문화가 지방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귀족중심의 문화가 서민들에게 확대되어 나갔다.¹⁶⁰⁾

4) 가마쿠라 시대 차문화(1185~1333)

가마쿠라 시대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헤이시 가문을 완전 섬멸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연 1185년부터 원홍(元弘) 3년(1333)까지의 약 150년 동안을 일컫는다. 1192년 세이이다이 쇼군(征夷大將軍)의 벼슬에 오른 요리토모에 의하여 시작된 일본의 무가정치는 이후 7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메이지 유신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으며, 전환의 시기였다. 사람들은 겐지와 헤이시의 싸움과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자연스럽게 말법도래(末法到來)의 사상에 빠져 들었다. 말법의 세상으로부터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인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 일연종, 임제종, 조동종 등이 탄생하였다. 이 가운데 당시 무사들을 중심으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종파

159) 이진수·서유선, op. cit., p. 18.

160) Ibid., pp. 243~250.

는 선종이었다. 좌선을 통한 선종의 엄격한 수행은 무사의 기풍과 맞아떨어졌으며, 막부의 보호를 받아 무사들에게 널리 유행하였다. 가마쿠라 신불교의 공통적 특징은 구불교가 너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생활태도를 요구한데 반해, 신불교는 단지 염불, 선 등의 실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¹⁶¹⁾ 따라서 새로운 불교는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무사나 민중들에게 선과 검소한 생활의 실천을 위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한편 헤이안 시대에 견당사를 폐지한 이후 일본에서는 차문화가 쇠퇴하였지만, 중국에서는 당 왕조를 이은 새로운 송 왕조시기에 차문화가 더욱 발전하였다. 양쯔(揚子)강 유역에서 차나무 재배가 성공을 거두자, 송 왕조에서는 새로운 차 음용법인 점다법(點茶法)이 등장하였다.¹⁶²⁾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다시 중국 송 왕조에 유학하려는 일본의 승려들이 많아졌다. 엔큐(延久) 4년(1072)에 송나라로 유학을 간 고승 조우싱(成壽)은 다음해 정월 상원절(上元節)에 송나라로부터 차와 과자를 하사받았다. 이는 시기적으로 송나라의 점다법이 일본으로 서서히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마쿠라 시대에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이 음다 풍습과 차 종자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한동안 시들해졌던 일본의 차마시는 풍습이 다시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최초의 선도장(禪道場)인 성복사(聖福寺)를 건립하고 일본 불교의 중흥에 이바지한 에이사이는 1191년 송나라에서 차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에이사이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겐큐(建久) 2년(1191)에 히젠(肥前)지방 히라토(平戶島)의 이우라(葦浦)에 도착하여 송나라에서 가져온 차 종자를 히젠 지역과 추쿠젠(筑前, 지금의 후쿠오카 일원) 지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히젠 세부리산 남쪽 기슭(背振山 南麓) 영산사(靈山寺) 서쪽 계곡(西ヶ谷) 근방에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¹⁶³⁾

그동안 쇠퇴해 가던 일본의 차문화는 에이사이 선사가 규슈(九州) 세부리산에 차를 재배하고 제다와 음다 문화를 전파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161) 공의식 외, op. cit., pp. 79~80.

162) 당나라의 다법은 여러 단계를 통해 찻잎을 가공한 단병차(團餅茶)를 가루로 만들어 끓여 마시던 자다법(煮茶法)이었으나, 송나라에서는 찻잎을 여러 단계를 통해 가공한 연고차(研膏茶-團茶)를 더욱 곱게 가루를 내어 다완(茶碗)에 차선(茶筴)으로 거품을 내서 마시는 다법이었다. 점다법은 황우(皇祐) 3년(1055) 송나라 인종(仁宗) 때 채양(蔡養)의『다록(茶錄)』이나 휘종(徽宗)의『대관다론(大觀茶論)』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63) 김명배, op. cit., pp. 44~46.

는 새로 출범한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층으로 차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⁶⁴⁾ 에이사이는 두통을 앓고 있던 제3대 쇼군 미나모토 사네토모(源實朝, 1192~1219)에게 양생(養生)의 선차(仙茶)인 말차를 진상하였다. 두통과 숙취해소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말차가 무사 계급에게 전파되면서 차문화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¹⁶⁵⁾ 당시 중국에서는 용봉단차(龍鳳團茶)가 제조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차를 약용으로 마시는 풍속이 뿌리를 내렸다.

일본의 차문화는 선종의 사원이나 무가(武家) 사회뿐만 아니라 차를 통해 정치적 교류를 이루었던 당시 최고의 지배층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더욱 확산되었다. 선종인 임제종(臨濟宗)을 개창한 에이사이는 1221년에 『꼭다양생기』를 저술하였으며, 차가 지닌 양생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는 『꼭다양생기』 서문에 차는 양생(養生)의 선약(仙藥)이요, 연령(延齡)의 효험이 있고, 산골짜기에 차가 생산되면 그 땅은 신령스럽고, 그것을 채취하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진다고 적었다.¹⁶⁶⁾ 이를 통해 그는 차의 약효에서 장수(長壽)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음료로서 차는 일본 내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이후 음다 문화는 더욱 성행하였다.

에이사이는 중국으로부터 가져 온 차 종자를 세부리산에 심었고, 고잔지(高山寺)를 창건하였으며, 화엄종을 중흥시킨 교토 도가노오(梅尾)의 묘에상인(明惠上人, 1173~1232)에게도 차 종자를 보냈다. 이로 인해 도가노오에서도 양질의 차가 재배되기 시작했다. 묘에상인은 에이사이 선사에게 선 공부를 하였다. 선 수행에서 차는 각성제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고잔지 사원에서는 양질의 차가 재배되었다. 더욱이 차 재배가 활성화되자 차 품질 겨루기 대회가 성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차는 본차(本茶; 도가노오의 차)와 비차(比茶; 다른 지방의 차)로 나누어졌고, 본차와 비차를 구별하는 투차(鬪茶) 대회로 발전하였다. 다화와 투차에 대해 고지마법사(小島法師)가 저술한 『태평기』에는 “수도에는 좌도판관(佐渡判官)인 사사키 도요를 비롯하여 수도에 있는 다이묘(大名)들이 무리를 지어 다회를 비롯해서 나날의 모임 등이 활기차다. …… (중략) …… 내 숙소에 일곱 군데

164) 古田紹欽訳・著, 『栄西 興禅護国論・喫茶養生記』, 講談社〈禅入門1〉, 1994. p. 20.

165) 김명배, op. cit., p. 47.

166) 에이사이선사, 류건집 주해, 『喫茶養生記 註解』, 이른아침, 2011, pp. 22~23.

를 꾸미고, 일곱 가지의 차를 맞추어, 칠백 가지의 내기를 거는 물건을 쌓고, 일흔 모금의 본비차(本非茶)를 마신다.”¹⁶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차회와 그에 따른 사치스러운 투차에는 바사라(婆娑羅)들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사라란 화려함, 대규모, 지나침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회적 신분계급을 무시하고 하층민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상류층과 같은 행동을 즐기는 의식을 의미하였다. 이는 귀족계층들에 대항한 하층민들의 일종의 하극상을 의미하였다.¹⁶⁸⁾

에이사이가 활동했던 시기에 엔가쿠지(圓覺寺) 불일암(佛日庵)의 「공물목록(公物目錄)」에는 다이에(大惠)의 묵적(默跡), 동제(銅製) 화병, 청자, 건잔(建盞; 窯變, 油適 등 일명 천목다완) 등 차도구와 다완명(茶碗名)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에서 음다 문화의 성행 정도와 고려나 송·원으로부터 수입된 차 관련 예술 공예품의 규모 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후에 입송한 승려들에 의해 일본 다도에서는 각종 차 관련 예법들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고승 쇼이치(聖一, 1202~1280) 국사는 다례(茶禮)를, 다이우(大應, 1235~1308) 국사는 예식(禮式)을 전달함에 따라 일본 음다 문화에서도 예법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겐(道元) 선사는 참선의식에 음다와 행다, 그리고 다이자사토우(大座茶湯)라는 음다 예절을 접목시켰으며, 일본 내 선종의 확산과 함께 선종의 청규(淸規) 속에서 다례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었다. 도겐 선사는 에이첸(越前)에 조도슈(曹洞宗)의 본산인 에이헤이지(永平寺)를 창건하였고, 『영평청규(永平淸規)』를 정하였다. 『영평청규』에는 수도생활 중의 깍다, 점다(點茶), 대좌다탕(大座茶湯) 등의 다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¹⁶⁹⁾

에이존(叡尊, 1201~1290) 스님은 불교의 계(戒)와 율(律)을 강조하면서 여러 지방에서 교화와 구제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1239년 사이다이시(西大寺)에 부임한 4년 후 사찰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2주간 대법회를 열었고, 휴식을 취한 후 1월 16일 부처님과 법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차를 공양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행해진 대중에 대한 차 보시 의식은 오늘날까지 오차모리(大茶盛)라는 차 접대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¹⁷⁰⁾ 가마쿠라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사원의 차문

167) 김명배, op. cit., p. 51.

168) 마쓰오카 세이코, 이연숙 역, 『만들어진 일본』, 프로네시스, 2008, p. 180.

169) 김명배, op. cit., p. 53.

화는 일반 대중으로 보급되었고, 투차는 놀이문화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차문화에서도 미풍양속이 나타나게 되었다.

투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니조가와라노라쿠쇼(二條河原落書)』에 언급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민중 사이에서 유행한 귀족문화로 렌가, 차, 향의 놀이문화 등이 소개되어 있었다. 일본 남북조 시대의 사치스런 사회풍조 또는 문화적 유행을 나타냈던 바사라(婆娑羅) 현상은 차문화에서도 목격되었다. 일반적으로 바사라 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진보파 무사들이었으며, 이들은 바사라 다이묘(婆娑羅大名)라고 불렸다. 그 당시 바사라를 즐겼던 귀족계층은 화려한 중국의 송·원대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집안을 사치품으로 장식하며 차 모임이나 투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가마쿠라 시대의 차문화는 귀족계층뿐만 아니라 무사계급과 민중들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다도 정신은 무사들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한 선종의 사교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마쿠라 후기부터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카라모노(唐物)가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고가의 회화나 공예품들로 차문화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무로마치 시대 차문화(1392~1572)

일본 차문화사에서 무로마치 시대는 다도의 정신적인 요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무로마치 시대를 아시카가 시대(足利時代)라고도 한다. 이는 아시카가가 교토의 무로마치에 막부를 개설하고 정치를 펼쳤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고다이코(後醍醐, 1288~1339) 천황에게 패한 아시카가 다카우치(足利尊氏, 1305~1358)는 1336년 규슈에서 재기하였으며, 고다이코 천황을 공격하여 다시 교토를 점령하였고, 지묘인토(持明院統)의 고묘(光明) 천황을 옹립하여 북조(北朝)를 세웠다. 한편, 다카우치에게 패한 고다이코 천황은 요시노(吉野)로 탈주하여 남조(南朝)를 세웠다. 이후 일본에는 두 명의 천황이 존재하였으며, 두 개의 조정이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60년간 계속되었다. 1336년 고메이(孝明, 1331~1382) 천

170)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일본 차문화 유적』, 초롱, 2009, pp. 213~215.

황이 즉위하자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의 기본방침인 「겐무식목(建武式目)」 17조를 발표하였다.¹⁷¹⁾ 그 내용의 제1조는 검약, 제2조는 투차 금지와 술을 많이 마시고 노는 것을 삼갈 것, 제3조는 강도·살인 등을 단속할 것, 제4조는 개인의 주거를 침입하지 말 것 등이었다. 이는 도박이나 다회, 연가회 등으로 불리던 도박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고 바사라적 행동을 금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이러한 모임의 주도 세력은 잦은 전란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흥 무가 다이묘(大命, 지방영주)들이었다. 투차를 금지한 내용으로 보면, 당시 투차로 인한 부작용과 차 생산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는 자신의 저서 『몽중문답집』에서 당시의 음다 풍습이 사치와 유희로 변질되었다고 언급하였다.¹⁷²⁾ 또한 가마쿠라 시대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고금지문집(古今著聞集)』에는 대신들의 저택을 지키고 있는 호위무사들의 도박에 얽힌 이야기가 등장하였다.¹⁷³⁾ 이처럼 가마쿠라 말기부터 유행하게 된 카라모노에는 기존의 권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탈하는 모습과 화려한 복장으로 줄지어 행렬하는 사치스런 바사라 풍조의 자유분방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시기의 다회는 기존의 다회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식사와 술을 대접받은 후 외국산(주로 중국산) 수입 고가품인 카라모노(唐物)가 장식되어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화려하게 차를 마셨다. 이는 차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건강을 위한 약용의 의미나 다례의식에서 벗어나 유희 음료로 전환된 모습이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카라모노를 보급한 사람은 오오우치 히로요치(大内弘世)와 도움을 떠나 낙향하면서 자신의 사랑채(會所)를 고가의 카라모노로 장식한 사사키도요(佐佐木導譽, 1296~1373)였다. 이들은 당시 바사라의 유력자로 알려져 있었다. 바사라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당시 고전 『태평기』에는 신흥 무사계급 출신 사사키도요의 바사라적 행동이 부정적이었다고 적혀 있었다.¹⁷⁴⁾ 이러한 카라모노 장식은 가마쿠라 말기 이후부터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가(武家) 장식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유사한 음다 풍습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화려한 히가시야마(東山) 문화의 기초와

171) 本郷恵子, 『買い物の日本文史』, 角川學藝出版, 2013, pp. 46~59.

172) Ibid., pp. 46~59.

173) Ibid., pp. 46~59.

174) 김명배, op. cit., pp. 64~67.

새로운 다도가 성립되었고, 중국의 투차 문화도 소개되었다.¹⁷⁵⁾

중국에서 유입된 투차 문화는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회로 변화되어 무로마치 중기까지 유행하였다. 가마쿠라 시대부터 투차는 사원을 중심으로 유희화(遊戯化)된 형태의 새로운 차문화로 등장하였다. 이 차문화는 차를 돌려서 마시고 마신 차를 알아맞히는 놀이였다. 이 놀이는 교토의 도가노오(梅尾)를 혼차(本茶)로 그 밖의 차를 히차(非茶)로 구별하는 놀이였는데, 차 종류를 4종으로 늘려 구별하는 투차 놀이도 있었다. 이러한 풍조는 『태평기(太平記)』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사사키도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산해진미로 호식하다가 다회가 끝나면 도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기록하였다.¹⁷⁶⁾ 여기에서 다회는 투차나 차요리아이(茶奇會)라 불렸다. 차요리아이는 시문을 읊거나 음주 향연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유희적 다회였다. 또한 무가 계급에서 투차에 관한 현상품이 과장되어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는 다회를 빙자한 도박모임이었으며 당시 무장들의 놀이문화와 사회 정세를 실감 있게 묘사한 것이었다.¹⁷⁷⁾ 이러한 사치 풍조 속에서 무소 소세키(夢窓疎石)는 차의 악용과 남용을 경계하며 일본식 다례를 부흥시켰다. 당시 귀족 무사계급 사회에서는 교양 필수로 음다 생활[點茶]과 시가(詩歌)인 하이쿠(俳句)가 유행하였다. 무로마치 초기의 음다 풍습에 대해 선승 쟁에(玄惠, 1269~1350) 법사는 『꼭사오우라이(喫茶往來)』¹⁷⁸⁾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차 모임의 점다는 주연을 먼저 가진 후 행해진다. 장소는 꼭다지정(喫茶之亭)이라 불리던 건물에 일동이 모이면 테이슈(亭主)의 아들이 과자를 가지고 나오며, 젊은 시종은 건잔(建殘)을 하나씩 배포한다. 이후 왼손에 탕병을 들고 오른손에 다선을 가지고 나와 상객부터 말객까지 한 사람씩 차를 점다해 준다. 순서는 난잡하지 않다.”¹⁷⁹⁾

175) Ibid., pp. 64~67.

176) 일본의 고전문학 중 하나로 1370년 경 완성된 군담소설이다. 총 40권으로 남북조 시대를 무대로 고다이코(後醍醐) 천황의 즉위부터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멸망, 겐무신정(建武新政)과 그 붕괴 후의 남북조 분열, 간노(觀應)의 소란(擾亂)과 2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라(足利義詮)의 사망 및 호소카와 요리유키(細川頼之)의 간레이(管領) 취임까지(1318년~1368년경까지의 약 50년간)의 일들을 소재로 하였으며, 「바사라(ばさら)」라 불리는 당시의 사회 풍조나 하극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기술하였다.

177) 김명배, op. cit., pp. 64~67.

178) 왕복서간문으로 총 4통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다회에 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점다법에 대한 글이 들어 있었다.

질서정연한 다회의 모습으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 일본의 말차문화는 이 당시부터 전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카라모노 풍습들 중 하나로 건잔과 찻술로 저어 마시는 말차의 음다 풍습을 목격할 수 있다. 당시에는 도가노오차를 으뜸으로 꼽았고, 시즈미(淸見)의 차는 도가노오차의 말류(末流)라고 알려져 있었다.

선승 쟁에는 운각다(雲脚茶)에 대해 송나라 채양의 『다록(茶錄)』 「점다」조를 인용하면서, "차가 적고 끓인 물이 많으면 곧 구름발[雲脚]이 흩어지며, 차가 많고 끓인 물이 적으면 주름살이 모인다."¹⁸⁰라고 적었다. 이는 당시 일반 대중들 사이에 보급된 음다 문화를 운각(雲脚, 운카쿠)라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뜬구름(浮雲)의 다리(脚)가 빨리 지나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을 지닌 대중적인 차생활(雲脚茶湯)을 지칭하였다. 이처럼 무로마치 시대에는 귀족과 무사 등 지배층에서 투차나 차요리아이가 성행하였고, 일반 서민인 대중들에게는 운각다탕(雲脚茶湯)이라는 음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¹⁸¹

무로마치 시대에는 다실을 장식하기 위해 꽃꽂이도 발달하였다. 꽃꽂이 문화는 꽃나무를 큰 항아리에 꽂아 놓는 방식의 릿카(立花)였다. 릿카는 원래 사원에서 불전 꽃꽂이 방식으로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데서 발전하였다. 이는 쇼인즈쿠리(書院造) 양식의 주택이 발전하면서 주택 내부에 도코노마(床の間)의 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쇼큐(承久)의 난¹⁸² 이후의 조정은 쇠퇴하였으며, 황위 계승을 둘러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막부를 끌어들이었으

179) 玄惠, 『喫茶往來』참조.

180) 김명배, op. cit., pp. 59~68.

181) Ibid., pp. 67~68.

182) 교토에 있으면서 막부를 타도하고자 했던 고토바(後鳥羽) 상황은 막부의 내부에서 연이은 내분이 발생하자 제3대 쇼군이 죽은 뒤에 왕족을 교토로 초빙하여 쇼군으로 세우려는 호조 요시토키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자기와 관련이 있는 장원에 설치된 토지세금을 폐지해 줄 것을 막부에 요구하는 등 조정 권력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막부와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1221년, 교토에서 원정을 행하던 고토바 천황은 조정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호조 요시토키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전국 무사들에게 내렸으나 이에 응한 무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고케닌들은 막부에 충성하였다. 호조 요시토키는 동생과 아들로 하여금 대병력을 지휘하게 하여 교토를 공격한 후 1개월 만에 상황군을 평정하였다. 고토바 상황(後鳥羽上皇)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토벌군을 일으켰으나 패배한 병란(兵亂)이었다.

며, 이는 결과적으로 황위계승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두 명의 천황이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6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일본과 중국의 무역은 약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차문화도 쇠퇴하였다.

1368년 요시미쓰가 3대 쇼군이 되자,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는 남조의 거점 지역이었던 규슈를 평정하였고, 1392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는 60년간 계속된 남북조의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끌어 냈다.¹⁸³⁾ 그는 공가문화를 도입하면서 독특한 무가문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요시미쓰는 난보쿠초(南北朝)의 내란을 통일하였고, 60년간 중단되었던 중국 명나라와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재개하였다. 감함 무역을 통해 중국을 비롯하여 고려, 조선산 물품까지 수입하면서 막부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대 중국무역 재개는 요시미쓰 치하인 1392년부터 시작하여 75년간 일본에 문화적 부흥기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이때 다회도 중국풍 선종문화의 하나로 간주되어 무사 귀족계층의 예법으로 정착되었다. 그가 건축한 킨카쿠지(金閣寺)¹⁸⁴⁾의 원래 명칭은 로쿠온지(鹿苑寺)였는데, 이는 1394년 그가 아들에게 쇼군 직을 물려주고 은퇴한 뒤 1397년 교토의 북서쪽 외곽에 지은 별장이었다. 이 사찰은 그가 죽은 뒤 유언에 따라 로쿠온지라는 선종(禪宗) 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무로마치 시대 전기 기타야마(北山)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다.¹⁸⁵⁾ 기타야마 문화 시기에는 투차 놀이가 상류 무사계층들 사이에 성행하였다. 투차 놀이에는 중국에서 가지고 온 진기한 물품이나 도구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차들이 등장하였다.

한편 무로마치 막부의 6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 1394~1441) 시기에는 점다(點茶)와 음다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차노유노마(茶湯の間)라는 다실이 조성되었다.

183) 남북조의 통일의 조건은 남조의 고카메야마(後龜山) 천황이 북조의 고코마쓰(後小松) 천황에게 천황 지위를 양보하는 대신 남조의 황자를 황태자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고카메야마 천황은 이를 승낙하였고, 교토로 귀환하여 고코마쓰 천황에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황실의 보물인 3종의 신기(神器)를 반환하는 조건하에 퇴위했다.

184) 3층 건물로서 각층마다 건축양식의 시대가 다르다. 1층은 후지와라 시기, 2층은 가마쿠라 시기, 3층은 중국 당나라 양식으로 각 시대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하였다. 1층은 침전과 거실로 쓰였고, 2층은 관세음보살을 모셔두었던 공간이었으며, 3층은 선종 불전이였다. 이 가운데 2층과 3층은 옷칠을 한 위에 금박을 입혔다.

185) 구태훈, 『일본문화사』, p. 223.

이처럼 차가 무사계층이나 상류층 호사가들의 기호품으로 간주되면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떠들썩하게 차를 마시는 풍조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호사스런 분위기와 방식에서는 차에 대한 깊이 있는 만족이나 사색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무로마치 시대 중기로 접어들면서 소박하고 선적인 분위기를 중시하는 미의식과 명상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다도방식이 제시되었으며, 많은 다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이도쿠치(大徳寺)의 잇큐(一休, 1394~1481)에게서 참선을 배운 무라타쥬코(村田珠光, 1422~1502)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러운 다회를 여는 것에 반대하며, 조용하게 한 잔의 차를 맛보는 '와비차(わび茶)'를 시작하였다.¹⁸⁶⁾ 무라타쥬코는 다이도쿠치의 주지 스님이었던 잇큐와 함께 당시의 다도를 선원 중심으로 수행하는 엄숙한 다례로 바꾸어 나갔다. 그는 노우¹⁸⁷⁾와 렌가¹⁸⁸⁾의 정신적인 깊이와 차와 선을 결합시킨 와비차의 세계를 열었다. 그는 다도에 선(禪)적인 개념을 추가하여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추구하였으며, 와비차의 정신을 창시하였다. 그리고 당시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1436~1490) 장군의 예술품 상담역이었던 도보슈(同朋衆)¹⁸⁹⁾가 그에게 쥬코의 다도를 추천하였다. 선이 지향하는 세계를 차노유(茶の湯)의 작법으로 살린 무라타쥬코의 와비차는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좋아하면서 일본 다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적극적으로 무라타쥬코의 다도를 채택하자, 그때까지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즐겼던 다도가 일반대중에게까지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

제8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교토의 히가시야마에 세운 산장 긴카쿠지(銀閣寺)¹⁹⁰⁾는 히가시야마(東山) 문화의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현재는 많은

186) 풀 발리, op. cit., p. 214.

187) 노우(能)는 일본 중세에 시작된 전통 예능의 하나이다. 무용과 연극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에도(江戸) 시대까지는 사루가쿠(猿楽)라고 불렸으며, 료겐(狂言)과 함께 노가쿠(能楽)로 총칭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부터였다.

188) 렌가(連歌)는 고전 시가의 한 형식이었으며, 五·七·五의 長句와 七·七의 短句를 각기 다른 사람이 서로 이어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합작 문예였다. 가장 오래된 것은 『万葉集』 八권에 수록된 니과 大伴家持의 唄和이었다. 이를 근거로 만엽집을 렌가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마쿠라 시대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무로마치 시대를 거쳐 에도(江戸) 초기까지 크게 성행하였다.

189) 도보슈(同朋衆)란 쇼군이나 다이묘를 섬기며 신변의 잡무나 예능상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승려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미(○阿彌)라 하였다. 도보슈는 무로마치 시대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0) 은각은 2층으로 된 간소한 건물이었으며, 1층은 쇼인즈쿠리(書院造り) 양식으로 건축되

건물이 없어지고 은각과 다실인 동구당(東求堂), 그리고 그 주위의 정원이 남아 있다. 조용한 간소함 속에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차생활을 통한 취미를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히가시야마 문화는 외로움을 느낄 정도의 조용함과 정막함 속에서 기품이 있는 간가(閑雅)를 추구하였다.¹⁹¹⁾ 은각의 건물과 다실과 정원에는 간가를 추구하는 히가시야마 문화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었다.¹⁹²⁾ 한편 무로마치 시대에는 차문화뿐만 아니라 문예가 유행하면서 예능도 더불어 발전하였다.

6) 센고쿠 시대의 차문화

일본은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겪었으며, 내란의 연속과 오닌의 난 이후 센고쿠다이묘(戰國大名)들의 등장으로 혼란기를 겪었다. 이 시기까지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을 증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고, 화폐의 사용도 늘어났으며, 상업도시들이 탄생하였다.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지방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하였다. 특히 15세기 초의 지진과 기아 등 자연재해들은 채무와 조세에 시달린 농민들의 봉기를 유발하였고, 쇼군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내부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악화되자 결국 오닌의 난(1467~1477)이 발생하였다. 이는 센고쿠 시대의 서막으로 간주되었다. 이 전쟁에서 호소카와(細川)가 주축이 된 동군과 야마나(山名)가 주축이 된 서군은 교토 근방에서 11년간 교전하였으며, 곧 다른 구니(國)들로 전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혼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착된 수많은 생활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일본의 생활문화가 새롭게 완성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공가문화와 신흥의 무가문화, 그리고 송·원·명으로 이어지는 중국문화와 대중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시기였으며, 선종의 승려들과 무사들이 남북조의 통일을 이끈 주역으로 등장한 시기였다.¹⁹³⁾ 특히 이 시기의 차문화는 선사상을

었다. 쇼인(書院)은 원래 선종 사원에서 승려가 독서하는 방을 의미하였다. 실내 채광을 위해 벽에는 창문을 만들었으며, 책상 대신에 선반을 만들었다. 한편 이 양식은 무로마치 시대에 일반인들의 집에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쇼인즈쿠리 양식의 주택이 발달하였다.

191) 김명배, op. cit., p. 78.

192) 구태훈, op. cit., pp. 231~233.

기반으로 무라타 슈코와 그의 후계자들이 주도하였으며, 이 차문화는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카이의 거상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는 사카이현의 거상이었다. 그는 사카이 지역의 자산가 출신으로 30세까지 렌가시(蓮歌師)로 일했다.¹⁹⁴⁾ 그리고 1532년 선문(禪門)에 출입한 후 5~6년간 교토의 무로마치 4조(四條)에 기거하면서 다도를 배우고 1537년 사카이로 돌아왔다. 당시 사카이는 이치자곤류(一座建立)를 함께 하는 차 도구 스키(茶道具 數奇)의 거대 중심지였다. 그는 와카나 한 시가 갖춘 모노노마(物名), 그리고 가쿠시나(隱名) 같은 규칙을 렌가¹⁹⁵⁾에 적용한 후시모노를 연구하였다. 후시모노는 렌가의 은유(見立て)를 다도에 응용하고 적극 활용하였다. 렌가는 창화(唱和)와 문답(問答)의 문화로 이치자를 구성한 뒤 모두 참석하여 즐기던 유예(遊藝)였다. 이 당시 다도는 주객이 마음을 열고 한 자리에 모여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케노 조오는 렌가를 계절, 색, 명소, 명물, 그리고 혼카(本歌) 등을 활용하여 렌슈들이 노래하는 말에 다양한 은유를 던지는 편집기법으로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유사·비유·대조를 활용하여 대립·부속(附屬)·공진(共振)의 의미를 추가하였고, 인용·강조·중용(重用)을 섞어 연상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이런 방식을 다도에 접목시켜 응용하였다. 렌가의 모임장소인 가이세키(會席)는 매우 신중하게 정해졌다. 장소가 정해지면 도쿄노마에 족자를 걸고 화병에 생화를 꽂았으며, 화병 앞에 분다이(文臺, 종이 등을 올려놓는 책상)와 엔자(圓座, 대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둥근 방석)를 배치하였고, 종장과 집필이 앉은 후 인사를 하면 렌가가 시작되었다.¹⁹⁶⁾ 이러한 형식과 취향을 다실로 옮겨온 그는 슈코의 와비차를 더욱 간소한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그의 와비차는 이마이 소큐(今井宗久, 1520~1593)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마이 소큐가 활동했던 전

193) 구태훈, 『일본고대.중세사』, pp. 354~360.

194) 김명배, op. cit., p. 71.

195) 렌가는 음악의 선율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모미로 삼았다. 렌가는 전체로서 완결된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전체에서 독립된 개별적인 부분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졌다. 렌가의 각 부분들은 처음도 끝도 없는 현재의 계속적인 발현으로 이루어졌다. 렌가에서 과거(추억)와 미래(환상)의 세계는 철저히 배격되었다. 고대 가요 이후 일본의 토착 세계관에서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현실이었던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의 지금 현재가 바로 렌가의 세계였던 것이다. 렌가는 와카에서 파생했지만 그러한 세계관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중 속으로 침투하였으며, 미증유의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정순분, op. cit., p. 187.

196) 마쓰오카 세이고, op. cit., pp. 186~201.

국 시대에는 아직도 많은 차인들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차 도구 수집과 손님 초대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다회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사상에 기반을 둔 와비차는 이마이 소큐로부터 센리큐(千利休, 1522~1591)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계승된 다케노 조오의 와비차 정신은 아츠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에 센리큐에 의해 다도 예술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차문화는 16세기 중기부터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던 사카이(坂井), 교토, 나라의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서 대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다이묘와 승려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⁷⁾

1568년 교토에 입성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는 교토 귀족에게서 느꼈던 문화적 열등감을 경제력으로 과시하기 위해 다도를 활용하였다. 그는 이마이 소큐(今井宗久), 쓰다 소큐(津田宗及), 센 소에키(千宗易) 등과 함께 차 도구를 수집하고 잦은 다회를 열며 다도에 심취하였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의 다도를 관장했던 센리큐는 아츠치 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에 사카이에서 태어난 다인으로 처음에 기타무키 도친(北向道陳)에게 다도를 배웠으나, 그 후 다케노 조오에게 사사받았고, 교토의 다이토쿠지(大徳寺)에서 선(禪)을 배웠다. 그는 다법을 정리하여 초암풍의 다실을 완성하였으며, 다도를 민중생활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센리큐의 다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와 각별한 인연을 맺으면서 더욱 체계화되었고, 와비차의 형식으로 완성되었다. 와비차는 단지 형식에 국한된 의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순수한 경지를 중시하는 선에 기반을 두었다. 리큐는 와비의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거친 황토를 바른 좁은 다실 다이안(待庵)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무라타 슈코의 와비차 방식은 전국 시대에 들어와 사카이 출신의 센리큐에 의해 집대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갖추어진 양식은 약간의 개량을 거쳤으며, 센리큐 사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 현재 일본 다도의 3대 유파인 오모테센케(表千家), 우라센케(裏千家), 무샤노코지센케(武者小路千家)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¹⁹⁸⁾

197)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문학사상사, 2003, pp. 230~231.

198) 千宗室, 『裏千家茶道のおしえ』, 일본방송출판협회, 2004, pp. 311~312.

7) 에도 시대의 차문화(1603~1867)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의 승리로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1603년 세이이타이 쇼군으로 취임하면서 에도에 막부를 열었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04~1651) 시대에는 막부정치가 확립되었고, 문화적으로 정점을 맞이하였다. 17세기 전기에 꽃을 피운 문화는 이에미쓰의 연호를 따서 강에이(寬永) 문화라고 불렸다. 강에이 문화는 막번 권력의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 아래 꽃을 피웠다. 문화 담당자는 무사였던 교토의 상류층 조닌(町人)이었는데, 세련된 왕조풍의 문화로 중세 이래 요리아이(寄合)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천황, 공가, 무가, 승려, 상공인 등이 몇 개의 모임을 형성하면서 교류를 활성화하였다.¹⁹⁹⁾ 이는 무사와 귀족, 그리고 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각지의 조카마치(城下町)²⁰⁰⁾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상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활발한 조닌문화(町人文化)²⁰¹⁾가 전개되면서 귀족문화와 무가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었다.

이 시기에 차문화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목격되었다. 리큐 이후 에도 막부의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 1544~1615)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기며 다이묘로 성장하였다. 그는 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센리큐의 제자가 되어 다인으로서 명성도 얻었다. 그는 에도 막부의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나(德川秀忠 1605~1623)를 비롯한 여러 다이묘에게 다도를 지도하였으며, 다구 제작에도 힘썼다. 그가 제작한 도예품은 일그러진 비대칭의 미의식을 가미하였다. 오리베 사후 혼아미 고에쓰(本阿彌光悦, 1558~1637)는 다도의 애호가로서 도예에 독창성을 발휘하였고, 라쿠 다완을 만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였다. 그는 화가·서예가·도예가·도검감정가·조경가로서 금속과 자개를 독창적으로 상감하였고, 도안을 대담하게 적용하였으며, 칠을 혁신하여 일

199) 구태훈, 『일본문화사』, pp. 276~277.

200) 무로마치 시대 이후 무장이나 다이묘의 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무사집단과 상공업자들이 모여들면서 생긴 마을이었다.

201) 에도 시대에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를 가리켜 조닌이라 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문화를 조닌문화라 하였다. 조닌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에도 도시문화의 중심 존재가 되었다.

본 칠계의 거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현란하고 창조적인 칠기 작품을 최초로 만든 장인으로 간주되었다. 고에쓰의 화법에서 영향을 받은 다와라야 소다쓰(俵屋宗達)는 야마토에(大和繪) 풍의 우아한 소재를 대담하고 부드러운 구도와 색채로 그려 참신한 장식 회화를 낳았다.²⁰²⁾ 또한 17세기 전기에 이르러 무가와 상류층 조닌 사이에 차문화가 유행하였다. 후루타 오리베의 제자 고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와 세키슈(石州, ?~1606)는 각각 다도의 다른 유파를 열었다. 특히 고보리 엔슈는 평안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레이스키(奇麗數寄)²⁰³⁾ 미의식을 추구하였다.²⁰⁴⁾

엔슈는 고전에도 조예가 깊어서 「기레이사비(きれいさび, 밝고 조용한 고보리 엔슈의 다풍)」를 노래하였고, 세키슈의 「세키슈 삼백개조」를 만들어 막부의 다도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그 문화에 많은 유파를 생성하였다. 한편 센소탄(千宗坦)은 다선일미를 강조해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와비차를 주창하였고, 스스로는 영주를 섬기지 않고 일생을 청빈하게 살면서 '거지 소탄'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하치죠노미야(八條宮) 토시타다친왕(智仁親王, 1620~1662) 등 궁정의 귀족계층과 교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 아들 소슈(蘇州), 소사, 소시츠(宗室)과 고제인 야마다소헨(山田宗徧) 등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등 일본 다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센케류를 확장하는 기초를 다졌다.

오늘날 일본다도의 중심을 이루는 센씨 가문의 다도는 리큐 사후 그의 아들 쇼안과 손자 소탄을 거쳐 소탄의 자손에게 계승되었으며, 소시츠가 우라센케(裏千家), 소사가 오모테센케(表千家), 소슈가 무샤노코지센케(武者小路千家) 등의 다도가문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다맥(茶脈)을 이어 리큐의 다도를 지켜가고 있다.

강에이 시대에 다도는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자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많은 다기들이 생산되었다. 비젠(備前), 시가라키(信樂), 이가(伊賀), 세토(瀬戸), 미노(美濃) 지역에서 시대의 기풍을 반영한 다기들이 생산되었다. 이때 고급 다완으로는 주로 조선의 도자기들이 사용되었다.

202) 구태훈, op. cit., pp. 280~283.

203) 강에이 문화를 상징하는 미의식으로 균형과 우아함과 가냘프고 맵시 있는 섬세한 디자인의 아름다움이었다.

204) 오카쿠라 덴신, 정천구 옮김, 『차의 책』, 산지니, 2009, p. 98~107.

한편 당시의 다이묘들을 중심으로 귀족과 무사, 서민들도 차문화를 즐겼는데, 이로 인해 차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차의 재배 및 생산도 증가하게 되었다. 차의 종류와 산지에 대한 기록은 1697년 발간한 히도미(人見必大)의 『본조식감(本朝食鑑)』을 통해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차를 삶아서 마셨으나 중구 이래로 멧돌에 갈아 낸 차(碾茶)를 상미(賞美)하고 있다. 멧돌에 갈아 낸 차는 성주 우치(城州 宇治)의 차가 제일인데 고을의 벼슬아치(縣史)와 간바야시(上林) 및 수십 집에서 차밭을 에워싸고 차를 따서 이것을 다스려 하쓰·무카시(礎石), 노찌·무카시(後昔), 이노·무카시(伊昔), 매손톱(鷹爪) 등의 이름을 붙여 이상한 맛을 자랑하고 있다. 교토, 에도의 저자에서 얻을 수 있는 멧돌에 갈아낸 차는 모두 우치에서 전송(傳送)하여 판매되는 것이다. 그 밖의 고을에서 멧돌에 갈아낸 차가 생산되는 곳은 전혀 없다. 생각건대 각처에서는 잎차를 널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치의 것이 가장 좋다. 예슈(江州)의 만도코로(政所), 기슈우(紀州)의 구마노(熊野), 순슈(駿州)의 아베(安部), 요슈(豫州)의 부도우보우(不動坊)와 사이고쿠(海西), 슈고쿠(中國)에서 나가 규슈(中九州)까지의 지방, 간도(江東)에서 난다. 에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잎차는 순슈, 신슈(信州), 고슈(甲州), 소슈(總州), 노슈(野州), 오슈(奧州)에서 난 것이다.”²⁰⁵⁾

이를 통해 고급차의 산지가 가마쿠라 시대의 도가노오에서 우지(또는 우치)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귀족 무사들은 잎차보다 말차를 즐겨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에도 시대에는 서구문물의 유입과 도시의 발전으로 새롭게 유예(遊藝, 유키이)가 문화의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유예는 조닌들에 의해 사교에 필요한 교양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놀이문화로 성장하였다. 차문화도 유예에 포함되면서 근세의 다양한 다옥(茶屋, 또는 차야) 문화가 발전하였다. 일본 찻집의 기원은 점다법이 유행했던 중세 후기 14세기 말이었다. 이때 찻집을 지칭했던 다옥은 15세기 초에 ‘한 사발에 일 전’이라는 의미를 지닌 ‘일복일전(一服一錢)’이란 용어로 등장하였다. 이 찻집의 매다 형태는 가게판매(見世賣), 입식판매(立賣), 좌식판매(座賣) 세 가지로 나뉘었다. 다옥은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에

205) 히도미(人見必大), 『본조식감(本朝食鑑)』; 김명배, op. cit., pp. 86~87에서 재인용.

해당하였고, 일복일전은 서서 판매하는 입식과 앉아서 판매하는 좌식 두 형태가 있었다.²⁰⁶⁾ 일복일전의 존재와 관련된 최초의 문헌은 1403년(應永10) 4월 『동사백합문서(東寺百合文書)』에 나타난 남대문 앞 일복일전 차상인 도학 등의 청원문(南大門前一服一錢茶商人道覺等連署條條請文)이었고, 이는 차 도구를 끓여지고 매다를 시행하는 이동 찻집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설이다. 최근 고야마 교코(小山京子)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위에 언급된 일복일전을 가게 형태의 찻집으로 보았고, 이 보다 이른 시기인 1395년(應永2) 『교왕호국사문서(教王護國寺文書)』 731 항소불작분지자전주진상(巷所不作分地子錢注進狀)에 나타난 ‘가라하시찻집(唐橋茶屋)’과 1385년(至德2) 기온사(祇園社, 기원사)에 지대(地子錢)로 180문을 낸 ‘찻집(茶)’에 관한 문헌을 발견함으로써 매다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음을 밝혀냈다.²⁰⁷⁾

이외에 하시모토 모토코(橋本素子)는 연구를 통해 영리를 위한 찻집 이외에 사원사회를 기반으로 종교적 장치의 하나로 나타난 비영리 찻집인 접대찻집(接待茶屋)의 존재도 고찰하였다. 이는 일본 차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주었다.²⁰⁸⁾ 일본 중세의 차는 공통적으로 신사와 사원을 참배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불(神佛)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한 잔의 차로 신불의 가호에 감화되었으며, 병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기원하였던 것 같다.²⁰⁹⁾ 따라서 매다가 행해지는 장소는 신사나 사원 문 앞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심과 사계의 명소, 그리고 드물게 배 위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세에는 신사나 사원참배가 오락화 되었던 까닭에 유흥성이나 오락성이 강한 찻집이 생겨나게 되었다.²¹⁰⁾

다옥의 종류에는 히키데차야(引手茶屋; 유곽에서 손님을 기루로 안내하는 다옥), 미즈차야(水茶屋; 길가에서 다탕 등을 제공하는 휴식 공간), 시바이차야(芝居茶屋; 극장에 부속되어 있으며, 관객을 안내하고 막간에 휴식, 식사, 그 외의 시중을 드는 공간), 스모차야(相撲茶屋; 씨름관에서 입장권, 식권, 선물 등을 판매하며 관객의 시중을 드는 업자의 조직), 료리차야(料理茶屋; 객실을 준비하고 주문

206) 川嶋將生, 『樂茶』, 茶湯繪畫資料集成, 平凡社, 東京, 1992, p. 188.

207) 小山京子 『中世京都庶民茶屋』, 洛北史學 6, 2004, pp. 103~107.

208) 橋本素子, 『中世茶屋』 洛北史學 11, 2009, pp. 1~19.

209) 家塚智子, 『中世茶屋考』, 立命館文學 605, 2008, p. 55.

210) 橋本素子, op. cit., pp. 1~19.

에 따라서 손님에게 요리를 제공하는 곳) 등이 있었다.²¹¹⁾ 이는 성(性)과 예능과 음식이 다양한 형태로 어울리는 유흥 장소였는데, 그 기능은 종래의 다실 개념과 다른 대중화된 놀이문화의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일본 에도 시대의 시인이며 소설가로 일본 최초의 현실주의적 시민문학을 확립했던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는 단편집 『일본영대장(日本永代藏)』에서 당시의 차문화가 어떻게 퇴폐적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²¹²⁾

에도 시대 차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이에모토(家元, 면허증을 발급하는 자) 제도가 성립되면서 각 유파들은 교습생을 확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예능 교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문화는 더욱 예능화 되어 갔다. 또한 차문화는 유예(遊藝) 형태가 조성되면서 감상 위주의 문화로 형성되었으며, 본질을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문화로 변질되어 자연적 미보다는 인위적 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에도 시대 통치 철학이었던 주자학이 흥행하면서 차문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에도 시대 초기에 귀족과 무사 중심의 말차 문화에서 문인과 묵객 중심의 전다법(煎茶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 명나라에서 문인들의 취미인 포다법(泡茶法)의 방식에서 유래했는데,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는 18세기 초반 무렵에 잎차 사용법이 전다(煎茶), 팽다(烹茶), 엄다(淹茶) 3가지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센지차(煎じ茶)는 전다법이고, 센차(煎茶)는 포다법에 해당하는 엄다법(淹茶法)이며, 센지차와 센차 사이에 양쪽을 겸한 방법이 있다고 기술하였다.²¹³⁾ 이는 끓는 물에 잎을 넣고 곧 바로 불 위에서 다병을 내려놓는 팽차(烹茶)라 불리는 전다법과 포다법(泡茶法)의 양방을 겸한 방법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센지차는 잎을 끓이는 전다법에 의한 차이이고, 센차는 새롭게 등장한 포다법에 의해 잎을 우린 차였다. 일본에서 전차라는 글자를 읽는 방법이나 의미는 시대와 문헌에 따라 각기 달랐다. 헤이안 시대인 9세기에 나타난 전차는 당대 전다법과 같이 병차를 가루 내어 끓이는 차였으며, 12세기에서 16세기 중반 일본 중세(가마쿠라 시대~무로마치 시대)에는 병차 외에도 잎차를 끓이는 것 등을 전차라 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확실해졌다.

211) 山田新市, 『江戸茶』八坡書房, 東京, 2007, pp. 117~123.

212) Ibid., pp. 120~123.

213) 熊倉功夫, 『日本煎茶文化成立』, 緑茶通信 4, 2002, pp. 11~13.

에도 시대 초기 일본 다도는 이에모토(家元) 제도로 격식화되었고, 유예(遊藝)화로 비판을 받았다. 이때 일본의 황벽종을 개조한 인겐(隱元) 선사에 의해 전다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예능을 추구하는 다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에도 초기 서예가이며 시인이고 유학자였던 이시카와 조오산(石川丈山, 1583~1672)을 거쳐 에도 중기 황벽종의 승려 바이사오(賣茶翁) 고유가이(高遊外, 1675~1763)가 전다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바이사오에 대해서 오가와 고라쿠(小川後樂)는 “전차를 단순히 음료로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최초로 다룬 인물, 더욱이 당대 깍다 취미의 영향을 받아 헤이안 시대 이래 연계된 문아(文雅)의 소양을 지닌 깍다 취미의 부흥으로서 전차에 착안한 인물은 바이사오란 이름으로 오늘날 친숙해진 고유가이다.”²¹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바이사오는 『매다옹다구도(賣茶翁茶具圖)』에서 찻집의 이동이나 매다의 필요에 대해 장식성이나 과시성을 배제한 다법과 다구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그의 평범함과 소박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또한 그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다구를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처럼 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²¹⁵⁾ 『매다옹다구도』 그림 속 다구들은 대부분 현존 유물로 남아있다. 바이사오는 부패한 선승사회와 일본다도의 기만성을 비판하였으며, 외형을 중시하는 풍조를 경계하였다. 그는 전다도(煎茶道)의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차인 매다를 통해 차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으며, 센리큐의 정신으로 회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차를 통해 조주의 차를 계승하려 했다. 「매다구점 12수(賣茶口占十二首)」라는 시와 「통선정을 열다(揭通仙亭)」, 그리고 「우성偶成)」을 통해 그의 차정신과 다도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늘 깍다를 말하던 조주를 본받아왔네.
천년 쌓인 차는 사려는 사람 없구나.
만약 한 모금이라도 마시기만 하면
만점의 시름도 바로 내려놓을 수 있건만.”

頻喚喫茶效趙州 千年滯貨沒人求 若能一口喫過去 萬劫渴心直下休

214) 小川後樂, 『茶文化史』, 文一綜合出版, 東京, 1980, p. 288.

215) 末木文美士 堀川貴司, 『賣茶翁』, 江戸漢詩選 第5卷 僧門. 岩波書店, 東京, 1996, pp. 129~142.

- 「매다구점 12수 (賣茶口占十二首)」-

“풍로에 차를 끓여 오고가는 분에게 팝니다.
지나는 손님은 편히 차값 반전이면 된다고.
한 모금 마시면 마음까지 깨끗이 씻어지니
통선정 위에는 시름 잊게하는 편안함 있다네.”

石爐煎茗嚮來往 過客須知價半錢 一啜爲君洗心腑 通仙亭上樂悠然

- 「통선정을 열다(揭通仙亭)」-

“타고난 습성의 풍전이 세상과는 달라
매다로 생계를 이음이 기질에 맞구나.
마음 쉬니 맑음이 단맛보다 나아지고
만족 아니 헤어진 적삼도 비단옷이네.
새벽엔 달이 잠긴 정화수 길러 깊어지고
저물면 질술 메고 구름과 함께 돌아오네.
늙은 몸도 이러한 일을 하여 얻으니
세상 벗어나 소요하며 시비를 끊으리다.”

性癖風顛世上違 賣茶生計愜其機 心休冷淡勝甘旨 意足破衫齊錦衣 曉酌井華涵
月荷 暮挑瓦鼎帶雲歸 老身用得這般事 物外逍遙絕是非

- 「우성偶成)」-216)

바이사오의 매다 장소는 사원과 명소였다. 또한 그는 통선정(通仙亭)을 세워 그곳에서 차를 팔며 걸식과 보시를 실천하였다. 이후 그는 이동 차집으로 전환하였는데, 에도 시대의 차집문화가 도심을 중심으로 오락성과 유희성을 띤 반면, 그의 차집은 여전히 중세의 차집문화와 유사한 분위기와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도 시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대중들은 부초차나 일쇄차를 넣은 센지차를 주로 마셨으며, 1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중제전차를 선호하였고, 규쇼(急燒)와 같은 다관을 사용하여 전다법과 포다법을 겸

216) 田中樞治郎 編, 『賣茶翁偈語』 「賣茶口占十二首」, 花月菴藏版本, 大阪, 1928, pp. 1~22.

한 과도기적 음다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메이지 시대의 차문화(1867~1912)

가마쿠라 시대 이후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다도는 쇠퇴기를 맞았다. 일본이 근대국가로 탄생하면서 서구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고, 이는 기존 일본 문화의 공간을 흔들며 놓았다. 일본인들이 탈 아시아적 사고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생활모습이 바뀌었고 견당사 이후 거의 소멸되었던 유제품(우유)문화가 재도입되었다. 일본의 전통 차문화로 뿌리를 내렸던 말차문화는 시대적 사치성과 퇴폐성을 넘지 못하고 약화되었으며,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중국에 대한 동경심도 서구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에도 시대에 확산되었던 전다문화도 쇠퇴기를 맞았다.²¹⁷⁾ 일본의 다도는 거상과 무사 계급 등 일부 소수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권력 계층이 바뀌면서 다도문화도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의 차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약화되었다.

한편 1859년 일본은 처음으로 차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오우라노 오께이(大浦のお慶)가 6톤의 우례시노차(嬉野茶)를 나가사키에서 영국으로 수출하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1914~1919) 중 일본의 녹차 수출량이 늘어났으나, 종전 후에 다시 원상태로 환원되었다. 메이지 초기는 다도의 침체기였으나, 메이지 중기는 다도의 부활 시기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일본 민족주의(nationalism)가 발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각과 차문화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다도의 후원자였던 다이묘 대신 재계(財界)의 거물들이 다도에 참여하고 후원하면서 다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²¹⁸⁾

명치(明治) 20년(1887) 재계를 중심으로 일본 다도는 서서히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재계 인사들은 미술품 수집에 앞장섰으며, 스키샤(數寄者, 수집가)들은 다회를 열었고, 이를 자신들의 소장품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남북조 시대의 바사라 다이묘들이 중국 명물을 수집하였던 식견과 안목들이 축적되면서 정착되었던 문화적 분위기를 계승한 것이었다. 문화적 안목을 지닌 풍류가였던 스

217) 구태훈, 『일본근세·근현대사』, p. 278.

218) 김명배, op. cit., pp. 111~112.

키샤들은 예술품뿐만 아니라 차문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867년 왕정이 복고되면서 천황은 동경에서 다이시카이(大師會), 교토에서 고에츠가이(光悅會)를 개최하였다. 이후 소화(昭和) 10년대부터는 이에모도(家元)와 스키샤들에 의해 일본의 다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차문화는 서구 문명을 수입하면서 실용성이 중시되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법에 따라 다양한 다도가 행해졌다. 이는 차문화가 종전의 학습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지닌 자들의 미술품이나 차도구 수집 등 신분 과시의 장으로 변화된 취미 지상주의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들은 다회를 포함한 전통적 유예문화를 근대적인 취미문화로 재편성하여 고도의 지적 놀이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수집한 예술품들을 대중들에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술관의 탄생이었다.²¹⁹⁾ 1940년에 개관한 네즈(根津) 미술관, 이후 후지타(藤田) 미술관, 이즈오(逸翁) 미술관, 고토(五島) 미술관, 하타케야마(畠山) 미술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또한 메이지 시대로 접어들자 새로운 방식의 다도문화가 수립되었다. 우라센케 제11대 이에모토 겐겐사이(玄玄齋)는 다다미에 무릎을 꿇고 행하던 다도 방식에 머물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는 류례식(立禮式)을 창안하였고, 그 후에 학교 교육이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 차문화를 해외로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의 차문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²²⁰⁾

2. 일본 정원문화의 발전 과정

일본의 정원문화는 자연적 환경, 종교적 배경, 정치적 후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시기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정원문화를 역사적·종교적으로 고찰해볼 때, 일본의 정원은 7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중국문화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백제, 신라, 당, 발

219) 구태훈, op. cit., p. 385.

220) 김명배, op. cit., pp. 113~114.

해의 정원문화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정원은 귀족, 승려, 무사 계급들이 주도적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일본의 정원이 종교적 목적과 사회적 신분 과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심미안과 미적 감각 재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원의 발전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는 당시의 문화적 경향과 정신적 의식, 그리고 종교적 특색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일본 정원문화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일본의 정원문화(594년 이전)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정원 형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갈을 이용해서 자연 한가운데에 작은 표식을 남겨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²²¹⁾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정원 양식은 오래된 건물 주변이 넓게 자갈로 둘러싸여 있는 이세 신사(伊勢神寺) 등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6세기 이전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일본서기(日本書記)』에서 리츄(履中) 천황 3년(402), 켄조(顯宗) 천황 원년에서 3년(485~487), 부레쓰(武烈) 천황 8년(505)에 관한 부분이었다.

6세기경 다양한 중국문화의 도입과 불교의 유입은 일본식 정원의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정원은 귀족과 왕의 유희를 위해서 주로 궁내에 지어졌다. 이들은 불교와 도교의 요소를 포함한 연못과 개울을 중심으로 유명한 경치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2) 아스카 시대의 정원문화(593~622)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인 백제의 성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때, 정원을 조성하는 기술과 문화에 있어서 한반도의 문화가 전래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일본서기』에 스이코(推古) 천황 20년(612) 백제로부터 온 장인이 황

221) 이와테(岩手)현 가바야마(樺山) 유적, 미에(三重)현 시로노코시(城之越) 유적, 나라(奈良)현 스야마(嵯山) 고분, 군마(群馬)현 하치만야마(八幡山) 고분 등이다.

거의 남정에 수미산(須彌山)과 오교(吳橋)를 만들었다고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²²²⁾ 그리고 스이코 천황 34년(626)에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가 저택의 정원에 작은 연못을 파고 그 위에 섬을 쌓았다고 해서 도대신(嶋大臣)이라고 불렸다는 기록도 있다.²²³⁾ 아스카 시대 정원의 모습은 『만요슈(萬葉集)』에 구사카베(草壁) 황자의 도궁(嶋宮) 모습을 전하는 노래에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는 ‘섬의 황기(島의 荒磯)’²²⁴⁾, ‘동룡의 어문(東瀧의 御門)’, ‘과도치는 암초와 포구를 둘러싼 바위 진달래’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도궁의 정원이 자연경관을 모방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스카 시대의 정원 연못은 방지형(方池形)이거나 원형 혹은 방형(方形)의 작은 연못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기하학적인 곡지형(曲池形)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아스카 나라 시대의 정원들은 고고학적인 발굴로 확인되었다.²²⁵⁾

3) 나라 시대의 정원문화(710~794)

나라 시대에는 연못의 형태가 곡지형으로 변모하였으며, 연못가는 복잡하게 굽어 있는 자연풍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대에는 바다나 강의 스하마(洲濱) 식²²⁶⁾으로 호안을 만든 연못이 등장하였으며, 수심도 전체적으로 얇게 조성되었다. 중국 북위 시대의 정원도 곡지형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양현지(楊銜之)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원문화가 일본에 유입되어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곡지형 연못 형태를 받아들여 일본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일본의 정원문화에는 자연풍의 디자인을 즐기고 그것을 일본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일본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런 형태는 나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222) 『日本書紀』推古天皇二十年(612), “是歲, 自白濟國有化來者. 其面身皆斑白, ……(이하 생략)”

223) Ibid., 推古天皇三十四年(626), “家於飛鳥河之傍. 乃庭中開小池, 仍興小嶋於池中, 故時人曰嶋大臣”

224) 황기(荒磯)는 해식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해안의 벼랑이나 급경사면이 바다에 직접적으로 닿아 암초가 많은 곳을 의미하였다.

225) 다카세 요이치, 나카 다카히로, 박경자 역, 『일본의 정원』, 학연문화사, 2013, pp. 13~33.

226) 스하마(洲濱)는 조류에 의해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가 발달해 곡선을 그리며 들쭉날쭉하게 된 해변을 의미하였다.

4) 헤이안 시대의 정원문화(794~1185)

헤이안 시대에는 헤이안쿄를 중심으로 궁전이나 귀족의 저택 및 별장에 수많은 정원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 시대에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였으며, 작품 속에는 정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귀족들이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귀족들은 자기의 궁이나 건물에 신덴즈쿠리(寢殿造) 정원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회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거대한 정원을 조성하였다. 신덴즈쿠리 정원은 일본 고전인 겐지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었다.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는 정원문화를 통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전통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귀족계층들은 신덴즈쿠리 양식의 사치스런 저택과 정원을 조성하였다. 신덴즈쿠리 양식은 수로를 파고 야리미즈(遣り水)라고 불리는 개울이 건물과 저택의 정원 사이로 흐르게 했던 양식이었다. 이러한 후나 아소비(船遊び) 형식의 정원에는 종종 배를 탈 수 있는 큰 타원형의 연못이 있었다. 물위에 설치된 천막건물이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택의 다른 건물들과 통하는 통로도 있었다. 주 건물과 연못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어 의식행사를 치르기 좋은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공간은 각각 자기 위치에서 다른 경치를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슈유(周遊) 양식의 산책정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산책정원은 종종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의 사찰이나 큰 저택에 조성되어 있었다.

헤이안 전기(794~930)에는 천황의 세력이 강화되었고, 당나라의 문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정원은 중국풍의 정원으로 커다란 연못과 아래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지어진 다리가 연결되는 섬이 빠지지 않았다. 자갈로 뒤덮은 마당은 주로 연회를 위해 사용되었고, 탑은 물가에 세워졌다.

헤이안 중기(930년 경~1050)에는 천황의 세력이 쇠퇴하였고, 관백(關白)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 문화는 중국 당나라의 문화에서 국풍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건축은 신덴즈쿠리 양식이 정착되었고, 정토종의 불교 유파가 유행하였다. 헤이안 중기 이후 정토 신앙이 보급되자, 당시 귀족들은 극락정토에 더 가까이 가려는 염원으로 자신들의 공간에 극락정토를 만들려고 하였다. 극락에 대한 믿음이 확산됨에 따라 정원들도 불교의 경전이나 책자에 묘사

된 정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대 일본정원의 중요한 소재이자 사상적 결정체가 되었다. 이러한 양식의 정원은 주로 중앙의 섬과 연결된 아치형의 다리가 있는 연못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헤이안 후기에 정토종이 널리 퍼지면서 건물과 정원의 신덴즈쿠리 양식이 불교사원에 채택되었다.²²⁷⁾

우지의 묘도인 정원은 정토형식의 대표적 예로 간주되었다. 이 사찰은 한때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8)가 정권을 잡은 후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지은 자신의 집이었다. 묘도인은 정토정원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그 특징은 남쪽으로 낸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큰 연못에 무지개 모양으로 걸려있는 홍예교를 건너 연못 한가운데에 있는 큰 섬을 지나서 불당으로 들어가도록 길이 이어져있는 독특한 양식의 정원이었다는 점이다. 상류층들이 정원에 흥미를 가진 까닭에 정원들은 수많은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타치바나 토시즈나(1028~1094)가 쓴 『사쿠테이키(作庭記)』였다.²²⁸⁾

헤이안 후기(1050~1185)는 원정기로 천태불교와 진언불교가 성행한 시기였다. 헤이안 시대 후반으로 들어서면, 예술가들이 불교의 극락세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당시의 정원들도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양식으로 지어졌다. 신덴즈쿠리 정원과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진 정원들은 섬과 연꽃이 있는 커다란 연못과 아름다운 탑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원의 불당 앞에 만들어진 정토정원 우지의 묘도인과 히라이즈미의 모츠지(平泉 毛越寺)에는 대부분의 극락정원의 요소가 남아있었다.

헤이안 시대 정원은 매우 섬세하고 우아하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일본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연못은 스하마가 기본이었으며, 연못바닥에 자갈을 깔지 않고 사면에만 자갈을 깔 것이 특징이었다. 연못의 평면 형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연못 속에 섬을 만들어 연못가에서 섬을 경유하여 대안에 이르는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연못의 급수는 흐르는 물을 집안으로 끌어들이 흐르게 하는 야리미즈(遣り水) 형식을 취하였고, 드문드문 경석을 배치하였으며, 돌을 세워 폭포를 조성하였다. 연못 근처에 낮은 건물을 세우는 방식과 이를 연못을 감상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방식은 일본 정원건축의 한 양식으로 정착되

227) 폴 발리, op. cit., p. 226.

228) 다치바나노 도시즈나, 다케이 지로, 마크 킨 주해, 김승운 옮김, 『사쿠테이키』, 연암서, 2012, p. 97.

었다. 오늘날 원형이 남아있는 신덴즈쿠리 정원의 흔적은 교토의 다이카쿠지(大覺寺)에 있는 오사와(大澤) 연못에서 찾을 수 있다.

5) 가마쿠라 시대의 정원문화(1192~1333)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귀족계층은 세력을 잃었던 반면, 무가정권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정치의 중심지는 가마쿠라였으나, 문화의 중심지는 여전히 교토였다. 따라서 정원도 헤이안 시대의 신덴즈쿠리 양식이나 정토식 정원을 답습하였다. 연못의 평면이나 석조는 헤이안 시대보다 복잡하고 정교해졌으며, 조그만 바위는 거대한 바위로 대체되었다. 가마쿠라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중국 선종의 영향을 받은 무사계급이 등장하였다는 점과 주택과 정원의 양식이 변화하면서 중산층 문화가 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었다. 이 시기에 중산층은 정원에서 화려한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집안에서 정원을 감상하는 것을 더 즐겼다. 따라서 정원도 그들의 시각적·미적 요소를 중시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에 조경사와 이시타테소(石立僧)라는 바위를 배치하는 정원사가 등장하였다.

12세기 말에 선종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선종 사원의 건축과 정원의 양식도 함께 전해졌다. 선종에서는 설법보다는 좌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나 장식의 사용은 절제되었다. 화려함보다는 유현(幽玄)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돌이었다. 돌을 감상하는 취미는 이 시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독특한 모양을 지닌 돌을 조합하여 만든 정원은 독특한 미의식에서 나온 세련된 정원 양식이었다.²²⁹⁾ 이때부터 정원은 연회의 목적보다 절에서 지내는 수도승의 명상과 종교적인 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절 근처에 인공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선종사원의 건축양식이나 정원은 선종 도입 후 1세기가 지난 뒤에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일본 가옥의 원형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승려는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였다. 그의 많은 작품들 중 교토에 있는 사이호지(西方寺) 정원은 이끼 낀 돌이 주는 그윽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여 선종의 세계관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간주되었다. 이 정원은 이후의 정

229) 풀 발리, op. cit., p. 227.

원 양식과 문화콘텐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정원은 전형적인 산책 형식의 정원으로 배경 산을 이용하여 연못이 자연적으로 조화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사이호지는 자연의 지형을 활용하거나 넓은 연못을 조성하여 극락정토를 연상하게 하는 정토풍의 정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모든 장식을 바위, 자갈, 그리고 모래로만 표현한 선종정원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 정원은 가레산스이(枯山水, 돌과 모래로만 산수를 표현한 정원) 정원이었다. 사이호지 정원처럼 흰모래를 구성요소로 한 가레산스이 기법을 구사한 정원은 세키테에(石庭) 정원이라 불렸다. 대표작은 천용사의 선원에 있는 쇼인의 정원이었다. 이 정원은 흰 모래나 자갈로 흐르는 물을 상징하였으며, 당시의 많은 정원이 이 형태를 모방하였다. 특히 료안지(龍安寺), 다이토쿠지(大徳寺), 덴류지, 고게데라 등 교토의 대표적인 정토종에 속하는 절에서 목격되었다. 더 오래된 곳은 즈이센지와 겐초지와 같은 초기의 선종 정원인데, 대부분 가마쿠라 시대에 조성되었다.²³⁰⁾

6) 무로마치 시대의 정원문화(1333~1573)

일본정원의 황금기는 무로마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정원양식은 중국의 수목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센즈이 카와라모노는 산과 도랑, 그리고 강바닥을 조성하는 숙련된 장인집단이였다. 이들은 가레산스이(枯山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의 정원을 만들었다.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원들은 매우 추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바위들은 산과 폭포를, 흰모래는 유수를 표현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가레산스이 형식의 정원은 민둥산과 강바닥을 그린 중국 수목 풍경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 예는 교토에 있는 료안지와 다이토쿠지의 바위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15개의 바위와 평지의 흰모래로 꾸며진 료안지의 정원은 평지정원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되고 있으며, 바다, 호수, 연못 등을 주제로 돌, 나무, 석등, 물동이, 우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397년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세운 킨카쿠지(金覺寺) 정원은 국가 특별사적 및 특별 명승지로 분류될 만큼 유명한 정원이었다. 킨카쿠지 연못인 경호지(鏡湖池)를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아시하라시마의 섬과 작은 섬들로 조성된 정

230) 박경자, op. cit., p. 63.

원은 무로마치 시대의 대표적 정원양식이었다. 요시미쓰는 교토의 기타야마(北山)에 금각을 짓고,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부터 미술품을 수집하였으며, 무용과 연극 공연으로 활기차고 사치스런 연회를 개최하였다. 긴카쿠지는 사치스런 귀족 문화에 대한 사무라이의 동경이 농후하게 배어있는 정원이었다. 14세기 말 요시미쓰에 의해 주도된 이 문화는 기타야마 문화라 불렸는데, 무로마치 문화의 결정체로 간주되었다.²³¹⁾

14세기말부터 대사원의 선승들을 중심으로 문학이 발달하였으며, 또 중국의 송나라에서 수목산수화가 전해져 귀족들도 함께 어울려 시가를 지어 부르는 모임인 시회가 자주 개최되었다. 시회를 여는 장소로 선사의 사원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로 인해 사원이 딸린 정원의 조경 양식이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히가시야마 문화의 꽃인 긴카쿠지(銀覺寺)는 긴카쿠지를 참고해 비슷하게 지었다. 긴카쿠지 누각 앞에 있는 모래 정원은 긴사단(銀沙灘)이라 하였으며, 정원 한쪽에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모래더미는 달빛이 반사되도록 만든 구조물이라 하여 고게즈다이(向月台)라 하였다. 고게즈다이는 밤에 하늘의 달빛과 모래더미에 반사된 땅의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었다.

요시마사는 자신의 권력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시절의 안타까움과 권력의 무상함을 잊기 위해 승려와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통해 고도로 세련된 예술세계를 구현하였다. 긴카쿠지는 그가 구현한 예술세계의 걸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긴카쿠지는 무로마치 시대의 모든 예술 속에 담겨있었던 신비적이고 내성적이며 오묘한 특성을 잘 표현해주었다. 긴카쿠지는 1482년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은퇴한 후 살저택으로 지었다. 그는 1483년부터 여기에 기거하였으며, 1485년 선종으로 출가한 후 승려가 되었다. 그는 1486년 정원의 북쪽에 도큐도(東求堂)을 세웠고, 그곳에 도진사이(同仁齋)라는 다실을 설치하였으며,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였다. 그리고 동구당 앞 긴쿄지(錦鏡池) 연못과 주변 정원들을 관음전 앞까지 조화롭게 이어지도록 조성하였다. 하지만 당시 오닌의 난이 발생하여 교토가 파괴되고 물자조달이 어려워지자 건물 전체를 덮을 만큼의 은을 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결국 긴카쿠지는 은 대신 옷칠로 마감

23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양으로 읽는 일본사회와 문화』, 제이앤씨, 2010, p. 83~87.

되었으며, 검은 색을 띤 미완성의 건축물로 마무리 되었다.

긴카쿠지의 정원은 암석 2, 3개를 조합하여 폭포를 표현하였으며, 모래를 깔아서 시냇물이나 바다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흙이나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자연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정원들은 쇼인즈쿠리(書院造り) 건축양식이 도입되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정원에는 도쿄노마(床の間), 치가이다나(違棚, 흔들이는 선반), 그리고 후스마(襖, 종이 미닫이문) 등이 조성되었다. 쇼인즈쿠리 양식의 건축물이나 정원에는 감상과 관조를 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정원에는 연못, 섬, 다리, 폭포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이 조성되었지만, 그 크기는 작아지고 단순해지기 시작했다.²³²⁾

료안지(龍安寺)는 1450년에 호소카와 가쓰모토(細川勝元, 1430~1473)가 이곳에 살던 귀족 후지와라의 별장을 개조하여 만든 선종 임제종 사찰이었다. 여기에는 가레산스이 양식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돌과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정원으로 돌은 섬을 뜻하고 모래는 바다를 뜻했다. 가레산스이 정원은 15세기 선종 전파와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5개의 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5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배치하였으며, 돌의 모양, 크기, 배치를 통하여 우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15개의 돌을 모두 다 볼 수 없었다. 15개의 돌 중 하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돌이었다. 이는 우주 전체를 불완전한 존재인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참선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광대한 자연을 좁은 공간에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자연과의 합일을 주창하는 선종의 정신과 합치되었다.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입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세숫물이 담겨진 돌그릇이 있는데, 이것은 츠쿠바이(蹲踞,蹲)였다. 웅덩이의 낮은 위치 때문에 물에 닿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데, 이는 겸손과 경의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돌 표면 중앙의 口(구)자는 상하좌우의 五·佳·矢·疋 글자와 결합하여 呑, 唯, 知, 足 글자를 생성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오직 족(足)함을 알 뿐이다’라는 글귀²³³⁾가 되는데, 이는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인 반물질주의와 반세속주의 정신을 보강하기 위함이었다.

232) 박경자, op. cit., pp. 103~107.

233) 光村推古編輯部, 『京都 茶の庭』, 光村推古書院, 2007, p. 60.

7)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정원문화(1573~1603)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 시대에는 신성함을 중시하여 연못이 정원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무로마치 시대와 모모야마 시대와 같은 중세 말기에는 선종이 발달함에 따라 암석을 중심으로 만든 돌 정원인 세키테에가 유행하였다. 왜냐하면 선종의 기본정신인 허례허식 금지, 검소함, 그리고 소박함을 바탕으로 고도의 세련된 정신문화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인공적인 조경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옮겨 놓은 정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선종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원들이 다수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는 세 가지 형태의 정원, 즉 정토식 정원과 고산수 정원, 그리고 로지 정원이 등장하였다.

차정원(茶庭園, 차니와)은 다도 의식이 치러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차정원 문화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도의 대가들은 이곳에서 와비정신과 전원적 아름다움, 그리고 검소함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15세기 후반부터 교토와 사카이의 귀족이나 무사 또는 거상 등 부유계층들은 차를 마시고 차도구나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주객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다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회가 열리는 다실에 정원을 만들어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의 정원은 귀족들이 대저택 안에 다실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는 신덴즈쿠리 양식 정원의 전통과 쇼인의 새로운 정원 양식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합 양식으로 조성된 다실의 정원이 차정원 또는 로지였다.

차정원은 간단명료하며 실용적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놓여 있는 디딤돌은 다실로 이어졌다. 석등은 밤에 불을 밝힘과 동시에 정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와시 바신(츠쿠바이: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로 된 그릇)은 씻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었다. 비록 많은 차정원은 커다란 정원의 일부를 장식하는 형태로 흡수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일본 곳곳에서 많은 차정원이 목격되고 있다.

8) 에도 시대의 정원문화(1603~1867)

에도 시대의 정원은 무로마치 시대의 간소했던 정원 형식이 군주 등 귀족계층의 화려한 연회를 위한 거대한 정원으로 변모한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때의 정원은 대부분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으며, 연못, 섬, 다리, 길을 따라 걸으면서 다양한 각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인공 언덕 등도 조성하였다. 이 당시에 지어진 대부분의 정원에는 차 정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에도 시대 수세기에 걸쳐 생겨난 다양한 정원형태는 카이유(回遊) 형식이었다. 이 형식의 정원은 봉건영주를 위한 것으로 거대한 바위와 나무가 명승지의 경관을 재현하였으며, 사람들은 주변의 작은 정원을 걸어 다니며 중앙의 연못을 감상하였다. 에도 시대 초기에 축조된 교토의 가쓰라(柱) 별궁의 정원은 전형적인 카이유 형식으로 중앙에는 연못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차를 낼 수 있는 정자가 있었다. 교토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정원은 교토 천황궁의 정원이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정원은 연못 정원이라는 뜻으로 오이케 니와라고 불렸다. 이곳에는 몇 개의 작은 소나무 섬들이 있는데, 큰 연못들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본의 3대 정원으로는 고라쿠엔(後樂園), 가이라쿠엔(偕樂園), 겐로쿠엔(兼六園)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유 형식의 정원이었다.

1626년 막부로부터 에도 시내의 부지를 하사받은 영주 도쿠가와 요리후사(徳川頼房, 1603~1661)는 저택과 대규모 정원인 고라쿠엔(後樂園)을 조성하면서 명나라 주순수(朱舜水, 1600~1682)를 초빙하여 설계 자문을 받았다. 고라쿠엔은 중국적이고 유교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정원 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명승지를 본떠서 만든 산이나 언덕, 연못 등을 배치해놓았고, 연못 주위를 회유하면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라쿠엔 정원은 카이유 형식의 정원으로 호수의 섬에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7신의 사찰들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인도의 신 ‘벤자이텐’을 위한 작은 사찰이었다. 이 섬으로 통하는 석교(石橋)는 반원형의 모양 때문에 보름달 다리라고 불렸다. 물에 비친 이 다리의 모양은 완전한 원형이었다. 에도 시대에 건축된 하마(浜) 별궁의 정원은 호수 위에 3개의 다리가 놓여있었는데, 각 다리들은 등나무 덩굴로 덮여있으며 섬으로 통했다. 연못, 잔디밭, 승마장의 배치는 에도 시대 봉건영주들의 별장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오카야마(岡山) 현의 오카야마에 있는 고라쿠엔은 에도 시대 초기에

아카야마 번주 이케다 쓰나마사(池田綱政)가 조성한 겐로쿠(元祿) 문화를 대표하는 정원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라쿠엔은 1687년에 착공하여 14년 후인 1700년에 완성되었으며, 정원에는 연못, 샘, 회유식 정원 등이 조성되었고, 정원은 오카야마성과 그 주변의 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다.

가이라쿠엔(偕樂園)은 1842년 이바라키(茨城) 현의 미토(水戸)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에 의해 조성된 정원이었다. 정원에는 도쿠가와가(徳川家)의 다실로 사용되었던 고분테이(好文亭)와 토키와신사(常磐神寺)가 있었고, 100종 3000그루의 매화가 심어져 있었다.

겐로쿠엔(兼六園)은 이시카와(石川)현의 가나자와(金澤)에 있는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임천회유식(林泉回遊式) 대정원인데, 오늘날에도 그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겐로쿠엔은 본래 가나자와성의 외곽으로 성에 속한 정원이었다. 성에 면해 있는 경사지는 오랜 역사를 내포하고 있었다. 가가번(加賀藩) 제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 1643~1724)가 1676년 이 지방에 있었던 건축 작업장을 성안으로 옮긴 뒤 정자(亭子)를 지어 그 주위에 정원을 조성했다. 이후 여러 번천이 있었지만, 11대 하루나가(治脩)와 12대 나리나가(齊廣)는 연못을 개축하였고, 어전(御殿)의 축조 방식으로 정원을 조성하였으며, 1822년에는 호화로운 은거지인 다케자와 저택을 완공하였다. 이 정원에는 다쓰미(辰巳) 용수를 이용해 굽이굽이 흐르게 만든 곡수 위에 건축된 각종 돌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의 명칭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 이격비(李格非)가 쓴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의 한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시구에서 “멋진 정원을 만들어도 여섯 가지 경관을 두루 겸비하기는 어렵다”며 “웅대하고[廣大], 그윽하며[幽邃], 사람의 힘이 느껴지고[人力], 고색창연[蒼古]하되 수선(水仙)이 살 만한 선경[水泉]과 조망(眺望)”²³⁴⁾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에다 가문의 번주들은 170년간 대를 이어 정원을 건설하였으며, 그 여섯 가지를 두루 겸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겐로쿠엔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제13대 영주 나리야스는 저택을 허물고 큰 연못을 파서 넓히고 물이 흐르도록 새로운 곡수도 만들었으며, 이것이 이전부터 있었던 정자(렌치테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 전해오는 웅대한 회유식 정원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다. 번제도가 폐지된 후 1874년 5월 7

234) 김용안, 『키워드론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2009, p. 247.

일 겐로쿠엔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로지 정원의 대표작은 17세기 초기에 귀족의 별장으로 건축된 가쓰라이궁(桂離宮)의 정원이었다. 약 7만㎡ 넓이에 강물을 끌어들이 연못을 만들었고, 주위를 산보하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언덕과 건물을 배치하였다.

1695년 당시의 실권자 야나기사와 요시야스(柳澤吉保, 1658~1714)가 에도에 7년 동안 조성한 정원인 리쿠기엔(六義園)에는 쓰키야마(築山)와 연못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는 기슈(紀州) 와카에서 읍의 해변의 절경을 88경으로 묘사하였다.²³⁵⁾

17세기 중엽이 되면서 정원에는 많은 잔디들이 심어졌다. 이로 인해 자연석을 쓰는 기법은 많이 줄어들었다. 돌은 사석으로 간주되어 중요한 장소에 한 개만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방식이 널리 유행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원예문화가 등장하였다. 정원에 꽃을 심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예는 당시에 대유행하였다. 에도에서는 묘목 상인들이 화원을 개방하였으며, 에도 시민들에게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에는 미도의 가이라쿠엔(偕樂園)과 시라카와(白河)의 난코(南湖)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8세기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현상은 근대의 공원 개념 형성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산책 정원은 오늘날 도쿄 주변에 있는 예전의 성지 근처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츠보니와(坪庭)²³⁶⁾는 작은 정원으로서 시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작은 정원은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이나 작은 마당을 채울 정도의 작은 공간에 자연을 닮은 공간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명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받는 곳이었다. 크기의 제약 때문에 몇몇 요소로만 정원이 꾸며졌으며, 남들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츠보니와가 일반에게 공개된 경우는 거상들의 거주지에 조성된 정원의 경우였다. 츠보니와는 풍족한 공간을 사치스럽게 이용하는 정원이 아니라 작고 아담한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의 정원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형태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9) 메이지 이후 현대식 정원문화(1868~현재까지)

235) 구태훈, op. cit., pp. 284-285.

236) 츠보니와는 다다미 두 장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메이지 시대(1868~1912)는 급속한 현대화와 서구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서구식 도시 공원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산책 정원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서양의 정원양식이 전통 일본정원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잔디정원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당시에 조성된 정원에는 꽃밭이나 넓은 잔디밭 등 서양식 정원의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수도권 도쿄 근처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서양식 정원들이 조성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기요스미 정원과 도쿄 신주쿠에 있는 교엔(御苑) 국립공원이었다. 현대식 정원 디자이너들은 서양식 정원의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여 일본식 전통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예는 교토 도후쿠지의 선종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야산 곤고부지의 돌 정원과 마츠에 근처의 아다치 미술관도 서양식 정원의 요소가 가미된 일본식 전통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일본의 차문화에는 콘텐츠의 포괄성과 형식의 중후함, 그리고 풍요로운 미적 감각이 내재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단지 그 맛을 음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순서와 차를 접대하는 방식, 차 도구를 제작하는 방식들을 일정하게 정하고 각 단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실을 꾸미고 차 도구를 준비하여 차를 마시면서 다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전체 과정의 형식을 통틀어 다도라 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 불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선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본 다도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선종이 일본 차문화, 특히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선종의 영향을 받은 차문화와 정원문화가 어떻게 일본의 대표적인 차문화콘텐츠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일본의 차문화(또는 다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다실과 차 도구 등 물질적인 요소, 차를 마시는 방법 등 행위적인 요소, 그리고 다도에 관련된 미의식과 종교성 등 정신적인 요소이다. 일본의 차문화는 이런 요소들을 배우고 익히며 손님에게 차를 접대하는 과정을 즐기는 일종의 유희문화였으며, 세련된 의례로 전승된 전통적 예술문화였다. 일본의 다도는 유희문화와 예술문화가 결합된 일본의 대표적 문화였다. 일본의 다도는 다실 내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선택하여 손질하고, 다실 내부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화롭게 구성하며, 하나하나의 동작을 미적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도가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 구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정신적 활동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시대 의식을 반영한 다실문화

일본의 차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다실이다. 다실문화는 역사적으로 시대 의식을 반영한 공간문화였다. 엄숙한 분위기를 지닌 다실 속에서 차를 음미하는 일본의 다도는 일본인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대표적인 전통문화였다. 일본의 차문화사를 살펴보면, 일본에 대륙의 차가 전래된 시기는 나라 시대였다.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차는 에이사이에 의해 사찰을 중심으로 지배층과 승려들 사이에서 약용 또는 정신음료로 자리를 잡아갔다.

막부를 확립한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는 교토의 무로마치(室町)에 하나노고쇼(花の御所)라고 불린 화려한 저택을 세우고 이곳에 차와 관련된 카이소(會所)를 만들었다. 다회를 위해 준비된 넓은 방이었던 서원풍(書院風) 양식의 카이소는 점차 검소한 형태로 정형화되기 시작하였다. 넓은 공간이었던 카이소의 좌석배치나 화려한 장식기법은 소수를 위한 소박하고 단아한 도구들만 사용하는 장식기법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선사상이 차문화에 접목되면서 도입된 새로운 형식의 미의식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도보슈(同朋衆)였던 노아미(能阿彌, 1397~1471)에 의해 소박한 천목다완(天目茶碗)이나 시루기(汁器) 등으로 장식한 다구의 다이스가자리(臺子師)를 만들었고, 다구 감별법이나 점다법 등 다양한 차문화를 고안하였다. 이러한 차 도구 배열에는 당시 권력자였던

진언종 승려 만사이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일본 밀교의 일월천지우주(日月天地宇宙)라는 종교 사상이 자연스럽게 일본 다도 행위에 스며들었다. 이는 일본 다도가 선종과 밀교 양측의 정신과 사상을 융합한 형태로 정립되었던 과정으로서 오늘날 일본 다실 양식의 초석이 되었다.²³⁷⁾ 무로마치 시대에는 선종의 승려와 지배층(귀족과 무사계급) 사이에서 권력과 정신수양, 그리고 약용 등으로 마시기 시작했던 차가 일반대중에게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공간을 활용한 검소한 다실문화가 등장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6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 1394~1441)에 이르러 점다와 음다를 함께 행할 수 있는 공간인 차유노마(茶湯の間)라는 다실이 조성되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선종문화대신 귀족들의 가도문화(歌道文化)가 성행하고 있었다. 차스키(茶數奇)에서 보듯이 일본인들은 초기에 차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터득하는 정신수양을 관념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미적·예술적 물건 감상을 통한 감각적 유희 정도로 여겼다. 이는 다이코지(醍醐寺)의 산보인(三寶院)에 있던 만사이(萬齋, 1378~1435)의 『만사이쥬고우닛키(萬齋准后日記)』에서 엿볼 수 있었다. 『만사이쥬고우닛키』의 내용을 보면, 아시카가 요시노리가 시도한 좌석 장식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탄성을 자아냈으며, 그는 이에 감탄하여 28개 방에 1000여점에 이르는 차도구들을 장식하였다. 이 도구들 중에는 유적 천목다완(油滴天目茶碗)이나 송말원초(13세기 후반) 선승이며 화가였던 목계(牧谿, 1225~1265)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쇼군이나 권력가들이 많은 고가의 명품이나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현상은 대중문화가 귀족문화와 융합하는 시대에 등장한 모습으로서 서원다실(書院茶室) 문화의 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문화융합의 시대를 선도한 주역은 선종의 승려들과 남북조의 통일을 이끈 무사들이었다. 이 시기부터 무가문화와 귀족사회의 격식과 화려함을 갖춘 서원 차문화가 일정한 형식과 예법을 갖춘 다회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다도의 시조로 불리는 무라다 쥬코(村田珠光)는 이런 화려한 서원다실을 개혁하여 다다미 4장반의 초암(草庵) 다실을 만들었고, 대[台子]에 의한 진행초(眞行草) 다법을 정립하였다. 무라다 쥬코는 “벗짚으로 이은 집에 이름난 말을

237) Ibid. p. 69.

매어두는 것이 좋다(藥屋に名馬をつなぎたるがよし)²³⁸⁾라고 말했는데, 이는 초암의 자득 차를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가 말한 자득이란 모자람에 만족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무가 출신의 노아미의 다도가 엄격한 형식주의였다면, 무라타 슈코의 다도는 인간의 마음을 존중하는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다도였다.²³⁹⁾ 선승이었던 무라타 슈코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차문화가 선사상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무라타 슈코의 차문화 정신은 무라타 소슈(村田宗珠)에게 계승되었다.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카이의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유지되었던 차문화는 사카이의 거상이었던 다케노 죠오(武野紹鷗, 1502~1555)에 의해 무라타 슈코의 다도방식으로 더욱 간소화 되었다. 넓은 방인 서원에서 다회를 열었던 방식은 작은 방에서 한적하고 차분하게 와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초암의 다회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와비란 다인들이 다회의 공간을 보다 흥미롭고 진지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추구했던 미의식이었다. 와비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정취, 소박하고 차분한 멋, 또는 한거하는 상태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미적 감각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로 인해 작은 다실 속에서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 다케노 죠오의 일기일회(一期一會)²⁴⁰⁾ 다도윤리가 태어났다.²⁴¹⁾ 차문화에 더욱 선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다회는 더욱 간소화되었다. 이는 다회의 귀족적 요소와 서민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중용적 발전을 이룩했다는 의미이다.

다케노 죠오의 와비차는 이마이 소큐(今井宗久, 1520~1593)에게 계승되었다. 이마이 소큐가 활동했던 전국 시대에는 많은 차인들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차 도구 수집과 손님 초대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형식적 다회가 성행하였다. 하지만 다케노 죠오에게 사사받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를 관장했던 책임자 센리큐(千利休, 1522~1591)는 다케노 죠오의 와비차 정신을 계승하였으며,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에 접어들어 각지의 다도 예술을 통합한 새로운 다도를 완성하였다. 센리큐는 투박한 차도구와 초암다실로 와비차의 형식을 완성하였다. 이는 차도구의 간편화와 다회의 간소화를 의미하였

238) Ibid., pp. 70~71.

239) Ibid., p. 71.

240) 차 모임의 주인과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주인은 손님에 대해, 손님은 주인에 대해 일생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241) 공의식 외, op. cit., p. 222.

으며, 선사상에 기반을 둔 와비 세계의 실현을 의미하였다.

센리큐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를 관장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다도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과 간소함, 그리고 미의식을 추구하였다.²⁴²⁾ 그는 다케노 죠오가 와비차로서의 다도를 완성시켰던 종래의 다실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 간소한 다실을 창출하였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 사용했던 중국의 당물 중심 차도구를 일본산이나 조선의 투박한 다기(茶器)로 전환하였다. 이는 소박함과 간편함을 추구했던 당시의 와비차에 잘 어울리는 차도구로 받아들여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²⁴³⁾

센리큐의 와비차로 구현된 다도정신은 일본 다도의 본류를 형성하였다. 이때 차를 마시는 곳인 다실과 차도구인 다기, 그리고 선종의 정신문화 등이 융합되어 일본 다도가 정립되었다. 이처럼 센리큐에 의한 다도는 선사상에 기반한 와비 사상이었다.

전국 시대였던 당시의 아즈치·모모야마 문화는 웅장하였으며,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황금문화였다. 이는 이 시대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새로운 지배자들의 생활태도와 미적 감각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금다실은 과시성과 호탕함, 그리고 사치스러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의 지배자인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리큐의 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호화로운 황금문화를 즐겼다. 또한 이러한 다도는 다이묘와 상류계급 무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교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일반 대중의 사교 수단으로도 널리 보급되었다. 리큐의 초암다실과 히데요시의 황금다실은 일본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목격되고 있다. 두 다실이 지니고 있었던 사치스러운 다도와 조출한 다도의 모습은 양극단의 취향을 묘한 균형감각으로 유지하면서 일본 차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후의 모든 다도는 리큐가 전파시킨 다도를 바탕으로 리큐의 자손과 제자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 이처럼 무라타 주코의 와비차 방식은 전국 시대에 들어와 사카이 출신의 센리큐에 의해 집대성되었고, 이 시기에 갖추어진 양식은 약간의 개량을 거쳐 오늘날 일본 차문화로 전승되었다.²⁴⁴⁾

242) 김명배, op. cit., p. 73.

243) 구태훈, 『일본문화사』, p. 290.

244) 千宗室, 『裏千家茶道のおしえ』, 일본방송출판협회, 2004, pp. 311~312.

무로마치 말기 전국 시대에는 아즈치·모모야마 문화가 융성하였는데, 이 문화는 힘차고 웅대하였으며, 사치스런 금박을 입히거나 옷칠이나 붉은색을 칠한 장식의 건축물들이 등장하여 웅대함과 호화로움을 표현해 주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오사카성(大阪城), 주라쿠테이성((聚樂第城), 후시미성(伏見城), 히메지성(姫路城) 등이었다. 또한 이러한 성 안에는 호화스런 조각과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벽면의 미단이 문인 쇼지(障子)에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 그림은 쇼헤키가(障壁畫)라고 불렸다. 쇼헤키가의 특징은 웅장한 구조와 힘찬 필법을 사용했다는 점,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풍속과 산수를 소재로 하는 야마토에와 수묵화가 주류를 형성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일본 문화가 새로운 문화 조류에 순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²⁴⁵⁾

다도의 발전은 다실의 장식 등 차문화콘텐츠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다실을 장식하는 꽃꽂이가 발달한 것이 이케바나(生花)로 다화(茶花)였다. 다화는 간소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선적요소가 강조되었던 다실문화의 꽃이었다.

당나라에서 전래된 바둑과 장기는 오락으로 발전하여 전국 시대에 이르러 융성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서민들의 대표적인 오락인 스모(相撲)는 사원에서 진행되었는데, 신사나 사원의 건립이나 수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간진스모(勸進相撲) 형태로 자주 개최되었다.²⁴⁶⁾

(2) 검소함과 소박함과 예법을 중시하는 다실문화

오늘날 일본의 다실문화는 무로마치 시대에 만들어진 서원차(書院茶)의 다이스(臺子)를 이용한 다실 장식이 그 초석이 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 활동했던 다인들 중 중세 일본 다도의 기틀을 확립하고 발견시켰던 인물은 다케노 죠오와 센리큐 등이었다. 이들은 차문화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서원차와 초암차를 융합시켰으며, 이제까지 서로 다른 곳에서 행했던 점다와 음다를 특정한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립하였다. 천하제일의 종장(宗匠)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리큐는 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주인과 손님 모두가 대등하고, 서로 존경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정숙한 가운데 예의를

245) 폴 발리, op. cit., pp. 250~260.

246) 구태훈, op. cit., p. 271.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그의 차 마시는 방식은 다도로 정리되어 차의 정신문화를 고양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다도의 모습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모든 기본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와비차 다도정신은 일본 다도의 본류를 형성하였다. 센리큐는 다도가 지니고 있는 일상성과 검소함을 와비차의 다도정신과 예법으로 정립하였다. 그는 종래의 다실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 새로운 다실을 만들었으며, 조선의 투박한 다기를 와비차에 어울리는 차 도구로 받아들여 간편하고 소박한 차문화를 실행하였다.

한편 이 당시 다실 안에서 사용되었던 다기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라센케의 여러 건물들 중 한운정(寒雲亭)이라는 다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다실은 센리큐의 손자 센소탄이 세운 우라센케의 가장 오래된 다실들 중 하나인데, 그 외관과 분위기는 17세기 특유한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다실의 특징들 중 하나는 미적·예술적 의미를 지닌 천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천장은 엄격한 느낌의 진(眞)의 모양,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의 행(行)의 모양, 그리고 자유롭고 소박한 느낌의 초(草)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⁴⁷⁾

일본 다실은 작은 문을 이용해 출입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들어오면서 머리를 숙이고 엄격하게 예의를 지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차를 마시는 공간인 일본의 다실은 집안의 어떤 부분에도 종속되지 않은 단독적인 공간으로 건축되었다. 이는 다실이 집밖 마당에 세워졌다는 의미였다. 다실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구를 씻는 공간과 초대된 손님이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 그리고 로지(路地)²⁴⁸⁾라고 불리는 작은 길이 포함된 공간이었다. 로지는 다실과 손님이 기다리는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였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고 ‘니지리구(躡口)’라는 작은 문을 통과해야 하며,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낮추어 기어들어가듯이 다실로 들어가야 한다. 이 문은 다도의 독특한 양식인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60cm 정도였다. 이렇게 문이 작은 이유는 다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속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평등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²⁴⁹⁾

247) 폴 발리, op. cit., pp. 311~312.

248) 센 겐시쓰, 박전열 역, 『일본 다도의 마음』, 월간다도, 2006, p. 112.

다도의 예법은 주인이 우아한 찻잔에 좋은 차를 끓여 대접하는 방법과 이를 받아 마시는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구성되었다. 주인은 다다미 4장반이 기준인 다실과 다실의 정원인 로지를 비롯하여 차 마실 때 나오는 간단한 요리인 가이세키(會席) 요리와 차 도구의 준비 등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손님을 접대하는 정성이었다. 또한 손님은 다도의 예법에 어울리는 복장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 접대하는 정성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임해야 하는 자세였다.

다회 또는 다사는 주인이 다실에 손님을 모셔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다도를 즐길 수 있는 다실은 차를 마시는 공간과 차를 내기 위해 필요한 차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 그리고 좋은 이야깃거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포함하였다. 차인들은 언제라도 스승이나 제자 또는 벗을 초대하여 다실에서 다회를 열었다. 다회는 여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다음 일곱 가지 경우로 구분되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낮 다회로 정오에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곁들여 차를 마신다.

둘째, 밤 다회는 주로 겨울밤에 여는데, 이때는 긴 겨울의 정취를 이야깃거리로 삼아 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다회이다.

셋째, 아침 다회는 주로 여름날 아침에만 열며, 이른 아침에 느끼는 청량감을 맛보기 위하여 다실에 여름 꽃으로 꽃꽂이 장식을 하여 두고 여름 아침의 분위기를 이야깃거리로 삼는다.

넷째, 새벽 다회는 새벽 네 시경부터 동이 트는 풍경을 보면서 즐기는 다회인데, 동이 트는 동안의 맑고 신선한 정취를 이야깃거리로 삼는다. 손님들과 시간을 미리 약속해 둔다.

다섯째, 자취(自取) 다회는 다실에 신분이 높은 귀한 손님이 다녀간 바로 뒤에 손님보다 격이 낮아서 함께 차를 마실 수 없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귀한 손님의 체취를 느끼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다회이다. 비록 함께 차를 마시지는 못했으나, 그 손님이 다녀간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손님이 쓰던 차

249) Ibid., p. 109.

도구로 차를 마시며 그의 정취를 느껴 보기 위해서 여는 다회이다.

여섯째, 불시 다회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찾아 온 손님을 위하여 여는 다회이다. 이 경우에는 일일이 절차를 갖추지 못하며 손님도 이를 탓하지 않는다. 격식이 이미 어그러졌으므로 과격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다회이다.

일곱째, 개봉 다회는 그 해에 새로 딴 찻잎을 차 단지에 넣어 봉해 두었다가 십일월에 손님을 모신 자리에서 개봉하고, 그 자리에서 찻잎을 작은 맷돌에 갈아 차를 대접하는 다회이다.²⁵⁰⁾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고 그 자리에서 차를 가는 일은 그 손님에게 소중한 것을 접대한다는 정성의 표시였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은 시간과 시기와 장소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회를 열었다.²⁵¹⁾ 이 밖에도 특별히 손님을 한 분만 모시고 여는 독객(獨客) 다회, 손님이 식사를 하고 왔을 경우 다과만 내는 식후(食後) 다회, 밤새 다실에 피워 두었던 숯불의 타다 남은 불꽃 모양을 감상하기 위하여 아침에 손님을 모시는 ‘타다 남은 불꽃을 감상하는 다회’ 등 적절한 목적에 따라 다채롭고 다양한 다회가 개최되었다.²⁵²⁾ 이런 다양한 다도의 모습들은 일본 차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풍성함, 역사적 전통, 독창적인 예법, 정신적 검소함, 사회적 소통, 그리고 예술적 심미안 등을 대변해주었다.

일반적으로 낮에 개최하는 다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다회의 주인)은 손님들에게 초대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회 참석 여부에 대한 답장을 받으면 다회 준비를 시작한다. 다회가 열리는 날, 손님들이 약속한 시간에 다실 정원 입구의 대기실에 모이면 손님들은 한 사람씩 정객, 차객, 삼객, 사객, 말객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서 다실 안에서 앉는 자리와 차를 대접받는 순서가 정해진다. 손님들은 시간에 맞추어 바깥 로지정원에 도착하는데, 로지는 다회가 열리는 다실의 안쪽 정원으로 나무와 돌, 석등 등이 조성된 길을 말한다. 로지 길은 구부러지도록 만들어 그윽한 느낌이 들도록 꾸민다. 이 길을 지나 정원 한쪽에 준비된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주인이 맑은 물을

250) 일본 사람들이 다도에서 사용하는 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찻잎을 잘게 썰어서 말린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전차(煎茶)와 찻잎을 곱게 갈아 뜨거운 물로 거품을 일궈 마시는 말차(抹茶)이다. 말차는 진하게 타면 농차(濃茶)라 하였고, 얇게 타면 박차(薄茶)라고 하였다.

251) 이진수·서유선, op. cit., pp. 6~61.

252)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p. 171~173.

담은 통을 들고 나와 손 씻는 물그릇에 물을 채워 놓고 들어간다. 손님들은 일어나서 순서대로 손과 입을 씻는다. 손과 입을 씻는 것은 속세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인은 안쪽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눈다.

다실은 소박한 느낌을 풍기도록 꾸미는데 보통 이엉으로 지붕을 만들고 벽에는 흙을 발라 자연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하였다. 주인은 안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문으로 먼저 다실에 들어가서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손님들은 니지리구치라는 작은 문을 통해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낮추어 기어 들어가듯이 다실로 들어갔다. 이 문은 일본 다도의 독특한 양식으로서 다실 안의 평등과 동등, 그리고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실에서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았으며, 인간 본연의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모두가 평등한 관계로 임했다. 이는 일본 다회와 다실의 특징이었으며, 차에 대한 일본인들의 존경과 존중의 표현이었다. 일본인들이 몸을 최대한 낮추고 고개를 숙여 작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은 겸허한 마음으로 다실로 들어가야 하며, 다실 안에서 모든 인간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²⁵³⁾

다실 안으로 들어와 앉은 손님과 주인이 인사를 나눈 뒤, 손님들은 차례대로 정해진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다실의 위쪽 바닥은 한 층 높게 마루가 깔려 있는데, 도쿄노마(床の間)라고 불리는 곳으로 벽에는 족자를 걸었고 계절에 맞는 꽃을 꽂아둔 화병을 놓았다. 손님들은 도쿄노마 앞에 나아가 족자와 꽃을 감상한 후 화로와 술을 감상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이때 주인이 다구를 들고 화로 앞에 앉았다. 주인은 먼저 이로리(爐, 爐)라고 부르는 실내용 불박이 화덕에 숯불을 피우고 손님들은 숯불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감상하였다. 이때 주인은 향을 피워 정취를 북돋았다. 이어서 준비해 두었던 회석 요리(會席料理)²⁵⁴⁾를 내어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회석 요리는 잘 차린 풍성한 잔치 요리와 달리 시장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다. 회석 요리를 먹은 뒤 주인은 다과를 제공하였다. 손님들은 다과를 먹은 뒤에 로지정원을 걸었다. 이는 중간 휴식을

253) Ibid., p. 173.

254) 회석(會席)이란 본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선방에서 수행하는 젊은 승려들이 겨울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돌을 따뜻하게 데워서 품속에 넣어 허기를 잊으려 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석 요리를 먹을 때는 술을 곁들이는데, 술은 취기가 오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마신다.

위한 것이었다. 손님들이 나가서 쉬는 사이에 주인은 다실에 걸어 두었던 족자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꽃을 장식하고 차를 준비하였다. 준비가 끝나면 걸어 두었던 정을 쳐서 손님들에게 들어올 시간을 알렸다. 손님들은 다시 손을 씻고 차례대로 다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은 진한 농차를 대접하였다. 주인은 이 로리에 새로 솥을 얹어 불길을 다시 돋우고 다과를 낸 뒤, 부드럽고 강하지 않는 박차를 제공하였다. 차를 마시며 손님과 주인은 다담을 나누고, 시도 짓고 다회를 통해 느낀 소감을 말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다실에는 반드시 족자를 걸거나 꽃꽂이로 장식을 하였기 때문에 다실은 차를 마시는 공간이자 예술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다실은 일상생활과 예술 세계를 연결하는 완충 지대였는데, 다실에서는 번잡한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 해방된 예술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²⁵⁵⁾

보통 다회를 한 차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네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손님의 수는 다섯 명을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섯 명이 넘게 되면 이야깃거리가 분산되거나 손님들이 편을 갈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회에서 무엇을 이야깃거리로 삼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다케노 죠오는 “다실에 들어오면 세속적인 잡담은 금한다.”²⁵⁶⁾고 했다. 다실에서는 차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이상적인 대화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다실에서의 풍류를 즐겼다.

센리큐는 『남방록(南方錄)』에 다실을 만드는 법, 차 도구를 만드는 법, 차 도구를 배치하는 법, 그리고 차를 대접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센리큐의 다도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센리큐에게 로(爐)를 쓸 때와 풍로(風爐)를 쓸 때, 즉 여름 다회와 겨울 다회에서 각각 주의해야 할 점과 비결을 가르쳐주라고 했다. 센리큐가 대답하기를 ‘여름에는 아주 서늘하게,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해야 좋다. 솥은 물이 알맞게 끓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비결의 전부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물었던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어 ‘그 정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라고 하자 센리큐는 ‘그렇다면 자네가 내게 이런 마음을 담은

255) Ibid., p. 174.

256) 다실에서는 돈, 남녀 관계,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차를 마시게 해주게. 내가 손님으로 차네의 제자가 되어 보겠네.’라고 했다.”²⁵⁷⁾

센리큐는 계절에 맞는 다회의 공간, 도구, 차 등을 구별해서 써야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소박한 다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다. 이를 통해 그의 미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일본 다실의 크기는 다다미 4장 반 정도였다. 작은 규모의 소박한 다실은 『유마경(維摩經)』에서 인용한 전통이었다. 인도에 유마라는 신앙심이 두터운 거사가 있었는데, 그의 거실 크기는 다다미 4장 반 정도로 매우 좁았다. 그런데 유마 거사는 이 작은 공간에서 문수보살과 수많은 제자들을 맞이했다. 이는 진정한 도를 깨우친 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²⁵⁸⁾ 이처럼 일본 다실은 다도만을 위한 독립적인 소박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으며, 자연과의 조화는 기본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다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간과 재료, 그리고 다도에 대한 미적 세계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차를 통해 일체가 되는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일본의 다실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한 가지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과 철학과 사상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종합예술의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실은 차를 음미하며 기쁨을 즐기는 공간, 손님을 모시는 공간, 다실과 정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생의 공간, 차물을 끓이는 물입의 공간, 차를 타는 다완 등 차 도구 공예품 감상의 공간, 차회에 나오는 간단한 요리와 전통과자 등 식생활의 물질적 요소를 즐기는 공간, 그리고 차 도구를 고르고 감상하는 공간이었다. 즉 일본의 다실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질적 요소와 생활 예절, 그리고 예술적 감각들이 목격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다실은 일본 전통문화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적 공간이었으며, 특히 일본 차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창조의 보고였다. 다실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과 절차, 그리고 예술 등은 모두가 조화롭게 융합되어 하나의 종합적 문화체제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다실이 소통과 화합과 융합의 공간임을 의미하였다.

257) 박전열, 『남방록 연구』, (사)한국차인연합회, 이른아침, 2012, p. 36.

258) 이진수, 이진미, 주은철, 『차잎 속의 차』, 이른아침, 2008, p. 48.

(3) 미의식을 중시하는 다실문화

15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일본의 음다문화는 큰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음다문화는 음다 자체, 즉 음용보다는 도보슈들에 의해 중국이나 조선 등지에서 수입된 미술공예품들의 전시와 감상, 그리고 구매 공간이었다. 이는 서원 차문화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때 무라다 주코에 의해 일본 다도의 새로운 정신체계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 선사상이 차문화에 접목되면서 차도구나 차 마시는 공간들에 선사상의 요소들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음다문화는 일본 방식(和風化)으로 전환되었으며, 선적 풍류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한편 일본 다도는 14세기 센리큐에 의해 처음 정립된 이후 양식화(樣式化)되었으며, 다도를 전문 직종으로 삼는 이에모토(家元)²⁵⁹를 중심으로 다인(茶人) 조직이 형성되었고, 고유한 문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일본의 대표적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다실의 건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는 화려하고 규모가 큰 서원 다실이 유행하였지만, 이제 최소한의 공간과 소박한 초암다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4첩(疊)²⁶⁰반을 최소의 크기로 정해 다실을 만들었던 것에 반해, 센리큐는 서민들만 사용했던 3첩과 2첩의 매우 협소한 다실을 만들었고, 다실에 온 손님의 출입구도 니지리구치와 벽의 아래쪽을 뚫은 작은 창인 시타지마도치(下地窓)로 만들었으며, 다실 건축물을 토벽과 5첩 마루 등으로 만들었다. 이는 다실을 단순하게 차를 끓이고 마시는 행위만을 하는 공간으로 설계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1>과 <그림 2>²⁶¹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창문이었다. 센리큐의 다실은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필요에 따라 창을 열어 다실 내의 채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밝게 비추어야 하는 부분만을 비추고 어둡게

259) 이에모토(家元: いえもと)란 일본의 고전예도(古典藝道), 즉 기예(技藝)의 분야에서 유파(流派)의 본가(本家)로서 정통을 계승하고 그 유파를 통솔하는 가계(家系)를 지칭하거나 그 가계의 당주 개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무로마치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에도 시대에는 모든 분야의 예도의 발전과 더불어 능악(能樂), 광언(狂言), 무용(舞踊), 음곡(音曲), 향도(香道), 다도(茶道), 화도(華道), 무도(武道) 등에서도 이에모토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었으며, 현재에도 그런 경향이 보이거나 실제로는 양자나 며느리에 의해 유파 내의 유력자나 실력자가 그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단순한 혈연에 의한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260)疊의 크기는 西日本에서는 약 95.5cm×191cm, 關東 및 東北地方의 一部, 北海道와 三重県 伊勢地域에서는 약 88cm×176cm이다.

261) <그림 1>와 <그림 2>는 文化財ナビ愛知 홈페이지에서 전사하였다.

두고 싶은 곳은 그대로 어둡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에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자유로움과 합리성의 건축 양식은 현대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2> 如庵(国宝·重要文化財, 江戸時代)



<그림 3> 如庵의 내부

센리큐 다실의 장식품은 작은 족자 하나와 꽃 한 송이가 꽂힌 작은 꽃병뿐이었다. 그의 작고 수수한 다다미 2장짜리 다실에는 이외의 아무 장식도 없었다. 이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다기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최고의 미의식이었으며, 최소의 콘텐츠로 최대의 효과를 연출하려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였다. 이런 전통이 후대에 와비로 구현되었으며, 와비차의 원류가 되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다실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차 달이기, 형식화된 다회, 양식화된 회석 요리 등 다도의 전통과 체계를 확립하였다.

와비차는 형식에만 국한된 의례적 차문화가 아니라 편안하고 맑은 경지를 중시하는 선사상에 기반을 둔 정신적 차문화였다. 센리큐는 와비의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거친 황토를 바른 좁은 다실 다이안(待庵)의 세계를 창조했다. 센리큐가

말한 칠칙은 다도를 행할 때의 ‘경’의 실천 덕목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꽃은 들에 피어 있는 것과 같이, 솥은 물이 끓을 정도로, 여름에는 아주 서늘하게,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도록, 정해진 시간보다 좀 일찍 마치며, 날씨가 좋을 때도 우산을 준비하며, 자리에 함께 한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쓸 것”²⁶²⁾

센리큐는 자신에 대한 조심성, 타인에 대해서 존경과 배려,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한 차분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였다. 이는 다실에서도 주객상화하고 상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쿄노마의 족자, 꽃꽂이, 다완 등에도 각각의 미적 개념을 부여하고 배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민예운동가, 사상가, 그리고 다인이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점차심지(點茶心指)」라는 시에서 일본의 다도 정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잔 올리고자 일신을 버린 성인에게, 불당 안의 수행자에게, 맑은 마음의 비구니에게, 수도하는 소사에게, 가난한 선비에게, 황혼 길의 가인에게, 순박한 젊은이에게, 마음씨 고운 아가씨에게, 꾸밈없는 주인에게, 검소한 시골사람에게… … 권하지 말지어다. 졸부에게는, 가짜 스승에게는, 새파란 다동에게는, 잘난 체하는 병아리 다인에게는, 빠져버린 다도광에게는, 분별없는 쇼핑광에게는, 오만한 학자에게는, 사치하는 마누라에게는, 탐욕 많은 상인에게, 아첨하는 무리에게는…”²⁶³⁾

일본 사람에게 다도란 정체성을 향유하는 수단이었다. 그들에게 다도란 차를 만들어 마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목적과 사고방식, 그리고 차를 만드는 도구와 다실에 걸린 미술품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종합예술이었다.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말하자면, 일본 다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물과 풍

262) 센 겐시쓰, 나야소탄 해설, 박전열 역, 『일본다도의 정신』, 시사출판, 2008, pp. 12~14.

263) 야나기 무네요시, 구마쿠라 이사오 역음,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美』,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8, pp. 18~19.

경, 건축물, 그리고 자연환경 등 미적 요소들은 차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소스(one source multi use)로 응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차를 마시는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엄격하고 세밀한 격식과 절차를 갖추는 음다법은 차문화를 통한 정신수양과 예절교육, 그리고 미의식 확립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일본 전통문화의 주요한 현상으로서 향후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일본 정원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

(1) 불교 선사상을 반영한 정원문화

일본에서 정원의 조성과 장식은 1000년이 넘도록 예술과 차문화의 중요한 장르로 간주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정원의 개념은 열락정원(悅樂庭園, pleasure garden)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류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제도 및 사회구조가 진화하면서 여유와 휴식과 유희를 즐기려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냥터나 화원(花園)으로 조성되었던 정원은 대부분 이런 예에 해당되었다. 향수와 감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상적인 자연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하였고, 각종 예술품을 배치하기도 하였으며, 정원을 만드는 사람이나 소유자의 자연관 및 취미가 정원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원은 자연과 인공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종합예술²⁶⁴⁾ 또는 문화콘텐츠의 발전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정원은 가벼운 산책을 위한 정원, 에도 시대를 표현한 정원, 센슈(선종)의 승려들에 의해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진 돌 정원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되어 왔다. 10세기 무렵 중국에서 전래된 깍다 습관과 선종의 영향은 다실문화와 정원문화 등 광범위한 생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일본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선종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일본문화사에서 무로마치 시대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이르는 중세 사회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대였다. 이 시대는 전대(前代)의 귀족문화 자양

26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8502&cid=40942&categoryId=31876> (검색일: 2014.04.23)

분을 섭취하면서 노와 교겐과 같은 적극적 예능을 발전시켰으며, 선사상과 다도, 그리고 꽃꽂이와 정원과 같은 일본의 생활문화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선사상을 반영한 유겐(幽玄)이라든가 와비라는 미의식과 차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미의식은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인의 의식과 행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세는 민족성에 뿌리를 두고 독자적 체계를 가진 일본 전통문화의 성립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²⁶⁵⁾

일본 정원은 선종사원의 정원에서 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선종에서 시작된 다도를 행할 수 있는 공간, 즉 다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세 일본에서의 불교와 차문화, 그리고 정원문화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일본인의 의식과 사상, 그리고 전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정원문화는 자연의 환경적 영향과 선사상의 종교적 영향, 그리고 막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대별 다양한 양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정원문화는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 독자적이며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제 교류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역사적·종교적 측면으로 고찰해볼 때, 일본의 정원은 7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중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수용하면서 불교의 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백제, 신라, 당, 발해 등 외국의 정원문화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원은 그 시대를 주도했던 사회계급들(귀족들, 승려들, 무사들, 정치인, 그리고 상인)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정원이 종교적 성취와 사회적 신분과시, 그리고 자연의 미적 감각의 재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정원은 시대적 특성, 문화적 의식, 그리고 종교적 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교의 선사상을 기본으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조성되었다는 점이었다.

(2)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융합한 정원문화

26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op. cit., p. 82.

고대 일본의 정원 조성에서 중국문화와 불교문화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 정원은 귀족과 왕의 유희 공간이었으며, 주로 궁내에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 정원에는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가 가미되었으며, 그 결과 연못과 개울이 조성되었다.

아스카 시대의 정원에는 백제의 요소와 불교의 요소가 영향을 끼쳤으며, 기술과 문화 측면에서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나라 시대의 정원에는 연못의 형태가 곡지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연못가도 다양한 형태의 곡선형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호안을 만든 연못이 등장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심이 얇게 조성되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가 일본 정원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원의 연못은 중국의 곡지형 연못을 수용하여 일본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후 일본의 전통문화를 새로 만들었던 일본의 대표적 문화수용 방법을 의미하였다.

헤이안 시대의 정원은 궁전, 귀족의 저택, 그리고 별장 등에 조성되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정원관련 다양한 문학작품이 등장하였다는 점과 정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작품의 중요 소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귀족들은 연회와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거대한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 신덴즈쿠리 양식의 정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귀족계층이 선호했던 사치스럽고 거대한 저택의 정원 양식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국 당나라의 문화적 영향이 쇠퇴하고 국풍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였다. 신덴즈쿠리 정원은 불교 정토종이 유행했던 시기에 선호되었던 양식인데,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과 불교 경전이나 책자에 묘사된 정토의 이미지가 정원을 통해 표현되었다. 여기에는 불당, 섬, 다리, 물, 자갈, 연꽃, 배 등이 포함되었다.

가마쿠라 시기의 정원은 정치력이 귀족계층에서 무가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성되었다. 이 시기의 정원은 헤이안 시대의 신덴즈쿠리 극락정토 방식 정원을 답습하였다. 이 시기의 종교적 특징은 선종의 영향이었으며, 정치적 특징은 무사계급의 등장이었다. 지금까지는 주택과 정원이 주로 귀족계층에 의해 조성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중산층과 무사계층의 문화가 정원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12세기 말 선종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선종사원의 건축과 정원 양식이 함께 전래되었다. 선종은 좌선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나 장식의 사용이 자제되었

고 돌을 통한 독특한 미의식이 중시되었다. 이 시기 이후 정원의 용도는 연회에서 수도승의 명상과 종교적 수양 장소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정원은 절 근처의 자연 공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정원 양식은 가레산스이 양식인데, 이 양식의 특징은 연못, 바위, 자갈, 모래, 물, 이끼 등을 활용한다는 점이었다.

무로마치 시기는 일본 정원문화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는 센즈이 카라와모노라는 산, 도랑, 강바닥 등을 조성하는 숙련된 장인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정원도 선종의 영향을 받았으며, 바위, 산, 폭포, 흰모래 등을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정원문화는 불교의 선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원 조성에서 소박함과 검소함 등 반물질주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기에는 와비사상과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풍경, 그리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정원문화에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인공적인 조경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지닌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와비정신이 정원문화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귀족과 무사계층, 그리고 부유계층들은 차를 마시고 차도구나 미술품을 감상하며 화합을 다지는 다회를 자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저택 안에 다실과 정원을 만들어 한적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신텐즈쿠리 양식의 정원과 소박하고 간소한 다실을 결합하여 차정원 또는 로지를 만들었다.

에도 시기의 정원은 무로마치 시기의 간소화된 정원 형식에서 벗어나 군주계층의 화려한 정원으로 변모하였다. 이 시기의 정원은 규모가 크고, 산책을 즐길 수 있었으며, 연못, 섬, 바위, 인공 언덕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이 시기의 정원은 카이유 형식이었는데, 거대한 바위와 나무, 그리고 거대한 연못과 소나무 섬이 특징이었다. 연못 주위에는 반드시 정자를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차를 즐겼다.

메이지 이후 현대식 정원이 일본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 시기 초기에는 서양식 정원이 도입되어 일본식 정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꽃밭과 잔디 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정원문화는 일본의 자연 환경에 중국의 정원 양식과 불교의 선사상, 그리고 외래 정원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되기 시작되었

으며, 헤이안 시대 이후 국풍운동으로 일본식 정원문화를 확립하였고,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 정원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정원문화에는 꽃밭과 잔디 등 서양식 정원문화의 요소들이 유입되었다.

(3) 정원 구성요소와 유형의 문화자원으로 활용

일본 정원의 구성요소는 크게 돌, 자갈, 모래, 연못, 개울, 섬, 다리, 언덕, 석등, 츠쿠바이, 그리고 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²⁶⁶⁾, 일본 정원의 유형은 지센(池庭)식 정원과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 그리고 로지(露池)식 정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본의 정원의 종류는 츠키야마(언덕과 연못이 있음) 정원과 히라니와(平地, 언덕과 연못이 없음) 정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정원의 구성요소

돌은 일본 고대 문화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신도에서 눈에 잘 띄는 커다란 돌은 가미(神)로 추앙되었으며, 이세 신사나 교토의 가미가모 신사와 같은 오래된 신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갈은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정원에서 커다란 돌은 산과 언덕을 상징하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거나 다리와 산책로를 만드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또 작은 바위와 자갈은 연못과 개울 등의 경계선 용도로 사용되었다. 돌로만 꾸며지는 가레산스이 정원은 커다란 돌과 작은 돌로 산, 섬, 폭포 등을 표현하였고, 자갈과 모래로 물을 표현하였다.²⁶⁷⁾

연못은 대부분의 모든 정원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실제로 연못은 있는 그대로 묘사되거나, 신화에 등장하는 호수나 바다를 축소하여 표현하였다. 연못은 정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잉어 서식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가레산스이 정원의 연못, 개울, 폭포는 일정하게 정돈된 자갈과 모래와 바르게 세워진 돌로 표현되었다.

266) 다카세 요이치, 나카 다카히로, op. cit., pp. 151~317.

267) Ibid., pp. 150~181.

연회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에서 연못은 배를 타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고, 오래 전에는 물 위로 아름답게 지어진 정자를 구경할 목적이나, 마당에서 밤이면 달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도 하였다.²⁶⁸⁾

섬은 일본식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작은 디딤돌 하나부터 건물 전체를 받칠 만큼 커다란 섬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였다. 섬은 주로 실제 섬을 표현하거나, 거북이와 학처럼 장수와 건강의 상징으로 사용하였고, 도교에 있는 신비로운 산인 호라이(蓬萊)산처럼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섬을 연결하거나 개울과 연못을 건널 수 있도록 지어진 다리도 정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주로 돌이나 나무로 지어졌으며,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다리부터 10미터가 넘는 화려한 다리도 있었다.²⁶⁹⁾

나무, 관목, 잔디, 꽃 등 많은 식물들이 일본 정원에 사용되었다. 단풍나무나 벚나무는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심었다. 반면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는 한겨울이면 퇴색해버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자주 애용되었다. 100여종이 넘는 이끼도 광범위하게 쓰였는데, 사이호지(西芳寺)의 이끼정원이 유명하였다.²⁷⁰⁾

규모가 큰 정원 중에서 특히 에도 시대에 지어진 산책 정원 중에는 커다란 인공 언덕이 있는 곳이 많았다. 언덕은 실제의 언덕이나 신화 속의 언덕을 표현하였으며, 어떤 언덕은 직접 올라가서 정원의 경치를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석등은 매우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었으며, 일본 정원의 역사를 통틀어 정원을 꾸미는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다. 주로 돌로 만들어지며, 조명 역할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건물의 바로 옆에 놓는 등 주의 깊게 선택된 장소에 놓여졌다. 일반적으로 석등은 차정원의 기본 요소가 되는 츠쿠바이(손 씻는 물을 담아 두는 돌그릇, 아래 참고)와 함께 놓였다.²⁷¹⁾

많은 정원에서 츠쿠바이를 볼 수 있다. 특히 츠쿠바이는 다도의식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츠쿠바이는 간단하게 만든 것과 원석을 아름답게 다듬

268) Ibid., pp. 151~181.

269) Ibid., pp. 181~200.

270) Ibid., pp. 181~200.

271) Ibid., pp. 200~317.

어 만들어진 것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물 주격이 함께 있었다. 요즘은 실제의 용도보다 장식용으로 더 많이 쓰인다.²⁷²⁾ 츠쿠바이는 석등과 함께 차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길은 일본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산책 정원은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디딤돌, 자갈, 모래, 흙을 사용하며 원형의 산책로를 만들었다. 구불구불한 길은 각각 다른 장소와 구분되도록 외진 숲이나 숨겨진 연못 등으로 이어지며 정원을 찾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원을 감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대부분의 정원은 궁전이나 별장, 그리고 사찰 등의 건물 내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정자, 다실, 객실 등 정원의 건물은 정원을 완성하는 구성요소였다.

샷케이(借境; 차경)는 정원 밖의 풍경을 정원으로 흡수한 것이었다. 산이나 언덕과 같은 자연경관과 성(城)처럼 사람이 지은 것도 차경으로 쓰였다.²⁷³⁾ 현대에는 특히 도시에 있는 많은 정원들이 아름답게 지어진 고층건물들을 차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정원의 유형

정원의 유형에는 지센(池庭)식 정원과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 그리고 로지(露池)식 정원이 있다.

지센식 정원은 기본적으로 연못이나 수경(水景)을 정원의 중심요소로 삼는 것이었다. 지센식 정원은 주유식 정원과 회유식 정원, 그리고 차경식 정원으로 구분되었다.

주유식 정원은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연못을 파고, 배를 타고 돌면서 연못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정원이었다. 회유식 정원은 연못 주위에 산책길을 만들어놓고, 그 길을 따라 연못을 돌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정원이었다. 그리고 차경식 정원은 정원에서 내다보이는 주위에 경관과 정원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좋은 경치를 자기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빌려다 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차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1628년 중국 명대에 간행된 동양정원

272) Ibid., pp. 200~317.

273) Ibid., pp. 250~317.

이론서인 계성(計成)의 『원치(園治)』에 처음 쓰인 말로서 풍경을 활용하는 정원에 채용된 수법의 하나였다. 주변 경관을 조화시키는 차경은 일본 정원의 중요한 양식 명칭으로서 정원의 배후에 있는 산이나 바다, 호수, 사원의 건축물 등을 배경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였다. 차경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⁷⁴⁾

첫째, 가까운 산을 끌어들여서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접속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가까운 산을 마치 별도의 다른 경관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셋째, 배경에 있는 건물이나 탑을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넷째, 바다나 만을 정원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호수나 멀리 있는 산을 회화적으로 정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차경 양식은 헤이안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정원으로서 슈가쿠인(修學院) 궁의 정원이 있다.

가레산스이식 정원은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수경을 표현하는 정원 양식이었다. 가레산스이 양식이 성행했던 시기는 14세기 이후였다. 연못이나 흐르는 물이 없지만 바닥에 잘게 부순 돌이나 흰 모래를 깔아 수면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이었다. 상징성과 회화성을 추구하는 가레산스이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표현하는 정원을 말하며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이전부터 도입되었다. 정원의 바닥에 모래를 깔고, 물의 파문을 그려 표현하기도 하고 돌을 쌓아 올려 폭포를 만든 다음에 그 아래에 모래를 깔아서 흐르는 물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나무를 심고 산을 바위로 대치시켜서 산이나 섬을 연상시키는 등 상징적이면서도 회화적인 조원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제작 서적은 헤이안 시대 다치바나노 도시쓰나(橋俊綱, 1028~1094)가 쓴 『사쿠테이키(作庭記)』였다. 이 서적에 의하면, 가레산스이 방식의 구성이 정점을 이룬 시기는 무로마치 시대였다. 헤이안 시대에 조성된 모월사, 남북조 시대에 만든 서방사의 정원, 고인산의 기슭을 이용하여 자연석을 쌓아올려 만든 물이 흐르지 않는 폭포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무로마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종의 교의와 자연의 원근 표현법이 도입되었으며, 여기에 자극을 받아 흙 담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좁은 선종 사원의 정원에 새

274) 計成, 『園治』참조.

로운 가례산스이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모모야마 시대와 에도 시대가 되면 그 기법은 더욱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말라붙은 폭포 모양이 나오도록 돌을 가로세로로 배치하였고, 그 앞에 흰 모래를 넓게 깔아 바다 모양이 나오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현재 가례산스이 양식의 정원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 전기 가례산스이는 넓은 정원의 일부를 가례산스이로 조경한 것으로 남북조 시대까지의 작품에서 많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후기 가례산스이 정원은 전체를 가례산스이 양식으로 만든 것으로 무로마치 시대 이후에 나타났다. 가례산스이 양식은 입체적으로 산을 쌓아 올려 만드는 방식으로 대덕사의 대선원, 서방사, 천룡사의 정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또한 평탄한 땅에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인 용안사의 정원에서도 이를 목격할 수 있다.²⁷⁵⁾

가례산스이 정원에는 선원식과 지정식 정원형태가 있다. 선원식 정원은 불교사원 가운데 선종의 선원에서 정원에 가례산스이식 정원을 만들어 참선하는 데 활용하는 정원이었다. 그리고 지정식 정원은 모래나 하얀 돌을 잘게 부수어 바다나 강물 모양이 나도록 깔아두는 형식으로서 물이 없으면서도 연못이나 강 또는 바다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이었다.

마지막 로지식 정원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진 다실의 정원이었다. 로지는 일상 거주공간으로부터 다실에 이르는 통로를 의미하였다. 깊은 산 속의 적막한 풍경을 모방하여 다도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꾸민 정원이었다. 이는 모모야마 시대의 유명한 다인인 센리큐가 고안해낸 양식이었다.

일본문화에서 차문화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는 16세기 이후에 성행하게 된 와비차를 들 수 있다. 와비차는 일상의 거주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차만을 위한 전용 다실에서 음용되었다. 로지 양식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1570년 이후였다. 바닥에는 신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징검돌인 도비이시를 고안해 냈고, 석등 울타리를 세워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다실의 청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간소한 조형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정원양식으로 조성하였다.²⁷⁶⁾

로지식 정원은 초암식 정원과 서원식 정원으로 구분되었다. 초암식 정원은 다실을 암자처럼 작고 소박하게 짓고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만들어 초암과 같은 분

275) 計成, 『園治』참조.

276) 計成, 『園治』참조.

위기가 나도록 만든 정원을 의미하였다. 이는 초암에 어울리도록 규모도 작고 소박하고 한적한 느낌이 들도록 만든 정원이었다. 서원식 정원은 서원에 딸린 정원양식이었다. 서원은 무사나 귀족들이 모이는 일종의 사교장으로서 차를 마시고 소통하고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화려한 물건을 장식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서원 주위에도 로지 정원을 만들었는데, 서원 건물에 어울리도록 만든 정원을 서원식 정원이라 불렀다. 원래 서원은 선사에서 승려가 서적을 읽는 방을 의미하였다. 서원식 정원은 무로마치 시대로 접어들자 귀족들의 저택으로 도입되었으며, 쇼인즈쿠리라는 주택양식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의 정원은 일반적으로 2개의 종류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언덕과 연못으로 구성된 츠키야마(언덕형) 정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언덕과 연못이 없는 히라니와(平地) 정원이었다. 대저택의 정원에는 언덕형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는 평지정원이 조성되었다. 평지정원은 다도의식과 차실(茶室, 차시츠)이 전래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③ 문화자원으로 활용

일본식 정원은 연못, 개울, 섬과 언덕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자연의 경치를 재창조하였다. 일본 정원의 조성원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하고, 자연을 인간의 품안으로 끌어들이는 차정원리였다. 또한 자연을 압축하여 만드는 축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원의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일본의 정원에 포함되었다. 현재 일본의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본 문화관광산업의 주요 핵심 분야가 차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찰과 사원, 그리고 정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과 융합의 개념으로 고찰해야 한다. 일본 정원의 구성요소는 돌, 자갈, 모래, 연못, 개울, 섬, 다리, 언덕, 석등, 츠크바이, 그리고 길 등이었다. 이 구성요소들은 현재 일본의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사찰과 사원, 그리고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들이다. 일본의 문화콘텐츠는 정원의 구성요소에서 창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응용한 미의식 확립

일본 정원의 사상적 배경에는 일본 고유의 토속 신앙과 도교, 그리고 불교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교는 불교였다. 종교적 상징성을 정원의 구성 원리에 활용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형화한 것은 일본 정원의 독특한 발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정원의 절대적인 중심 소재는 돌과 바위였다. 돌과 바위가 유독 정원의 소재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돌과 바위가 바로 신이 강림하는 곳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앙의 원천은 가미가모(上賀茂) 신사였다. 신사의 정북 쪽에는 가미야마(神山)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정상에 있는 바위를 통해서 신이 강림하였고 마루야마(丸山)를 통해 신사의 본전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이 된 바위를 이와쿠라(磐座, 신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돌)라고 불렀다. 높은 산에 노출된 큰 바위는 대부분 이와쿠라로 모셔지고 있었다. 신사는 산의 바위나 수목, 또는 산 그 자체에 신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수직강림형(垂直降臨型, 스이쵸쿠 고오링 가타)이라고 하는데, 강림한 돌을 신사 안으로 옮기고 흙을 파서 여러 개의 큰 돌들을 고정시켜 만든 이와쿠라가 이시구미(石組)로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원은 초기에 돌을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늘어놓거나 세우는 형태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이시구미는 정원이라기보다는 자연이나 각종 신에 대한 숭배 대상의 의미가 더 컸다. 이러한 자연숭배 사상이 구현되어 현존하는 정원의 이시구미 형태로 변천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한다는 것이 일본 정원의 기본 발상이었다. 이처럼 일본 정원의 기본골격은 바위와 그 바위가 모여 있는 방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고대 일본인들이 바위로 둘러싸인 곳에 신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던 신앙에서 출발하였는데, 이곳은 아마츠 이와사케(천국으로 가는 관문) 또는 아마츠 이와쿠라(천국의 자리)라고 불렀다.²⁷⁷⁾

일본 정원문화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이안 시대 다치바나 도시쓰나(補俊綱, 1028~1094)의 『사쿠데이키(作展記)』에는 돌의 신성함과 돌을 세우는 법

277) 이는 나무숲에서도 나타난다. 울창한 나무숲은 히모로기(신의 울타리)라고 불렸는데, 신성한 장소를 둘러싸고 있다고 믿어지는 해자(壕字)와 도랑은 미즈가키(水垣-神社의 울타리)라고 불렀다.

이 언급되어 있었다.²⁷⁸⁾ 돌을 세우는 행위는 정신적으로나 미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²⁷⁹⁾ 돌을 놓는 행위는 정원 만들기를 위한 선의식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돌을 생명체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헤이안 중기의 사람인데, 그의 말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헤이안 시대는 일본 역사 가운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과거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문화적 요소 등이 재검토되었고 일본식 맥락으로 변형된 시기였다. 이런 변화는 정원에서도 발생하였다. 일본의 정원은 돌의 언어로 묘사된 자연 풍경의 시(詩)였다. 즉, 일본 정원에서 돌과 바위는 일본 정원의 사상적인 배경과 종교적 의미, 그리고 예술적 미의식을 대변해주었다. 일본으로 유입된 신선사상은 자연의 풍경 자체를 신선경이라 부르면서 약간의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 정원의 연못에 만들었던 나카지마, 쓰키야마, 그리고 이시구미 등은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일본 정원에는 소나무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신선사상에 나오는 십장생 민속과 연관되어 있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불교의 수미산 사상은 정원 조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수미산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초자연의 고산을 일컬었다. 사면이 황금, 은, 유리, 수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7개의 금산이 동심원 형태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산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다. 이곳은 초자연적인 불교적 이상향이었는데, 나라 시대에는 수미산을 본떠 만든 정원이 유행하였다. 이는 불교의 미의식을 대변한 정원으로 간주되었다.

8세기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면서 귀족들은 대저택 내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신텐즈쿠리 양식의 저택과 어울리는 중국풍 유형의 정원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못을 신성시하여 정원의 중심에 배치하였고, 이를 시각적 즐거움과 연회의 장소로 활용하였다. 한편 헤이안 말기와 가마쿠라 시대 초기에 들어온 불교의 선사상은 일본 정원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사비와 와비정신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정원에 구체화하였다. 즉, 중세 말기에는 선사상이 문화 전반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정원문화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화려한 신텐즈쿠리 양식

278) 다치바나노 도시쓰나, 다케이 지로, 『사쿠테이키』, 연암서가, 2012, pp. 97~99.

279) 영국 스톤헨지의 고인돌이나 이집트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의 거대한 돌기둥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쇼인즈쿠리 양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선사상의 영향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정원 공간은 즐기고 보여주는 허례 허식적 공간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지양되고 일본의 정토관(淨土觀)이 정원 구성에 반영되면서 정신적 수양의 공간으로 승화되었다. 이는 가레산스이식 정원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철저하고 엄격한 배치는 중세 미학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존중된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중세 일본의 선사상은 정원의 한 요소였던 고산수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고산수의 특색은 원칙적으로 좌선석(坐禪石)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왕조풍 지천회유식(池泉回遊式) 정원이 귀족들의 사교실용성이었던데 반해, 고산수 정원은 초현실적인 선의 세계를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좌선석 정원은 14세기 중기에 경도의 천용사나 상국사를 개창한 무소 소세키의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가 만든 고산수 정원의 석정은 자신의 수탑(壽塔)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생사를 초월한 종교적 양심만이 존재하였다. 석정이 생사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면, 불균제(不均齊)의 아름다움도 실은 자유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²⁸⁰⁾ 일본의 정원은 단순히 실용적인 휴식의 공간만이 아니었으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미적 공간이었고, 예술 작품으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사상적 공간이었다. 정원의 외형적인 구조와 그 속에 담긴 일본인들의 미의식은 이러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공간이었다. 즉, 삶의 이치를 깨닫는 범우주적 사유와 철학, 그리고 미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본의 정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곳은 소박하고 검소한 의식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순수한 이상 세계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다.

일본 정원의 역사는 이미 1000여 년 이전에 시작되었다. 8세기에는 꽃과 나무를 집 주위에 심었고, 물고기를 놀게 하기 위해 정원의 한가운데에 연못을 팠다. 이를 시작으로 자연미를 상징하는 양식을 확립하여 인공적으로 산과 바다를 축소하여 만들었으며, 여기에 상징적인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정원은 아름다움과 여유,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원은 연회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280) 유전성산, 한보광 역, 『선과 일본문화』, 불광출판사, 1995, pp. 76~77.

소통과 대화의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정원은 휴식하는 공간이자 미술품처럼 예술적 정서를 일깨워주는 공간이었고,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의 미적 감상 대상이었다. 정원에 심는 나무나 꽃은 정원 구성의 기본 요소였지만, 넓은 우주나 자연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 정원에는 교목과 관목뿐 아니라 바위, 모래, 인공 언덕, 연못, 유수 등이 예술적으로 사용되었다.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서양식 정원과는 달리 일본 정원은 전통적으로 가능한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자연에 가까운 경관으로 조성하였다. 자연을 그대로 정원에 재현하여 자연의 섭리를 집중적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제한된 정원의 공간 안에 주위의 경치가 연속적으로 보이게 하여 자연을 끌어들이는 차경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연의 모습을 축소하거나 상징화한 모습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돌이나 모래를 이용하여 산이나 폭포나 바다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들어 있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눈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에 내포되어 있는 심오한 미적 의미를 마음으로 느껴야 했다. 정원에 표현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미적 관계는 료안지(龍安寺)의 석정(石庭)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료안지의 석정은 흰 모래를 깔고 크고 작은 15개의 돌을 배치했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한 개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었다.²⁸¹⁾ 이처럼 정원은 인간 정서의 움직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자연에 인공을 가미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정원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은 자연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서양인들은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화합하고 화해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접근하였다.

일본인들의 의식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는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철학이었다. 일본은 이런 외래사상들을 배경으로 일본적인 것을 가미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일본 정원을 창출하였다. 일본 정원의 형태와 돌 배치의 배경에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미의식, 불교의 선사상,

281) 시공사 편집부, 『저스트 고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시공사, 2013, p. 436.

그리고 선적인 소박함과 검소함 등이 깃들여 있었다. 일본인은 시대에 따라 그려내고 싶었던 이상향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자연을 가능한 가공하지 않는다는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상층된 개념 속에서 정원의 주제는 어느 시기에는 호쾌하게, 어느 시기에는 섬세하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다.²⁸²⁾ 이처럼 일본의 정원은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었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심미의식을 가미하여 일본식 전통을 확립하였던 문화의 공간이었다.

3)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문화콘텐츠를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자료와 정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자연환경이든 관광자원이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 또는 원형’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전통적인 기술(IT) 중심 하드웨어 콘텐츠에서 벗어나 문화기호들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향유, 정서함양, 지식 제공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제공, 응용, 생산, 향유의 출처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가 지니고 있는 지적·정서적 유무형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일본 차문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일본의 차문화가 문화콘텐츠에 끼친 영향은 교육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예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일본 차문화는 다도 교육과 예절 교육을 통한 일본의 정신 함양과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끼쳤다. 다도 교육에는 차를 우려내는 방법, 손님

282) 김용안, op. cit., pp. 238~247.

을 접대하는 방법, 다구를 다루는 방법, 예술품을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의 전통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도 교육에는 다실을 꾸미는 방법, 꽃꽂이를 하는 방법,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등 예술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도 교육이 차소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차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차의 일반화와 대중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차문화 교육은 지역박물관, 차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차시음장 등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차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고 시음이나 차만들기 등 체험학습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 차문화에는 전통문화 계승, 서구문화 수용, 일본 전통문화와 타문화의 융합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의 차문화에는 전통문화, 중국 문화, 한국문화, 그리고 서양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일본의 차문화는 전통문화에 중국 등 타문화를 접목하여 일본식 새로운 문화로 변화시켰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의 핵심이었다.

정신적 측면에서 일본의 차문화는 일본 불교의 선사상을 체험하고 와비사상을 실천하며 생활의 검소함과 소박함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선종의 승려들은 차문화를 일정한 형식과 예법을 갖춘 다회로 완성시켰으며, 이를 일본 차문화의 전통으로 확립하였다. 리큐는 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을 새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주인과 손님 모두가 대등할 것, 서로 존경할 것, 깨끗한 마음으로 행할 것, 정숙한 가운데 예의를 지켜 행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모든 기본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와비차 다도정신은 일본 다도의 분류를 형성하였다. 센리큐는 다도가 갖는 일상성과 체계성, 그리고 미적 구도성을 추구하여 와비차로서의 다도를 완성시켰으며, 종래의 다실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검소한 다실을 새로 만들었고, 조선의 투박한 다기를 와비차에 어울리는 차도구로 받아들여 간편하고 소박한 차문화를 확립하였다. 이는 차도구의 간편화와 다회의 간소화를 의미하였으며, 선사상에 기반을 둔 와비 세계의 실현을 의미하였다. 센리큐의 와비차로 정립된 일본의 다도정신은 일본 다도의 분류를 형성하였는데, 이때 차를 마시는 곳인 다실과 차도구인 다기, 그리고 선종의 정신문화 등이 융합되어 일본의 대표적인 다도로 확립되었다. 일본 다실은 작은 문을 이용

해 출입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차를 마시는 공간은 집안의 어떤 부분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단독 공간으로 건축되었다. 문이 작은 이유는 다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속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평등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다. 일본의 차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인 선사상, 와비사상, 센리큐, 다실, 다도구, 그리고 다도정신은 오늘날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정신적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차문화와 차문화콘텐츠는 선사상과 와비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다도정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적 측면에서 일본의 차문화는 다실의 장식 등 차문화콘텐츠 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다실을 장식하는 꽃꽂이가 발달한 것이 이케바나 다화였다. 다화는 간소함과 자연스러움과 선적요소가 강조되었던 다실문화와 차문화 예술의 핵심요소였다. 이런 예술적 요소들은 향후 일본 다실문화 디자인과 차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소스(OSMU)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일본의 다실은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었다. 다실은 차를 마시는 공간, 차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는 다실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차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다실에서 시간과 시기, 그리고 장소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다회를 열었다. 이런 다양한 다도와 다실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소통 기능을 확대한다면,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개념과 범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다실은 차를 마시는 기능, 예술과 철학과 사상 등을 논하는 공간, 기쁨을 나누는 공간, 손님을 모시는 공간, 다실과 정원을 연결하여 자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다완 등 차 도구 공예품을 감상하는 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다실은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보고이자 발전소로 간주되고 있다.

(2) 일본 정원문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일본 정원문화의 문화콘텐츠 개념에는 정원문화뿐만 아니라 다실문화, 꽃꽂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본 정원문화를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말한다면,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인 돌, 자갈, 모래, 연못, 개울, 폭포, 섬, 다리, 조경수, 언덕, 석등, 길, 츠쿠바이, 다실 등이 문화콘텐츠의 소재이자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돌은 역사적·종교적으로 일본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갈은 종교적·정신적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산, 언덕, 바위, 자갈은 정서적·치유적 측면에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고, 연못과 개울, 폭포는 소통과 향유와 정서함양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섬은 종교적·정신적·정서적 측면에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며, 다리는 소통과 화합과 융합의 측면에서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정원수는 나무, 관목, 잔디, 꽃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정서적·정신적·교육적 측면에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이끼 등은 일본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자연의 아름다움, 일본 정신의 은근, 끈기, 인내, 소박함, 지조 등이 내포되어 있다. 석등은 일본 정원문화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여기에는 정신적·사상적·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츠쿠바이도 일본 정원문화에서 필수적 요소인데, 여기에는 항상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정신적·사상적·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길은 일본 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여기에는 사유와 치유, 그리고 향유의 의미가 담겨있다. 산책로에는 디딤돌, 으깬 자갈, 모래, 흙 등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도 정신수양, 치유, 명상, 자연과 합일의 의미가 담겨있다. 정자, 다실, 객실 등은 일본 정원문화를 완성하는 구성요소이다. 여기에는 정원문화의 문화콘텐츠가 종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정자는 공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문화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원 밖의 풍경은 자연경관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일본 정원 문화콘텐츠의 풍요로움과 섬세함,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융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정원문화의 문화적 의미와 미의식은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문화적으로 일본 정원문화는 전통적·역사적·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

다. 미의식 측면에서 일본의 정원문화는 정신적·사상적·종교적·예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특징들은 일본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요소로 간주되었으며, 일본 정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정원문화는 자연적 아름다움과 인공적인 미적 감각을 융합하고 화합하였는데, 이는 일본 문화콘텐츠의 특성과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일본 정원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 요소는 자연미 활용, 축소지향, 섬세함, 인공적인 미의식, 상징성, 소통, 휴식, 예술적 정서 등이었다. 꽃과 나무, 물고기, 언덕, 그리고 연못 등을 통해서는 자연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산과 섬과 폭포와 바다에서는 축소지향적인 의식과 인공적인 요소 그리고 상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정원은 아름다움, 여유, 휴식, 소통, 그리고 대화라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었으며, 장식과 기물 그리고 그림은 예술적 정서 함양이라는 콘텐츠의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정원의 섬, 연못, 언덕 등은 넓은 우주나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일본 정원의 바위, 모래, 인공 언덕, 연못, 유수 등은 예술적 콘텐츠의 활용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여 자연의 섭리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축소하거나 상징화한 모습으로 재구성하였다. 일본 정원은 돌이나 모래를 이용하여 산이나 폭포나 바다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일본 정원 문화콘텐츠의 전통중시 사상, 심오함, 자연숭배, 종교관, 그리고 예술성 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일본의 문화콘텐츠는 정원의 구성요소에서 창조되고 개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일본의 문화관광산업과 일본의 사찰 및 정원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 사찰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볼 때, 일본의 문화콘텐츠는 일본의 차문화콘텐츠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만큼 일본의 문화콘텐츠는 차문화와 정원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차문화콘텐츠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의 OSMU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불교사찰을 활용한 차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활용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IV.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일본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습속에는 일본 전통문화의 독특한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은 차문화를 정신음료문화로 승화시켰으며, 선이라는 불교의 정신문화를 차문화와 결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새로운 문화적 형식과 틀을 생성하였으며, 매우 독특한 일본식 차문화를 창출하였다.

일본의 불교는 6세기에 들어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통문화와 융합하면서 실용화·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 왔다. 특히 선사상의 유입은 일본 불교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 선불교가 처음 소개된 시기는 9세기경이었으나, 당시 일본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가마쿠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송나라의 선불교가 일본에 소개되었다. 본격적으로 선불교가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13세기 이후 에이사이와 도겐이 일본 선문화의 기초를 마련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는 일본 역사의 중세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후 선불교 문화는 사상적·종교적·예술적으로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일본 중세문화의 중심에 선불교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 사원은 학문과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이었으며, 예술 감상과 소통의 장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고대문화와 외래문화는 사원에서 융합되었으며, 새로 탄생한 일본의 불교문화는 정신적 측면과 학문적·사상적·예술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음료, 음식, 건축, 회화, 공예 등 일상생활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일본 불교의 특성은 선승들의 중국 유학, 유학을 통한 지속적인 학문 탐구, 중국 불교의 적용,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의 융합, 선사상과 와비사상의 확립, 외래사상의 일본화, 새로운 종파의 형성, 물질적·세속적 유희과 탐욕의 단절,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실천, 사찰 중심의 예술 활동, 사찰 내 다실 설치를 통한 소통과 대화, 그리고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선승들의 도제식 가르침과 학문연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불교의 특성은 교육적·사상적·예술적·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 교육적 측면의 영향

교육적 측면에서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은 끊임없는 학문탐구 정신과 사찰에서 이루어진 선승들의 도제식 교육 방법이었다. 일본의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차문화콘텐츠는 선사상과 와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찰 중심의 도제식 종교 교육방법과 선승들의 실천적 삶의 방식을 차문화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는 센리큐의 다도 교육시스템과 다도 유파 형성, 그리고 실천적 다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와비차를 완성시킨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를 관장했던 센리큐였다. 그의 사후 와비차는 자손들에 의해 계승되면서 많은 유파를 탄생시켰다. 물론 다도의 유파는 센리큐 이전부터 몇 개가 존재하였지만, 센리큐와 같은 시기에 창시된 유파와 그의 자손들이 형성한 유파를 포함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가 존재하였다. 일본에서 가장 큰 다도 유파는 센리큐의 손자인 센소단의 셋째 아들 코우신소사가 이어 받은 오모테센케(表千家), 막내 아들 센소소시즈가 독립하여 만든 우라센케, 둘째 아들 이치오소슈가 양자를 그만두고 센케(千家)로 돌아와 따로 일가를 일으켜 만든 무샤노코우지센케 등 3대 유파를 들 수 있다. 원래 센케라고 하면 본가인 오모테센케를 지칭하였지만, 우라센케와 근년에 분가한 무샤코지센케를 포함하여 산센케(三千家)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 유파를 중심으로 다시 여러 유파들이 분파하였지만, 이에모토(家元, 면허증을 발급하는 자) 제도에 의한 계승으로 산센케가 일본 다도의 중추를 형성하였다. 에도 시대 차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이에모토 제도는 각 유파들이 차문화 교습생을 확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었으며, 차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제도였다.

오모테센케는 센리큐를 시조로 하는 다도 유파의 하나였다. 이 유파는 센케의 직계를 이어받아 400여년에 걸쳐 오모테센케후신안(表千家不審菴)을 계승한 센케류 다도의 본가였다. 센리큐에 의해 성립된 다도는 센케의 2대 센쇼안(千少庵, 1546~1614), 3대 센소단(千宗旦, 1578~1658)으로 이어졌으며, 1600년경 센소단이 집 뒤편 부지에 새로 다실을 짓고 은거하면서 세 번째 아들인 코우신센소사(江岑千宗左)에게 후신안(不審菴)을 계승하게 하였다.

후신안은 센리큐의 다실의 이름으로 역대 이에모토가 이를 계승하여 왔다. 소사(宗左)는 센리큐로부터 전해 오는 후신안에서 살았다는 점에서 그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센소사는 센리큐의 직계 손에게 세습되는 칭호였다. 또한 후신안은 센케의 저택 및 가족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센소사이에모토(千宗左家元)라는 칭호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오모테센케를 상징하는 후신안의 칭호는 「불심화개금일춘(不審花開今日春)」이라는 선어(禪語)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신(不審)은 ‘의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인간의 지혜를 넘은 자연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의미하였다.²⁸³⁾



<그림 4> 表千家 不審庵의 表門



<그림 5> 不審庵

우라센케(裏千家)는 다도 유파 중에서 최대의 유파로 알려져 있다. 종가(宗家)는 오코모테센케 종가와 인접해 있었다. 우라센케의 명칭은 센리큐에서 장자 상속을 이은 분가 오모테센케의 후신안에서 유래하였는데, 콘니치안(今日庵)이 길

283) 井口海仙, 久田宗也, 中村昌生(著), 『日本の茶家』, 河原書店, 1983. pp. 85~89.

에서 보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주창하며, 센케 다도의 기초를 쌓아올린 센소단은 3남 코우신소사에게 후신안을 물려주었고, 저택의 뒤편 부지에 다실(茶室)을 세워²⁸⁴⁾ 막내 소시츠(宗室, 1622~1697)²⁸⁵⁾와 함께 은거하였다. 센소단의 사후 소시츠가 이를 이어받아 독립하였는데, 이것이 “우라센케콘니치안(裏千家今日庵)”의 시작이었다.²⁸⁶⁾ 이후 콘니치안의 우라센케는 다도 유파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뒤편 차실에 은거하던 센소단은 다이도쿠지(大徳寺)의 센칸화상(淸巖和尚)을 다회에 초대하였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불 일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하였다. 그가 다실에 돌아왔을 때 화상은 이미 다실의 창호지에 ‘해태비구불기명일(懈怠比丘不期明日)’이라고 써 놓고 돌아가 버렸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지금 이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느낀 센소단은 그 뜻을 새기며 다실의 이름을 “콘니치안”으로 정했다.²⁸⁷⁾ <그림5>는 센소단의 차실 외부의 모습이며, <그림 6>은 차실 내부의 모습이다.²⁸⁸⁾



<그림 6> 裏千家 今日庵의 兜門



<그림 7> 今日庵의 내부

무샤노코우지 센케(武者小路千家)는 센소단의 2남 이치오소슈가 에도 초기에 교토에 있는 현재의 땅에 다실 ‘칸큐안(官休庵)’을 세운 후 센리큐의 다도 전통을

284) 센리큐의 양자이자 사위인 센쇼안(千少庵, 1546~1614) 이래로부터는 집의 대지 내에 다실을 세우게 되었다. 센쇼안이 세운 다실 「麟閣」은 지금도 福島県 会津若松市 若松城(鶴ヶ城)에 위치하고 있다.

285) 裏千家 4代 家元이다. 仙叟宗室에 의해 대대로 이름을 따왔다.

286) 千宗室(著), 『裏千家今日庵歴代(第4巻) 仙叟宗室』, 淡交社, 2008, p. 15.

287) Ibid.

288) 裏千家 今日庵 홈페이지에서 전사하였다.

계승하여 세웠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치오소슈는 한때 무샤노코지 근처의 키치몬자(吉文字屋)라는 칠공(塗師)을 업으로 하는 곳에 양자로 들어가 요시오카진우에몬(吉岡甚右衛門)이라 불렸다. 그러나 환갑을 앞에 두고 센케의 차 세계로 돌아와 형제들의 권유에 의해 칸큐안을 세우고 다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칸큐안은 아버지 센소단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²⁸⁹⁾



<그림 8> 武者小路千家의 通用門



<그림 9> 官休庵

이외에도 야부노우치류(藪内流)는 야부노우치켄츄(藪内劍仲, 1539~1627)를 시조로 하여 현재까지 1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야부노우치켄츄는 센리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다도를 함께 배우며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야부노우치케의

289) 井口海仙, 久田宗也, 中村昌生, op. cit., p. 18.

다실의 이름은 엔난(燕庵)이다.

또한 사도하야미류(茶道速水流)는 시조 하야미소타츠(速水宗達)가 제창한 “경화정숙(敬和靜寂)” 정신을 바탕으로 유파를 형성하였으며, 온후하고 우아한 다도를 추구하여 왔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모토는 데키겐쿄(滌源居)라고 하였으며, 우라센케로부터 분리하여 나온 유파였다. 일본의 다도 유파는 그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산센케 가문의 유파 이외에 야부노우치류나 사도하야미류를 포함하여 5대 유파로 분류하기도 한다.²⁹⁰⁾

일본의 3대 다도 유파와 5대 다도 유파는 다도와 관련된 역사성, 정체성, 교육정신, 그리고 다도교육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다도 전통은 직계혈통에 대한 다도교육을 통해 계승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철저한 혈연의식과 화합정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산센케가의 센리큐와 야부노우치류, 그리고 사도하야미류 등 일본 다도의 유파들은 철저한 도제식 다도교육과 실천적 다도교육을 통해 오늘날의 일본 다도를 형성해 왔다. 물론 이들의 다도교육에는 선사상의 소박함과 검소함, 그리고 미적 감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일본 불교의 정신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다도 유파들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된 일본의 다도문화는 오늘날까지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계승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이자 OSMU의 원천이었다. 교육적 측면에서 유파의 형성과 유파 내부의 교육방식은 일본 교육의 계급의식, 전통중시 사상, 섬세함,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을 대변해 주었으며, 이는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서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에는 차문화를 교육시키는 차 관련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유난히 많다.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차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통적인 다도 유파들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다기나 다도와 관련된 미술품, 그리고 다구 등을 전시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강좌를 개설하여 차문화를 교육시키고 보급하였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참가비를 받았으며, 개인 다도 모임이나 학교 체험학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도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일본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

290) 염숙, 『다도학입문서』, 국학자료원, 2009, pp. 184~185.

도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본식 정신교육도 행해지고 있다.²⁹¹⁾

뿐만 아니라 니치렌종의 한 종파인 니치렌정종은 1928년 교육자였던 마키구치 쓰네사부로가 창가학회를 만든 이후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니치렌 사상의 근본인 색심불이(色心不二)는 생명철학에서 출발하여 인격가치의 창조를 깨닫고 민중을 구제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웅대한 문화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불교 선사상에서 유래한 문화였다. 즉, 각 개인의 인생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생명 근원으로부터 창조성과 독창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혁명과 생활혁신, 그리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종교운동도 전개하였다. 종교단체로 발전한 창가학회는 2009년 기준으로 세대수가 1,000만을 넘어섰다. 현재 창가학회는 교육, 문화, 평화를 이념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세계 평화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²⁹²⁾

2. 정신적인 측면의 영향

1) 불교의 선종과 정신문화

정신적 측면에서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중국 선불교의 전파,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의 융합, 선사상과 와비사상의 확립, 외래사상의 일본화, 물질적·세속적 유희과 탐욕의 단절, 그리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실천 등이었다.

일본의 불교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6세기경 일본에 전래된 불교는 일본의 신도와 혼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일본에서 목격된 신불혼합 형태의 절충사상이었던 신불습합사상은 9세기부터 발달한 밀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밀교는 다른 불교 종파들과 달리 신도와 자연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신도와 불교의 혼합은 비교적 수월하였다. 초기의 일본 불교는 국가의 안녕을 비는 호국

291) 정형, 『사진·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 다락원, 2009, p. 125.

29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732&cid=40942&categoryId=31572> (검색일: 2014.04.23)

불교의 성격과 귀족들의 현세 이익을 달성해 주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중세에 들어와 일본의 불교는 개인의 영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로 바뀌면서 서민층까지 깊게 파고들었다. 이 시기에 불교의 선종이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불교에서 선은 정신적 집중을 위한 수련이나 훈련 등에 활용되었다. 이처럼 선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해 근세 일본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과 시기에서 중요한 정신문화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선사상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일본 선승들에 의해 도입된 선사상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침투되었다. 선사상은 일본인의 토속신앙인 신도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일본에서는 출산이나 결혼과 같은 기쁜 일은 신도의식으로 행하였고, 장례 등 죽음과 관계된 의식은 불교방식으로 행하였다. 일본의 일반 가정에는 불단과 신도의 신을 동시에 모신 가미다나(神棚)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신불습합사상은 9세기부터 발달한 밀교의 영향으로 광범위하게 발전하였으며, 일본인들의 문화생활 전반과 미의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에 일본의 선종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와 함께 선종의 청규(淸規) 속 다례의식도 자연스럽게 일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청규의 원조인 『백장청규(百丈淸規)』는 원래 당나라의 백장 회해(百丈懷海, 720~814)가 선종 사원의 규범을 성문화(成文化)한 것이었다. 선종이 아직 독립된 사원이나 제도, 그리고 의식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때 법당(法堂)이나 승당(僧堂), 그리고 방장(方丈) 등과 같은 제도를 설정하였으며, 중승(衆僧)에게 동서(東序), 요원(寮元), 당주(堂主), 화주(化主) 등과 같은 직책들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백장청규(百丈淸規)』였다. 이후 이 청규는 시대가 흐르면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없어졌으나, 1335년 원(元)나라의 백장 덕휘(百丈德輝)가 순제(順帝, 재위기간; 1333~1370)의 칙명을 받아 집대성하고 수정하였으며, 전국 선원에 전달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면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로 만들어졌다. 『칙수백장청규』에는 다도의 점다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

일본의 다도는 선종에서 파생되었는데, 이후 일본 다도의 기본 정신과 동작은 선종 의식에서 그 기원을 찾게 되었다. 중세 이후 일본인의 미의식은 불균형(不均衡)의 미학과 무광택의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선이

추구하는 무광택의 미의식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미의식은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徒然草)』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선각자이자 철학자였던 히사마츠 신이치(久松眞一, 1889~1980)는 그의 책 『선과 미술(禪と美術)』에서 일본인의 미의식은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제(不均齊)의 미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²⁹³⁾

2) 와비와 사비의 정신

불교의 선사상에서 유래한 와비와 사비는 일본의 미의식들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소박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본래 와비와 사비는 다른 개념이었다.

와비(侘, わび、侘びとも)란 동사「わぶ」의 명사형으로, 형용사「わびしい」에서 쉽게 추리할 수 있듯이 완벽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변변치 않은 상태, 또는 간소한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상태, 즉 빈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단어는 본래 좋은 개념이 아니었지만, 선종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이미지로 순화되어 미의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이 단어는 간결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와비는 간소한 모습 또는 부족하고 빈약한 상태의 이미지를 의미하였다. 와비에 관한 기술은 『만엽집(萬葉集)』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와비를 미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예는 에도 시대의 다도에 관한 책 『남방록(南方錄)』에서 찾을 수 있다. 와비의 미의식은 다도에서 이론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와비차(侘茶)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에도 시대였다. 와비차는 현재 일본 다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센리큐였다.

사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적요(寂寥)’, ‘숙·로(宿·老)’, ‘대연(帶然)’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사비란 한적한 정취를 떨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는 가운데 무한히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일컬었는데, ‘와비’ 또는 ‘한적(閑寂)’함이란

293) 히사마츠 신이치는 수행과 학문 일치를 주장하며 ‘참 사람(真人)’을 추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거사로서 선의 근본정신을 현대에 펼치고자 FAS 협회를 설립하는 등 참사람 구현을 선도하였다.

철저하게 한적한 경지에서 모든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비였다.²⁹⁴⁾

사비(寂, さび、寂びとも)는 동사「さぶ」의 명사형으로, 본래 시간의 경과에 의해 퇴화되거나 소모된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후 한자의 ‘적(寂)’ 자가 붙여져서 사람이 사라지고 적막하고 고요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변화하였다. 본래 이 단어는 좋은 개념이 아니었지만, 『도연초(徒然草)』 등 고서적에 깊은 풍취가 있다는 뜻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좋은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도연초』 등장 시기부터 사비에 미를 표현하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사비는 후지와라노 슌제이(藤原俊成)가 그의 가론(歌論)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 의미로서 해변의 서리 내린 벗짚의 이미지를 예로 들어 고독과 황량한 정조(情調)를 강조했다. 제아미(世阿弥あみ : 1363~1443)나 신케이(心敬, 1406~1475) 등과 같은 중세의 예술인들에 의해 사비의 정신은 더욱 황량한 것으로 추구되었고, 그 미적 이념은 더욱 고담(枯淡)의 정취를 담게 되었다. 이 미의식의 본바탕에는 인간의 고독을 인식하고 그 고독에 몸을 맡김으로써 아름다움을 찾아내고자 했던 중세 일본 불교도들의 특유한 우주관과 세계관이 깔려 있었다.²⁹⁵⁾

현재 사비라는 단어는 푸른 정적 등과 같은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세 일본의 미의식은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현실적이고 향락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계의 세련된 행위와 태도를 통해 형성된 것인데, 우키요조시나 샤레본을 비롯한 산문문학과 가부키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유곽과 같은 곳에서 유흥을 통해 느끼는 미적 가치로서 스이(粹),²⁹⁶⁾ 쓰(通),²⁹⁷⁾ 이키(意氣)²⁹⁸⁾ 등이 여기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가치를 떠나 현실의

294) 復本一郎, 『芭蕉における「さび」の構造』, 塙書房, 1973, p. 41.

295) 정형, op. cit., p. 124.

296) 스이(粹)는 유흥의 세계에 탐닉하나 그 세계에 함몰되지 않는 여유를 가진 멋쟁이를 말한다. 유곽과 유녀를 많이 다루는 사이카쿠의 호색물이나 샤레본, 또는 가부키 무대 속에 자주 등장한다.

297) 쓰(通)는 소위 어떤 것에 해박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미의식으로 의미상 요즘의 매니어에 가깝다. 샤레본과 같은 작품에서 신참이나 풋내기과 달리 놀이에 능숙하고 정보에 해박한 인물을 통해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298) 이키(意氣)는 도회풍의 세련된 행동과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매너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미의식으로 에도 사람들의 기질을 대변하는 용어이다. 또한 에도 사람들의 기질을 강하게 나타내는 '하리'는 긴장감 있는 태도와 팽팽한 줄다리를 연상시키는 심리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함과 불편함을 통해 만족과 풍요를 감지하는 수행자적인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주로 하이카이(俳諧)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바쇼(芭蕉)에 의해 다양한 미의식이 추구되었다. 이는 와카나 렌가 또는 가면극 노를 통해 이미 형성되었던 전통적 미의식이었는데, 와비나 사비를 근세적인 미의식으로 심화시켰고, 이를 가루미나 시오리 등으로 발전시켰다.

에도 시대 전기 겐로쿠(元祿) 시대에 하이쿠 시인 하이카어로 알려졌던 마쓰오 바쇼(松尾, 1644~1694)²⁹⁹⁾는 많은 여행을 통해서 와비와 사비의 미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사비는 와비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와비는 주로 인간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었던 반면, 사비는 주로 자연에서 유발되는 적막감과 같은 것이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사비는 예스럽고 정취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세련된 한적함을 말하는 하이카이의 근본이념으로 사용되었다. 사비는 중세의 와카, 렌가, 그리고 와비차 속에서 사비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면서 한적함을 지향하는 정신으로 적용되었고, 바쇼의 하이카이에서는 미적 이념으로까지 승화되었다.³⁰⁰⁾ 그가 말하는 사비의 세계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됨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인정의 미를 잃지 않는 서민적 미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비의 미학을 하이쿠에서 완성한 시인이 바쇼였으며, 와비차에서 완성한 사람이 센리큐였다.³⁰¹⁾ 그의 제자가 쓴 최고의 하이카이 이론서인 『교라이쇼(去來抄)』에는 사비에 대하여 하이카이 구(句)의 색(色, 빛깔)으로 단순히 한적한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구에도 조용한 구에도 있는 색을 말한다고 적혀있었다. 즉, 사비는 하이카이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내재된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무장을 갖추어 입고 싸우거나 멋진 의상을 걸치고 연회석에 임하거나 하여도 어디에나 늙은 모습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따라서 사비는 작자의 마음에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었

299) 마쓰오 바쇼(松尾 芭蕉, 1644~1694)는 에도 전기의 가인(歌人)이자 학자였던 기타무라 기긴(北村季吟)의 문하에서 하이쿠를 배웠다. 그는 「쇼후(蕉風)」라 불리는 예술성 높은 문장 경향을 확립하였으며, 후세에 「하이쿠의 성인(俳聖)」으로 불렸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일본 역사상 최고의 하이쿠 시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바쇼라는 필명을 썼다. 그는 제자 가와이 소라(河合曾良)와 함께 에도(江戸)를 비롯한 도호쿠(東北), 호쿠리쿠(北陸) 지방을 돌며 기후(岐阜)의 오가키(大垣)까지 여행한 기행문 『오쿠노 호소미치(おくのほそ道)』를 남겼다.

300) 정순분, op. cit., pp. 235~240.

301) 김용범, 『看茶錄』, 개미, 2011, p. 34.

지만, 취향이나 말, 그리고 소재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사비가 될 수 없었다. 즉, 사비란 조용한 상태로 적적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다.³⁰²⁾ 이 개념은 중세 이후에 형성된 미의식으로서 간소한 상황 속에서 맑고 깨끗하며 한적한 멋을 찾아내자는 미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 개념은 다도에서 중시되는 정신세계였으며, 조용한 다실에서 차를 마시는 데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일본다도는 선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와비 또는 사비라는 정신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일본 다도문화의 정신적 근간이었다.

3) 센리큐가 강조한 4규7칙의 다도 정신

일본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센리큐가 주장한 다도의 정신은 「시키시치소쿠(四規七則)」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다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손님을 접대하는 정성이라고 하였으며, 손님도 다도의 예법에 어울리는 복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은 역시 주인의 정성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임하는 자세라 하였다. 이러한 센리큐의 가르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는 다인의 기본정신을 ‘화경청적(和敬清寂)’이라는 ‘사규(四規)’로 규정하였으며, 손님을 맞아 차를 대접할 때 지켜야 할 7가지 도리를 ‘칠칙(七則)’으로 규정하였다.³⁰³⁾ 이는 다도를 정신문화로 전승시키는데 필요한 일종의 텍스트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센리큐가 강조한 4규7칙(四規七則)의 다도 정신 중 4규인 화경청적은 정숙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한다는 다도의 기본 규율이자 정신이었다.

화(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교와 유교의 덕목인 조화였다. 다도에서 사람들이 교류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성을 담은 작법(作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화라는 덕목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³⁰⁴⁾ 이는 서로 사이 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과 불심으로 서로가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를 일컬었다. 다실에 모인 주인과 손님은 각기 개성을 발휘하는 독립적 또는

302) Ibid., p. 35.

303) 센 겐시쓰, 박전열 역, 『일본 다도의 마음』, 월간다도, 2006, p. 7.

304) Ibid., p. 8.

독보적인 존재이면서도, 모두 함께 부처의 성정으로 돌아감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화였다. 이는 각자가 개성을 지닌 사람임과 동시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심을 지님으로써 하나가 되는 상태의 정신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는 주인과 손님은 각기 개성을 발휘하는 독립적인 존재였지만, 다실에서만큼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의미하였다.

경(敬)은 주인과 손님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써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겸손의 정신을 의미하였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일방적으로 윗사람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나 손님 모두가 존엄한 인격체임을 서로 인정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을 일컬었다. 이는 서로 합장하는 자세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다도에 임하라는 의미였다.

청(淸)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떨쳐버리는 정신세계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다실과 다구를 청결하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외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한 상태로 임하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떨쳐 버림으로써 참된 자유로움을 얻고, 청정무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경지를 득하라는 의미였다. 또한 이는 정신세계의 청정뿐만 아니라 다실과 차 도구를 청결하게 다루는 일도 포함하는 정신이었다. 이는 일본의 신도 정신과 상통하는 정신이었다. 또한 청은 다실로 들어가는 로지에서 속세의 더러움을 씻는 츠쿠바이(蹲踞)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다도에서 가장 일본적인 정신적 요소였다.

적(寂)은 다도의 가장 이상적인 경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다실에서 늘 정숙하고 주위에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의 정적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는 다실에서 항상 조용한 상태로 정적을 유지하며 동요하지 않는 고요하고 텅 빈 마음으로 다도에 임하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다도에서는 공간적인 정적을 뛰어넘어 주위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 정신적인 정적 상태를 요구했다. 이는 불교적인 의미의 원적, 즉 열반 또는 대조화의 경지와 상통하는 의미였다.

불교의 선종은 승려들의 생활양식으로 화, 경, 청, 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일본의 다도는 불교의 선종에서 받아들인 참선의 정신과 의례의식을 차를 마시는 정신세계와 과정에 응용하였으며, 정신 수양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센리큐는 불교 선종 승려들의 생활양식을 바람직한 다인들의 생활방식으로

로 간주하였다. 그는 다실의 분위기나 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도 이 네 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도를 통해서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의 경지란 다도의 경지와 같은 것이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이는 다도를 수련해서 얻은 경지와 참선을 통해서 얻은 경지는 같은 것이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낳았다.

이와 같이 다도의 4규인 화경청적은 주인과 손님이 다실에 모여 진행하는 다회에서 다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이상적인 정신세계였다. 다도는 다실과 차 도구라는 예술품으로서의 물질세계와 더불어 화경청적이라는 정신세계를 지니고 있었다. 화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였으며, 청적은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의미하였다. 이 두 가지 세계는 일본 사람들을 다도로 인도하는 매력의 근원이었다.

7칙은 다도의 예법을 의미하였다. 첫째는 바른 마음으로 차를 짓는 것(茶は服のよきように点て)인데, 이는 차를 마시기 쉽게 하도록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둘째는 솥을 물을 끓을 정도로 적당히 놓는다는 것(炭は湯の沸くように置き)인데, 이는 재와 솥은 물을 빨리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셋째는 정원에 꽃이 있도록 한다는 것(花は野にあるように入れ)인데, 이는 다실의 꽃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쓴다는 의미였다. 넷째는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한다는 것(冬は暖かく夏は涼しく)인데, 이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섯째는 정해진 시간보다 서두른다는 것(刻限は早めに)인데, 이는 다도 모임에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여섯째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준비한다는 것(降らずとも雨具の用意)인데, 이는 눈이나 비가 오는 날뿐만 아니라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일곱째는 성심을 다해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것(相客に心せよ)인데, 이는 손님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본질을 꿰뚫어야 하며, 자연과 계절 감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며, 여유를 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였다.³⁰⁵⁾

그 외에도 일본의 다도에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미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

305) 셴 겐시스, op. cit., pp. 19~20.

다. 이는 사람과의 만남을 일생에 단 한 번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상대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센리큐의 제자 야마노우에소 우지(山上宗二, 1544~1590)는 『산상종이기(山上宗二記)』에서 ‘一期に一度の會’³⁰⁶⁾라고 말했다. 일기(一期)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사이를 의미하였으며, 일회(一會)는 주로 법요(法要) 등에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하였다. 이 두 단어는 불교의 용어인데, 이를 통해 일본 다도는 불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선사상과 화경정적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일본 전통다도는 근대 이후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대중 다도문화로 발전하였다.³⁰⁷⁾

일본의 다실문화나 정원문화에는 선사상과 와비사상의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일본 불교가 정신적으로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이다. 현재 일본에서 정원과 정원 내 다실, 그리고 사찰의 건축물들은 차문화 콘텐츠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의 정신과 일본 차문화의 진수를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은 정원과 다실이다. 정원과 다실은 일본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본 문화의 전통을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일본 다도정신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본 불교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사회적 측면의 영향

사회적 측면에서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불교와 신도의 융합, 전통과 외래의 화합, 외래문화의 수용, 사찰 중심의 다회 활동, 그리고 사찰 내 다실 설치를 통한 대화와 소통 공간 제공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매시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과 소통을 잘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소통문화는 6세기 이후 전래된 도교와 불교의 전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교와 불교는 일본 민중들에게 전파되면서

306) 神津朝夫(著), 『山上宗二記入門—茶の湯秘伝書と茶人宗二』, 角川学芸出版, 2007 참조.

307) 센 겐시스, op. cit., pp. 19~20.

화합과 융합 그리고 혼합을 중요시하였다. 일본의 불교와 도교는 일본 고유의 민간신앙인 신도와 혼용되어 신불습합사상을 낳았다. 신불습합사상은 일본의 정원문화와 차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불교문화와 정원문화와 차문화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왔듯이, 일본의 다도문화도 소통과 교류로 이루어진 문화였다. 또한 일본의 정원문화는 고대 이후 단순히 예술문화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농업 생활의 길흉(吉凶)을 점치고 신과 소통한다는 종교적 목적에서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정원문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다도문화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정신세계의 소통과 교감에 의해 행해졌다. 이러한 전통적 소통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일본 정원문화와 다도문화는 다양한 계층과 사상간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문화적 개량, 정신적 개선, 예술적 조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문화를 창조해 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포괄적 사고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생활에 응용하였다. 일본인들은 이를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정신이라 불렀으며, 일본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의 지위를 구축하였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불교가 탄생했다. 가마쿠라 신불교는 구불교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생활태도를 요구했던 것에 반해, 염불과 선의 실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실천행위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신불교는 세속적이었지만 단순한 생활을 선호했던 무사나 민중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뿐만 아니라 신불교는 일본의 다도문화나 정원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일본 문화는 다른 문화나 언어, 그리고 습속 등을 가진 이질적인 타자(他者)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同化)시켜 독자적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동화라는 것은 원래 이질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동질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배제나 차별의 논리가 작동하였다. 하지만 일본 문화는 내외부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안으로의 동화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요하였으며, 이런 동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깥으로 내몰아 차별하는 이중적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³⁰⁸⁾

308) 공익식 외, op. cit., pp. 146~150.

신불습합사상이나 화혼양재의 정신은 일본의 역사와 일본인의 행동양식을 지배해 온 핵심적인 일본적 가치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은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문명을 배타적으로 응시하기보다 자신들의 후진성을 질타하고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바꾸어 가겠다는 전향적 사고와 선진문물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소통문화였던 것이다.

일본 문화가 외래문화와 소통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정복이나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류역사에서 하나의 문화집단이 다른 문화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평화적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정복이나 침략이라는 군사적 형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일본은 경계심이나 공포심이 없는 상태로 선진문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일본 문화의 심층에 있는 자연성과 자발성이 발휘되어 일본의 독특한 창조성을 만들어 냈다.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1906~2002)³⁰⁹⁾ 교수는 일본의 말차 다완(抹茶茶碗)과 같은 기묘하고 소박한 예술품을 만든 국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참된 것은 자연에 뿌리를 둔 흙의 예술이었으며, 이는 하이쿠(俳句)를 비롯한 일본 문학의 대표적 특성이란 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재료를 발달시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지만, 일본의 경우는 재료를 전혀 발달시키지 않고 같은 기술을 명인(名人)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서가 바로 외래문물의 수용과정에서 일본의 독창성을 확보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³¹⁰⁾

일본인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 이문화수용에 대한 긍정적 자세, 그리고 자연주의로의 회귀정서 등이 화혼양재의 정신이었으며, 이는 외래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하였다. 이를 일본적 가치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와 화(和)의 정신은 수전(水田) 농경민족이라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 내부에 형성되었던 또 다른 형태의 일본적 소통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³¹¹⁾

309)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는 일본의 고고학자로 동북아시아의 기마민족이 일본 황실의 기원이라는 '기마민족정복왕조설'을 발표해 큰 충격을 던졌다. 동서문화의 교섭사에 조예가 깊었으며, 이라크-이란 유적조사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 『기마민족국가(騎馬民族國家)』 등이 있다.

310)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 한길사, 2012, pp. 12~25.

일본인들이 차 마실 때 가지는 마음가짐 중 화(和)의 정신은 평화(平和)와 인화(仁和)의 정신이었다. 화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마음가짐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조화(調和)를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경(敬)은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물(다기와 차 도구 등) 등 다양한 요소들 간의 균형 잡힌 감각과 미의식을 의미하였다. 이는 차문화 속에 숨겨진 상호 존중과 소통, 그리고 대칭적 예술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³¹²⁾

일본의 차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은 일본인들이 불교의 화경청적과 정토사상, 그리고 선사상 등을 일본의 고유 신앙과 접목시켜 다양한 소통을 이룩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통해 동서양 양식이 융합된 일본식 차문화와 정원문화를 창출해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에서는 일본 전통문화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외래문화의 콘텐츠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문화와 동서양 문화의 조화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일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대변해주었다.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처음에 동양의 대륙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근대 이후에는 서양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외래문화의 유입과 융합, 그리고 소통을 통해 형성된 일본적인 전통과 정신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의 정신적 가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일본인들이 융합된 형태의 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본식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외래문화와 소통하고 조화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에서 다양하게 목격되고 있다.

일본의 차문화는 자연과의 조화, 인간사이의 예의와 배려, 그리고 겸손과 평등이 내포된 사회적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다실은 비밀상적인 좁은 공간으로서 주인에게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다실은 풍류의 공간이라기보다 정신세계를 음미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정식 차회를 행할 경우 일정한 순서와 흐름을 따랐다. 차회는 4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초좌(初座)에는 가

311)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주)살림출판사, 2005. pp. 33~35.

312) 김영, 『일본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2008, p. 165.

이세키 요리와 다과를 대접하고, 후좌(後座)에는 고이차(濃茶)와 우스차(薄茶)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이때 차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잔의 차를 내어 돌려가며 마셨다. 이는 한 잔의 차를 통해 공동의 의례를 지킨다는 의미였으며, 고도로 세련된 문화로 타인과의 인위적 관계를 잊고 일심동체의 사회적 평등 관계를 갖는다는 의식이었다. 일본의 차회는 차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고, 자타가 구별되지 않는 정신적 소통문화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일본의 불교는 차문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일본 문화가 불교의 선사상과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을 매개로 다양한 융합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이룩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목격되고 있다. 외래문화였던 불교의 선사상은 일본 문화와 융합과 화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전통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를 통해 일본 차문화와 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소통과 융합, 그리고 화합의 과정을 거쳐 일본식 다도문화와 정원문화가 창출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불교는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적용, 수용, 응용, 융합, 화합, 소통, 그리고 다양성의 사회적 지표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4. 예술적 측면의 영향

일본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를 통해 일본인의 전통에 대한 애착과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전통과 문화와 예술에서 계절 감각과 미의식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요건들은 일본의 다도를 격조 높은 와비라는 미의식으로 승화시켰다. 소박함과 적막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다도사상은 15세기에 유행한 불교의 선종과 선사상과 결부되면서 꽃을 피웠다.

일본에서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곳은 선종의 사찰이었다. 사찰은 외래문화를 도입하고 소개하면서 일본 문화의 예술세계를 이끌어 나갔다. 안라쿠지(安樂寺)의 삼중탑(三重塔)은 팔각의 중국풍으로 건축되었다. 이는 당시 선종의 건축양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본의 정원은 사상과 예술적 요소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본은 화산 지대의 장년기 지형으로 풍부한 산림의 혜택이 주어진 나라였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이 세상을 최후의 은신처로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 속에 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며, 이를 위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미단이문을 끼워 뒷마루를 돌리는 형식이 주택의 기본을 형성하였다. 미단이문을 열면 자연이 보여 집 밖의 풍경과 실내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 정원이란 생활공간을 자연과 융합시키고 자연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정원은 일본인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토종과 선종의 도입으로 정원은 종교적·사상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일본인들의 미의식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보도인의 정토 양식 정원과 선종 양식 가례산스이 정원은 종교와 사상, 그리고 예술이 접목된 대표적 문화공간이었다.

무로마치 시대의 정원과 다실, 그리고 다도정원인 차테이는 전란이 끝나고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성곽 내부나 대저택 내부에 조성되었다. 귀족과 상류층 중심의 화려했던 정원 양식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의 정원 양식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조성되었으며, 다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고, 다실에 이르는 좁은 길을 조경하는 양식도 개발되었다. 이 시기의 다도정원은 일종의 정신수양 공간이었으며, 다실로 가는 자연정원이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정신적 기반인 선사상을 바탕으로 정신수양을 행하는 소박하고 청정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원에는 담겨진 물로 손과 입을 깨끗이 씻는 츠클바이와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갈길과 징검다리, 그리고 돌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는 화려함을 배제하고 장식적인 미적 감각을 거부하며 오로지 검소함과 소박함만을 추구했던 선의 정원이었다. 이런 양식의 정원은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후에 일반 주택 정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용되었다.³¹³⁾

일본에서 꽃꽂이는 가도(花道) 또는 이케바나(生け花)라고 불렀다. 도(道)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외관의 장식보다 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정신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다. 이케바나는 다도와 함께 일본 고유의 예술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케바나는 6세기경 불교의 승려들이 부처님께 꽃을 바쳐 제단을 장식한 것

313) 김영, op. cit., pp. 180~188.

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꽃을 꽃는 일이 예술의 한 형식이 된 것은 15세기부터였다. 꽃꽂이는 처음에 자연 그대로의 소재와 모습을 중시했으나, 차츰 자연의 것을 이용하면서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말경부터 시작된 세이카(生花)는 3각형을 구성하는 3개의 선(線)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높은 선은 하늘, 두 번째 선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선은 땅을 나타내어 균형 있게 꽃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품는 소박한 예술을 창출하였다.³¹⁴⁾

건축에서도 무로마치 시대에 서원형 건축 양식인 쇼인즈쿠리(書院造)가 등장하였다. 이 건축 양식은 불교의 선종사원에서 비롯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 쇼군의 별장으로 세워진 킨카쿠지와 긴카쿠지는 모두 쇼인즈쿠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다. 기타야마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세운 킨카쿠(金閣)의 1층은 왕조 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신덴즈쿠리(寢殿造) 양식, 2층은 무사들의 취향인 화요(和樣) 건축의 불당 양식, 3층은 선종 양식의 불당으로 되어 있었다. 이 건축물은 바로 공가문화와 무가문화를 통일하여 스스로 일본 최고 권력자임을 자부하였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지은 예술적 건축물들이었다. 금박을 입힌 건물이 교코지 연못에 황금색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모습은 교토를 대표하는 예술적 풍경이었다. 정원은 국가특별사적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무로마치 시대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1482년 2월 21일부터 지은 지쇼지(慈照寺)의 대표 건축물은 관음전으로 긴카쿠(銀閣)라고도 불렸다. 관음전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층으로 지어졌으며, 지붕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봉황 조각상이 있었다. 1층 신쿠덴(心空殿)은 일본의 전통적인 주택의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2층 조온카쿠(潮音閣)는 중국 사원 양식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불당과 관음상도 설치되어 있었다. 정원의 북쪽에는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1486년에 세운 도큐도(東求堂)가 있었다. 그 안에는 도진사이(同仁齋)라 하여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었는데, 현존하는 서원양식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1485년 선종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그는 이곳에 불상을 모셔 놓고 자신의 개인 사원으로 이용하였다. 도큐도 앞에는 긴쿄지(錦鏡池)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관음전 앞까

314) 허인순 외, 『이미지로 읽는 일본문화』, 어문학사, 2009, pp. 102~103.

지 이어져 있었다. 흰 모래를 잔잔한 물결 모양으로 꾸며놓은 모래 정원은 긴사단(銀沙灘)이었다. 정원 한쪽에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모래더미는 달빛이 반사되도록 만든 구조물이라 하여 고게즈다이(向月台)라 불렸다. 이 정원은 쓰키마치야마 산에 떠오르는 달빛을 2개의 모래 산이 반사해 그 빛으로 정원을 감상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본래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세운 킨카쿠지를 본보기로 삼아 화려한 건축물을 지으려 하였다. 그는 킨카쿠지가 금으로 씌워진 예에 따라 킨카쿠지의 외관을 은으로 씌울 계획을 세웠고, 이때문에 긴가쿠지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하지만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사망 이후 킨카쿠지는 미완성 상태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뜻에 따라 불교의 선종 측에 기증되어 쇼코쿠지(相國寺)의 말사가 되었고,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불교식 이름을 따 지쇼지로 개칭되었다. 이후 킨카쿠지는 센고쿠 시대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간파쿠(關白)였던 고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 1536~1612)³¹⁵⁾의 별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쇼코쿠지의 말사로 활용되었다.³¹⁶⁾

킨카쿠지와 긴가쿠지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찰이었으며, 일본 정원문화의 정수였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성을 지닌 대표적 건축물이었다. 두 사찰의 건축양식과 구성요소, 그리고 사찰의 콘텐츠들은 일본 차문화콘텐츠와 정원문화콘텐츠의 OSMU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문화관광콘텐츠의 중심축 역할을 행하고 있다. 두 사찰의 문화·예술적 기능과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문화콘텐츠 활용 방식은 향후 한국의 사찰중심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방안 수립에서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의 주요 건축물들은 대부분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환경의 조건과 예술성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목조건물로 만들어진 주거 공간들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집안의 미닫이나 칸막이는 주로 나무

315) 고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 1536~1612)는 후지와라 가문(藤原氏)의 적류 고셋케답게, 와카, 그리고 렌가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서도는 쇼렌인류(靑蓮院流)를 배웠고, 고래의 선례에 기반 한 관직, 의식, 복식 등의 예법에도 정통했다. 더욱이 승마술과 매 사냥 등에도 발군의 역량을 보여 매 사냥 전문 해설서를 겸한 가집도 집필하였다. 그는 교토에서 추방당했으며, 지방 각지를 유랑하며 생활하였는데, 이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그가 지방을 유랑하며 남긴 문화적 소양은 지방에 중앙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316) 구태훈, 『일본문화사』, pp. 232~233.

와 종이를 사용하였고, 방바닥은 통풍이 잘되고 습기를 방지하는데 유용한 다다미를 사용하였다.

한편 현대 전통예술로 공연되고 있는 노는 기타야마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 장르였다. 원래 신사예능(神事藝能)에서 출발한 사루카쿠(猿樂)와 덴가쿠(田樂)는 여러 가지 예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점차 가무와 연극의 형태를 취하는 노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노악사(能樂師)는 다른 예능처럼 동업 조합(座)을 만들어 사원과 신사의 보호를 받았다. 이들 중 야마토사루가쿠(大和猿樂) 사좌(四座)의 간제자(觀世座)에서 나온 간야마(觀阿彌)와 제아미(世阿彌) 부자는 장군 요시미쓰의 보호 하에 사루가쿠(猿樂)를 완성하였다. 처음에 사루가쿠는 곡예나 사람을 웃기기 위해 흥내 내는 재주였는데, 여기에 노래와 무용이 첨가되어 사루가쿠노(猿樂能)로 발전하였으며, 공가나 사사(寺社)의 행사에서도 여흥으로 공연되었다. 여기에도 불교의 사상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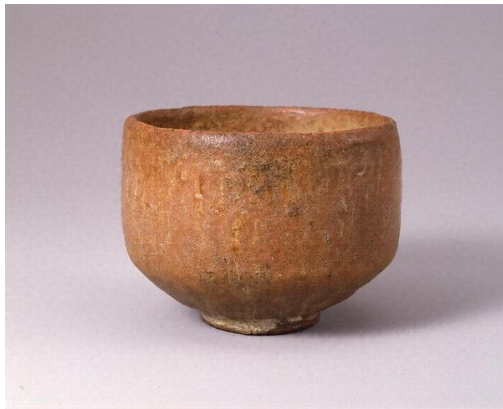
덴가쿠는 모심기를 할 때 신에게 풍년을 기원했던 예능이었다. 이는 일할 때 박자를 맞추거나 피로를 풀기 위한 소박한 형식이었다. 일본 요리 중에 두부나 곤냐쿠(菰蕪, 우무)라고 하는 것에 꼬챙이를 꽂아서 일본 된장을 발라 구운 것을 덴가쿠(田樂)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덴가쿠라는 예능에서 유래된 것으로 교토에서 성행하였으며, 덴가쿠노(田樂能)라고도 불렸다. 당시 노를 행하는 사람들의 지위는 아주 낮았다. 그런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간아미와 제아미 부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노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³¹⁷⁾

무로마치 시기에 발달한 쇼인즈쿠리 양식의 예술성은 창문, 선반, 도쿄노마(床の間), 그리고 다타미(疊)를 간 방에서 목격되었다. 이 양식은 훗날 일본 주택 건축의 주류가 되었다. 이 양식에는 불교와 선종사상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은 창문 등 내부의 소박한 장식과 구도에서 목격되었다.³¹⁸⁾ 쇼인즈쿠리 양식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를 활용하여 와비차의 원류를 창시한 사람은 센리큐였다. 그는 나이 61세가 되는 해부터 독자적인 다도를 시작하였다. 그는 초암차를 다도의 구체적 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실과 다도구의 이상적인 소박한 모습을 발견하였고, 행다의 합리적이고 간소한 절차를 정하였다. 이는 간소하고 차분한 일본의 대표적인 미의식이었던 와비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317) 구태훈, op. cit., p. 223.

318) Ibid., pp. 231~233.

차문화콘텐츠 관점에서 센리큐 다도가 지니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은 실용성, 간편함, 간소함, 편리함, 그리고 금욕주의 정신이었다. 이는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대표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센리큐의 정신을 계승하여 화려함보다는 간소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며 창작된 작품이 라꾸다완(樂茶碗)³¹⁹과 모즈야가마(万代屋釜)³²⁰로 대표되는 리큐도구(利休道具)였다. 여기에는 조형적인 화려함과 장식성을 부정하였다는 특징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림 9>와 <그림 10>³²¹ 이전까지는 중국의 유명한 다기나 고려 다완 등 화려한 고급품들이 선호되었으나, 센리큐는 자기 스스로 실용성을 강조한 도구들을 디자인하여 장인들에게 간편하고 소박하게 만들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값싼 국산 차도구들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무사계층에게도 전파되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의 예술적 심미안과 검소한 선사상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림 10> 赤楽茶碗 銘「無一物」(長次郎作, 潁川美術館蔵), 国宝・重要文化財(美術品)

- 319) 16세기 후반(天正年間) 도자기 장인이었던 초지로(長次郎, ?~1589)가 센리큐의 지도에 의해 주라쿠다이(聚楽第)를 건축할 때, 땅 안에서 파낸 흙(聚楽土)을 사용하여 구운 주라쿠야키(聚楽焼: じゅらくやき)가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헤라만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테츠크네(手捏ね: てづくね) 방식을 창안했는데, 이는 750~1100도에서 도자기를 구운 난질시유도기였다.
- 320) 모즈야가마(万代屋釜)는 차의 찻물을 데우는 솔의 하나로 도깨비얼굴의 둥근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어깨와 허리에는 2줄의 선이 있고 그 사이에 장식문양(播座)이 있다.
- 321) <그림 9>는 財団法人潁川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직경 11.2cm의 長次郎의 작품이다. 사진은 財団法人潁川美術館 홈페이지에서 전사하였다. <그림 10>은 胴徑 8寸5分の 모즈야가마로 콘니치안(今日庵)이 소지하고 있으며, 요지로(与次郎)가 만든 작품이다. 카와다 쇼지(河田松寿)씨의 홈페이지에서 전사하였다.



<그림 11> 利休 万代屋釜(与次郎作, 今日庵藏)

우라센케 11대 이에모토 겐겐사이는 1856년 「법호보수마」라는 글을 통해서 데마에(点前)를 익히는 순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850여 종에 달하는 데마에의 종류와 취급법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점다(点茶), 즉 데마에란 다실에 차 도구를 가지고 와서 다다미 위의 정해진 위치에 놓고, 정해진 방법으로 차 도구를 사용하여 차를 달이는 작법을 일컬었다. 차 도구들은 다실 안쪽의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 구도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였고, 데마에를 통해 적절하게 활용되어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모습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차 도구와 데마에는 가장 아름다운 미적 모습으로 차를 만들어냈다. 차를 우려내는 동작과 과정에는 느낌의 미학과 빠름의 미학이 섞여 있었으며, 심적 긴장관계도 있었고, 움직임의 예술적 이미지도 담겨있었다. 그것은 차를 우려내는 아름다운 동작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아름다움이였다. 하지만 이런 동작을 습득하는 것만이 데마에의 예술적 감각과 미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차문화의 미적 감각과 예술적 이미지는 차 도구, 특히 다완을 감싸 쥐는 마음, 다시를 닦는 깨끗한 마음, 차를 달일 때의 조심스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깊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차문화를 접할 때 비로소 좋은 데마에가 되는 것이었다.³²²⁾ 겐겐사이가 데마에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다도의 예술 세계와 미적 감각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였다는 의미였다. 또한 이는 차문화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차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 개발에 불교의 선사상과 다실문화, 그리고 정원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

322) 셴 겐시쓰, op. cit., pp. 31~67.

다는 의미였다.

결론적으로 예술적 측면에서 일본의 정원문화와 다도문화는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선사상의 간소함과 자연의 원시성, 그리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의 다양성과 합리성, 그리고 규칙성도 표현해 주었다.

5. 산업적 측면의 영향

문화산업(관광산업 포함)은 일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다. 또한 문화산업은 소프트파워로서 일본 산업의 해외진출에 커다란 힘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산업이었다. 일본 정부는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풍부한 감성과 미의식을 기반으로 전통문화를 재평가하였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자원대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화자원은 현대문화는 물론이고 전통문화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현대화와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보고였다.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의 전통문화 영역에는 다실문화와 정원문화 등 차문화와 차문화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도는 일본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었다. 일본 차문화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실, 정원, 차 도구, 그리고 다도였다. 이런 이유로 다도는 일본 문화산업의 중요한 소재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다도는 전통문화의 영역이면서 일본의 지적 재산이었다. 또한 차가 가지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차도구는 제작 유통되어 고부가가치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었다. 한편 다도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화집의 출판과 유통은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적·창의적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공해주었고, 이런 아이디어는 차문화콘텐츠 제품 생산에 반영되고 있었다.

2007년 일본에서는 「일본문화산업전략」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감성이 풍부한 토양을 충실하게 함과 전략적인 발신'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문서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목표가 잘 드러나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프트 파워 강국의 정책 추진 방향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며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과 일본이

“문화자원대국”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계의 학계에서 문화산업³²³⁾이라는 개념은 193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문화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었다. 문화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켈처노믹스³²⁴⁾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한 호주 맥쿼리 대학의 데이비드(David)는 문화의 개별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①창조성 포함, ②상징적인 의미의 생산이나 커뮤니케이션, ③그 생산물은 일종의 지적재산 등 3가지 성격으로 지적하였다. 문화산업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다도전통이 구체적인 문화산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요약하면, 지적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소비재라는 측면, 그리고 다방면에서 창조적 원천소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산업적 측면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²⁵⁾

일본에서 사회적 또는 국가적 관심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다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며 실용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오늘날 일본 다도는 소중한 전통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도를 향유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다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고려

323) 문화산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식물, 음악, 텔레비전, 영화, 출판, 공예, 디자인, 비디오 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이나 시각예술, 무대예술, 스포츠, 광고,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채용과 부를 창출한다. 창조성을 기르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산업은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채용하면서 동시에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의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요인은 문화적 재산, 서비스, 그리고 투자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 결과 문화산업에서는 국제화가 진행된다. 그 결과 제2, 제3의 거대한 복합기업, 즉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산업 개념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독일어에서 온 것으로 국제적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고도 성장기에 장래의 성장사회를 예상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전통적인 정신적 가치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 문화 발전 차원에서 의식개혁을 주도하는 문화산업의 흐름이다. 현대 일본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은 이 양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24) 뉴스위크 일본판 2002년 신년 합병호에 경제학자인 컬럼니스트 로버트 사무엘슨은 '글로벌 경제, 실패의 본질'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번 경기 하강 국면의 불안한 점은 미국, 유럽, 일본 3국이 동시에 경기 후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켈처노믹스(문화경제학)라 불리는 관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미래의 정치·경제매거진』, 2002년 신년호 참조.

325) <http://www.h3.dion.ne.jp/~nara-kim> (검색일 2014.04.25)

해 볼 때, 문화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도의 원천소스와 창작소재, 그리고 그 효용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²⁶⁾ 현재 일본에서는 다도에 관한 역사, 미의식, 인물전승, 일화, 도구, 그리고 신화 등이 문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설, 연극, 영화, 드라마, 만화, 음악, 게임, 그리고 광고 등에 응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재해석되면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원래의 원전과 출처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문화산업의 창작성을 보다 깊이 있게 하여 상품성과 대중성을 높인다는 해석도 있다.³²⁷⁾

이처럼 다도가 일본의 다양한 문화산업 영역에서 원천 소스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 차문화의 역사성, 연속성, 정체성, 그리고 수용성 때문이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응용하여 축적된 다도의 정신과 차 도구, 그리고 다도 관련 인물들에 관한 일화가 창작과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실과 차도구 등 차문화 관련 소재들은 경제 원리에 의해 가공된 공장 생산품과는 달리 실용성과 상징성을 겸한 창조적인 생산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의 소재로 활용되는 전통문화의 의미는 역사성, 예술성, 문학적성, 그리고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도전통이 가진 문학적성과 다도예절의 역사성, 그리고 전통적인 관례가 문화산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소재로 응용되고 있는 실태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대사(西大寺)의 오차모리(大茶盛) 활용

서대사의 오차모리(大茶盛)의 유래는 가마쿠라 중기 에이존(叡尊, 1201~1290)이 연응 원년(延應, 1239)에 국가의 안녕과 만민풍락(萬民豐樂)을 기원하는 정월 법요를 거행하고, 같은 달 16일 팔번궁(八幡宮)에 올린 차를 법회에 참석한 모든 중생들에게 마시도록 권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오차모리는 그 역사적 상황과 방법을 재현하여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대사는 오차모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다구 및 차생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30cm의 거대한 다구에 말차를 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3명이 한

326) 박전열, 「일본의 다도전통의 문화산업화 경향에 관한 현지조사연구」, 『日本學報』 제78집, 한국일본학회, 2009, pp. 221~236.

327) Ibid., pp. 221~236.

팀이 되어 두 명은 양 옆에서 큰 다완을 받쳐주고, 한 명씩 돌아가며 차를 마시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신청하여 소정의 체험료를 지불하였다. 체험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다완은 나라현 다카야마(奈良縣 高山)에서 생산되었는데, 거대 다완의 80%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서대사의 예존 스님은 우지가와(宇治江)의 어부들에게 살생을 금하도록 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대신 차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우지차의 탄생이었다. 지금도 서대사 주변에서 생산되는 차도와 우지차는 주요 문화관광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차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³²⁸⁾

2) 차 미술관과 박물관의 활용

(1) 차 자료관



<그림 11> 차 자료관

-제목: 一般財団法人 今日庵 茶道資料館
-주소: 〒602-0073 京都市上京区堀川通寺之内

교토시에 있는 차 자료관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다도 유파 중 최대 유파로 알려진 우라센케(裏千家)가 제창한 도(道), 학(學), 실(實)의 3요소 중에서 학문적·실용적 측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차 자료관은 다선일미를 주창한 센리큐의 다도정신 연구와 전파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년 간

328)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op. cit., pp. 210~215.

4번 정도 다도에 관한 차문화 기획전을 개최하며, 다완, 꽃꽂이, 족자 등 차도구의 명품이나 미술공예품, 역사적 문서의 전시회 등을 열고 있다. 또한 전시와 관련된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테마에 따른 도록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 자료관은 차 관련 자료들을 차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차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차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차 자료관은 휴관일에도 문을 열어 개인이 가진 차 도구와 말차로 다도를 실행할 수 있는 다도체험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이차(휴관일에 방문객에게 계절별 화과자와 말차를 제공)를 실시하여 다도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차 자료관은 다도 문화 검정시험을 실시하여 다도가 가진 깊은 정신세계와 독자적인 철학을 습득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다도의 수련에도 일조하고 있다. 차 자료관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정신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원천 소스를 발굴, 개발, 전파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차의 고향



<그림 12> 차의 고향

-주소: 〒428-0034 静岡県島田市金谷富士見町3053-2

일본 시즈오카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키노하라 대다원(牧之原大茶園)에는 차의 고향(お茶の郷, 오차노 사토)이 있다.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차(茶)박물관이다. 일본의 차문화와 세계의 차문화를 배우고 전통적인 일본의 차를 맛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차의 고향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차가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맛보고 향도 맡아보고 구입할 수도 있다. 중국 상하이 호심정 전통차관, 터키 아카라 레스토랑, 그리고 네팔 티베트족 미가 등을 재현해서 다양한 세계의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공간도 있다. 직접 차를 만들어 다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코스도 있다. 판매점에서는 차의 고향이 만든 한정판 전통차뿐만 아니라 티백, 분말차 등을 기념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의 고향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예술적 측면에서도 일본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타나베 미술관

-주소 : 〒690-0888 鳥根県松江市北堀町310-5

타나베 미술관(田部美術館)은 다도와 관련된 서화, 도자기, 그리고 칠기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차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에 조각이나 양화 등이 가미된 미술품도 전시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다도관련 예술품과 그림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 이리마시 박물관

-주소: 358-0015 埼玉県入間市大字二本木100番地

이리마시 박물관(入間市博物館)은 사야마차(狭山茶)³²⁹의 주생산지인 이루마시에 소재하고 있는 차 박물관이다. 일본 국내외의 다양한 차를 광범위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다도관련 교육활동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전시자료 등을 재구성한 가상의 사이버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

329) 사야마차(狭山茶)는 사이타마 현 서부 및 동경도 타마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차이다. 사이타마 현은 농산물 생산 면적에서 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즈오카차, 우지차와 함께 일본 3대 차로 불리지만, 시즈오카나 우지와 같이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야마차를 빼는 경우도 많다. よく知られる俚語として『色の静岡、香りの宇治、味の狭山』と謳っている(Wikipedia).

를 통해 이리마시 박물관은 교육적 측면에서 차에 대해 원천 소스와 자료 등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 직접 차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별의 고향 내의 차 문화관

-주소: 〒834-0201 福岡県八女市星野村10816-5

별의 고향 내 차 문화관(星の故郷内のお茶文化館)은 차의 주요 산지인 호시노 무라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화관은 차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차 잎을 한 장 한 장씩 손으로 따서, 예전의 전통방법으로 차 맛을 최대한 이끌어 낸 교쿠로(玉露)³³⁰ 시즈쿠차로 유명하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지명도가 있는 차 제품이다. 차 문화관에서는 시즈쿠차, 또는 말차의 시식이 가능하며, 차 제작 방법인 교쿠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맷돌로 말차를 가는 체험, 화과자를 만드는 체험, 그리고 차 내리는 방법에 대한 체험 등 차를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 문화관에는 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식 일본 다실도 갖추어져 있다.

(6) 야메시 쿠로기 차의 고향 기념관

-주소: 八女市黒木町笠原9528-1

야메시차의 시초인 레이간사의 바로 밑에 위치한 차의 고향 기념관(八女市黒木お茶の里記念館)에는 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 전시실과 쿠로기초 특산물 판매장이 있다. 특히, 이 고장 생산 농가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야메시차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를 주제로 하는 크고 작은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자료관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양한 차 체험 행사와 다구 전시회,

330) 교쿠로(玉露)는 일본차의 한 종류이다. 제조법 상의 분류로는 전차의 일종이지만 재배 방법에 특징이 있다. 즉, 교쿠로의 원료가 되는 차 잎은 수확 전에 2주간 정도 덮어 놓는다. 이 방법으로 인해 전차 맛의 원인이 되는 아미노산이 증가하며, 역으로 떫은맛의 원인이 되는 카테킨류가 감소한다.

그리고 차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 기념관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차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일본다도학회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일본 차문화의 발전과 차문화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3) 체험학습 문화콘텐츠로 활용



<그림 13> 시즈오카현 차에 관한 공공적 문화시설

차 미술관 또는 차 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차 시연과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많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인 차문화를 배우고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다도전통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전통을 존중하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차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차 공원과 같은 곳도 있다. 이는 차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또는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4>는 시즈오카 주변의 차문화 관련 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누마즈 고요테이 기념공원(沼津御用邸記念公園),
- ② 유이혼진공원(由比本陣公園),
- ③ 펠켈 박물관(フェルケール博物館)

- ④ 교쿠로의 고향(玉露の里),
- ⑤ 포레나카카와네 차명관(フォーレなかかわね茶茗館),
- ⑥ 시즈오카현 차업시험장내 차업자료관(静岡県茶業試験場茶業資料館),
- ⑦ 차의 고향(お茶の郷),
- ⑧ 시미즈테이정원(清水邸庭園),
- ⑨ 향의 언덕, 차피아(香りの丘・茶ピア),
- ⑩ 하마마츠성공원(浜松城公園)

위에 언급된 각 시설은 정원을 갖춘 다실과 차 자료관, 그리고 직접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다실에는 카즈야³³¹⁾풍의 다실에서부터 컴퓨터에 의한 재미있는 체험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³³²⁾ 이런 형태의 다실은 23개 각 현(縣)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전국 도도부현에서는 각종 차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대표 검색 포털사이트인 yahoo Japan에서 다도 체험학습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약 162,000건이 검색된다. 이는 한국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단어로 검색했을 때의 수 14,468건에 비하면 약 10배가 넘는다. 단순한 검색 사이트의 비교만으로도 일본의 다도 체험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차 체험학습과 품평회 등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매년 전국 차심사기술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차의 품종, 분기별 외관으로 차를 판정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지를 판정하는 기술 등 차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경쟁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우수자를 선정하고 수상하여 차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있으며, 엄격한 자격을 갖춘 차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고, 우수한 차상품 브랜드를 선정하여 차문화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일본의 차와 차문화콘텐츠는 더욱 대중화·활성화되고 있다.

331) 스키야라고 불리는 차실이 출현한 것은 모모야마 시대였다. 원래는 정원에 마주한 별실로 지어진 소규모의 차실을 스키야라고 불렀다.

332) <http://www.city.shizuoka.jp/deps/norin/tea> (검색일 2014.04.28)

4) 방송문화 콘텐츠로 활용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이 개시된 시기는 1925년인데 2년 후인 1927년에는 최초의 다도 방송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다도란 스승의 작법을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며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도사범인 가메야마소게쓰(龜山宗月, ?~1954)에 의하여 다도실기 중계방송 겸 해설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방송되자 많은 청취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방송프로그램 교재인 『다도작법(茶の湯作法)』은 출간되자마자 1만부가 넘게 팔렸다. 방송이 차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차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다도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도 흥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최대 방송매체인 도쿄중앙방송국(현재의 NHK)은 다도프로그램을 정규방송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후 텔레비전 교육프로그램 시리즈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방송이 진행되자 서점을 통해 차문화 관련 교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비디오나 DVD로 제작 판매되었다. 이로 인해 차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교재를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거나 체험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다도는 드라마나 버라이어티와 같은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인이 죽을 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차문화콘텐츠는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통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교재와 자료의 제작이 활성화되었으며, 차문화 관련 출판 및 도록 제작 산업도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방송을 통해 차상품의 판매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경우, 대중들의 다도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에서 일본의 전통적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와 수단으로 다실과 다도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① あんどーなつ



<그림 14> あんどーなつの 한 장면



<그림 15> 花より男子의 한 장면

니시 유지의 만화작품 *아んどー나つ*³³³⁾는 다도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만화는 파티시에를 꿈꾸던 안도우 나츠가 긴자의 유명 제과점 채용면접에서 떨어지고, 일본의 오래된 화과자점에서 화과자 장인 우메요시와 만나 화과자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내용의 만화였다. 이 만화에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화과자는 일본 전통적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과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 다도에서 우스차(薄茶)³³⁴⁾나 코이차(濃茶)³³⁵⁾와 함께 먹으며, 맛 보다는 미적 감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과자였다. 이 만화에서는 일본 다도의 일기일회(一期一會) 정신을 강조하는 대사 “모든 것이 일생에 한번뿐인 만남이지..... 다도에서는 주인도 손님도 그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어. 그럼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잖아...”가 자주 등장하였다.

② 日本人の知らない日本語(2010)

『日本人の知らない日本語』(일본인이 모르는 일본어)³³⁶⁾에서는 일본 선생님이

333) *아んどー나つ*: 니시 유지 글, 테리 야마모토 그림.

334) 오우스는 다수의 차회나 선사에서 차를 대접할 때 한 사람당 한 그릇씩 우스차를 타는 것을 말한다.

335) 고이차(濃茶)의 경우, 탄다(点てる)라고 하지 않고 내린다(練る)라고 한다. 색도 맛도 진하게 되기 때문에 뽀은맛이나 쓴 맛이 강한 하급품은 적합하지 않고, 양질의 품격 있는 향과 부드러움을 가진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를 필요가 있다.

336) 『日本人の知らない日本語』(일본인이 모르는 일본어)란 일본의 미디어 팩토리에서 발행한 코믹 에세이 및 그것을 원작으로 한 연속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단행본은 2012년 3월

외국인들에게 다도문화를 가르치면서, ‘화경칭적’의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③ 花より男子(2007)

‘花より男子’(꽃보다 남자)³³⁷⁾에서는 극의 주인공 중 한 명(西門總二郎)이 다도 후계자로 소개되면서 다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자주 화면에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에게 다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차문화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주간 만화 ‘타임즈’(Times)에서 발행한 아오키 사치코의 「다주구락부(茶柱俱樂部)」나 일본 웹툰 “에덴’(EDEN)에 게재된 「차의 눈물(茶の涙)」에도 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일본 차문화콘텐츠를 제공하였다.

5)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문화 상품으로 활용

① 다양한 차 음료의 판매



<그림 16> 일본 슈퍼마켓의 차³³⁸⁾



<그림17> 오차켄 캐릭터

일본에서는 녹차뿐만 아니라 보리차, 우롱차, 자스민차, 녹차, 현미차, 홍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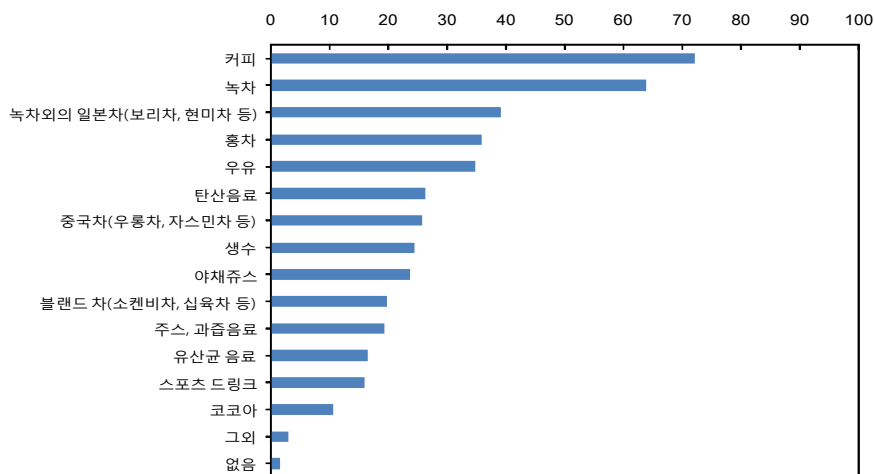
까지 3권이 발행되었다.

337) 꽃보다 남자(花より男子)는 카미오 요코에 의한 일본 소녀 만화작품이었다.

338) <http://www.hongkongnavi.com/special/5024450> (검색일: 2014.04.28)

다양한 종류의 차가 판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녹차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TV 광고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차 상품 회사들은 매년 다양한 맛의 녹차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한 가지 차 이외로만 차를 우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차 잎을 원료를 하여 다양한 맛을 내는 블렌딩 차(소켄비차나 십육차 등)도 개발되고 있다. 이는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역사성과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속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가진 차음료의 연구와 개발로 일본인들의 차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다양한 연구 덕분이었다.

2013년 일본인 20~50대가 평소 즐겨 마시는 음료에 대한 마이보이스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차(녹차, 녹차 외의 일본차, 중국차, 블렌딩 차를 포함)의 소비는 일본의 음료 소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녹차만을 비교하더라도 커피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차를 일상화 하는 일본인의 식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식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차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일본인들은 차를 생활의 수단이자 도구이자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 차나 다양한 블렌딩 차의 맛과 향에 대한 관심과 전통다도와 차문화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졌다.



<그림 18> 일본 20~50대 즐겨 마시는 음료 조사 결과
(2013. 4. 마이보이스 리서치, 복수선택)

② 차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차를 이용한 캐릭터 개발 산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캐릭터로 차 잎 형태의 귀를 가지고 다완 안에 들어가 있는 초록색 털의 강아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강아지 캐릭터의 이름은 오차켄³³⁹⁾인데, 일본의 게임 캐릭터로 개발되었다. 이 캐릭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아 인형과 완구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에서 말하는 원천 소스 활용 다변화(OSMU)이다. 차문화를 소재로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다양한 차 상품 개발과 인형, 그리고 완구 산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산업은 한국의 차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개발에 중요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339) http://www.ocha-ken.com/pc_top.html (검색일: 2014.04.28)

V. 결 론

지금까지 일본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일본 불교가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을 다실문화와 정원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 불교가 문화관광산업과 차문화콘텐츠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적, 정신적, 사회적, 예술적,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일본 불교가 차문화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여기에는 선승들의 중국 유학으로 유입된 선사상의 다실문화와 정원문화 적용, 중국 불교 선사상과 전통신앙 신도의 융합, 유학을 통한 지속적인 학문적·예술적 탐구, 외래사상의 유입과 일본 문화의 확립, 새로운 불교 종파의 형성과 일본화, 선사상과 와비사상의 정립, 물질적·세속적 유희와 탐욕으로부터의 해방,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실천, 사찰 중심의 교육 및 예술 활동, 사찰 내 다실 설치를 통한 소통과 대화 공간 마련, 그리고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선승들의 도제식 가르침과 학문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에서는 융합과 화합, 검소함과 소박함, 인내와 절제, 그리고 실용성과 대중성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차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일본 불교는 차문화와 차문화콘텐츠 개발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불교와 한국의 차문화와 불교의 문화콘텐츠를 상호 연관시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은 일본의 풍토와 지리, 그리고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일본 문화의 특징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 양식과 형태가 다음 시대로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문화가 역사적 연속성과 전통성,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은 전통문화

에 새로운 문화나 외래문화가 유입되었다고 그 전통문화를 배척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용하는 분위기와 입장을 견지하였고, 양 문화를 상호 화합하고 융합하는 정신으로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은 불교문화의 유입과 발전을 통해 문화의 융합과 화합을 배웠으며, 이를 실용화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불교를 변형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일본 불교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스럽게 소통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에 적용하였다는 점과 다실과 정원의 문화콘텐츠들은 오늘날 일본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소재와 수단으로 활용되어 재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구한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융합과 화합을 통해 전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였으며 문화콘텐츠의 보고였다. 일본의 선불교는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의 전통문화와 융합되어 일본의 정신문화로 승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그 표현 양식과 미적 가치에서 불교의 전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형성 과정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성, 정체성, 창의성, 그리고 수용성은 오늘날 새로운 일본 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교육적, 정신적, 사회적, 예술적,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반전(反戰)과 평화, 생태보존, 그리고 자연보호에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선의 수행을 통해 정신적, 영적, 교육적 훈련과 사회적 소통에서 중요한 공간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기 일본의 불교와 대승경전과 사상, 그리고 근·현대 시기의 불교문화와 다도문화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산되면서 일본 차문화와 정원문화의 산업적 측면, 즉 차문화콘텐츠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차문화산업과 차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은 우리 불교문화산업의 발전 방향 수립에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 형성된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불교적 의미가 더해져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었으며, 각각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³⁴⁰⁾ 일본에서는 차문화가 다도

문화로 변화되었으며, 여기에 불교의 선사상과 전통적인 신도 의식, 그리고 자연미를 추구하는 예술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일본의 정원문화에는 전통적인 미적 감각과 자연숭배사상에 선사상과 외래문화가 가미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본 차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전다도(煎茶道)라는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졌으며, 다도의 형식적 미학을 창출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과 규칙으로 격식화되었다. 경제적·예술적 측면에서 일본의 차문화는 다양한 차 도구를 사용하였고, 공간을 아름다운 다실로 꾸며 다양하고 화려한 도구들을 마련하였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소박하고 검소한 다실로 환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격식을 강조한 일본의 다도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차문화 프로그램과 홍보 때문이었다. 많은 방송과 미디어가 다도를 자연스런 영상으로 보여주었으며, 차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차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맛을 지닌 인스턴트 차 종류를 개발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차를 즐기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취미 생활이나 건강 생활 또는 생활의 멋으로 느끼며, 다도를 배우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차문화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차문화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도란 차를 만들어 예절과 법도에 맞게 마시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의 다도는 차와 관련된 일에 협의의 다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다도란 다실을 꾸미고, 차 도구를 준비하며, 다실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고 소통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³⁴⁰⁾ 한국의 다도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대 다도는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다도를 즐기려는 차인들과 형식으로의 다도를 강조하려는 차인들로 나뉘지게 되었다. 이는 다도의 형식과 의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반면에 일본의 다도는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정체성을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340) 김방룡, 「선승(禪僧)들의 차문화에 대한 일고(一考)」, 『韓國禪學』 제21호, 한국선학회, 2008, pp. 175~201.

341) 김서현, 「일본 전다도와 한국 다도 -다도의 정신문화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2010, pp. 35~50.

일본의 차문화는 대중화되어 있다. 따라서 차문화를 주도하는 특정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차인 집단들이 각 협회를 만들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로 여성들이 협회를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차문화가 마치 여성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주도 차문화가 일본의 차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우리의 차문화 전통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고,³⁴²⁾ 우리의 전통 차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차인 이외에 일반인들이 차를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증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일반 차문화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을 따거나 일 년에 몇 번 개최되는 차 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만큼 일반인이 차를 배울 기회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인스턴트 차 음료의 종류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방송이나 만화,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 전통 차를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차문화 단체나 차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차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차를 무료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커피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해 자주 등장하였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음료인 차를 마시는 장면이나 차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일반인들은 수월하게 차문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이는 일본의 차문화 소재가 다양하다는 점과 차문화콘텐츠 개발이 현실 생활과 유기적으로 접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결국 한국인들이 차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차 음료를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차문화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 음료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TV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문화를 홍보하는 방법, 다양한 차 상품을 한국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하는 방법, 차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사이버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차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대학,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342) 박순희, 「현대 한국다도에 끼친 일본 차문화의 영향」, 부경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논문, 2012, pp. 25~30.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불교는 차문화를 홍보하고 차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정원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원문화는 헤이안 시대에 구체화되고 형식화되었으며, 형식의 미학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격식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상적·정신적 측면에서 일본의 정원문화는 정토사상과 선사상, 그리고 다도의 특수한 문화를 융합하여 정원문화의 구성에 적용하였다. 여기에는 소박함, 검소함, 화합, 화해, 휴식, 그리고 소통의 개념들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개념으로 조성되었던 일본의 정원은 일반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휴식공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정신수양과 수행,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의 정원은 사람의 심성을 자연에 순화시키는 안식처요, 여흥을 즐기는 장소이며, 학문을 수학하는 장소인 동시에 현세의 고민에서 벗어나 자각과 자족을 느끼는 구도의 장이었다. 때로는 천신과 지신 및 선조를 받드는 제단의 터전이었고, 인간이 갈구하는 이상세계를 현세에 현현(顯現)시킨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자연이 곧 사람의 품속에 안겨오고 자연에 몰입되는 선경의 절묘한 경승지에 조성되는 누(樓)와 정자(亭子)는 한국 정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누정(樓亭: 누와 정자)은 자연과 일치하고자 했던 자연관에 따라 선인들이 명승지의 경관과 풍류를 즐겼던 자연공간이었으며, 차를 마시는 다실의 공간이었고, 정신수양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누정은 한국 정원 중 개방성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공간이었으며, 차경의 효과가 가장 많이 활용된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별서정원도 현세에서 구제받지 못한 좌절이나 번민을 해소하며 절대 자아의 심오한 세계를 향유하고 자기를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성되었는데, 이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절묘한 경승지의 자연 속에 조성되었다. 별서정원의 대표적 사례로는 담양의 소쇄원을 들 수 있다.³⁴³⁾ 이는 결국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생활 철학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전통정원이 이 같은 특징을 갖도록 영향을 끼친 사상적 배경은 자연숭배사상, 신선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그리고 음양오행사상 등이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정원의 밑바탕에 흐르는 특징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여 인간을 자연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조화

343) 담양 소쇄원에는 대숲, 오솔길, 담, 바위, 폭포, 계류, 자연 친화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다.

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정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순수한 자연풍경식 정원 양식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불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확립이었으며, 일본 차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와비사상이었고, 일본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을 적용한 검소하고 소박한 다실문화였다. 이는 일본 불교가 다실문화와 정원문화, 그리고 문화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였다.

결론적으로 일본 불교가 다실문화나 정원문화 등 일본 문화관광 산업과 차문화콘텐츠 개발 및 발전에 끼친 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차문화콘텐츠는 불교의 끊임없는 학문탐구 정신과 사찰에서 이루어진 선승들의 도제식 교육 방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차문화콘텐츠는 선사상과 와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찰 중심의 도제식 종교 교육방법과 선승들의 실천적 삶의 방식을 차문화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는 센리큐의 다도 교육시스템과 다도 유과형성이었다.

둘째, 정신적 측면에서 차문화콘텐츠는 중국 선불교의 전파,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의 융합, 선사상과 와비사상의 확립, 외래사상의 일본화, 물질적·세속적 유희와 탐욕의 단절, 그리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실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에 적용하였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차문화콘텐츠는 불교와 신도의 융합과 화합 정신, 전통과 외래의 화합, 외래문화의 수용, 사찰 중심의 다회 활동, 그리고 사찰 내 다실설치를 통한 대화와 소통 공간 제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차문화의 대중화와 실용화에 기여하였다.

넷째, 예술적 측면에서 다실문화와 정원문화의 콘텐츠는 선사상의 간소함과 자연의 원시성, 그리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의 다양성과 합리성, 그리고 규칙성을 표현해 주었다.

다섯째, 산업적 측면에서 차문화콘텐츠는 일본 불교의 역사성, 연속성, 정체성, 그리고 수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응용하여 축적된 다도의 정신과 차 도구, 그리고 다도 관련 인물들에 관한 일화는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다실과 차도구 등 차문화 관련 소재들은 실용성과 상징성, 그리고 창조성을 간직한 문화적 원천 소스로 간주되었다. 이는 일본 차문화산업의 소재로 활용되는 전통문화 요소들의 역사성, 예술성, 문학성, 그리고 지속성을 의미하였다.

결국 일본의 차문화콘텐츠는 종교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신도와 외래종교인 불교의 결합, 사상적 측면에서 불교의 선사상과 신도의 자연숭배사상, 그리고 와비의 사상의 결합, 교육적 측면에서 차문화 형성 집단들의 자체적 사제교육 실시와 현장체험, 그리고 시청각 자료 제공 등 외래 교육 방법의 적용, 예술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일본의 소박한 예술문화와 중국의 화려한 예술문화의 융합,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실 공간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개방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룩했으며, 휴식과 명상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차문화는 불교의 역사적·종교적 소재와 사상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국의 차문화 활성화와 대중화,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차문화 단체나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등은 지속적으로 차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였으며, 다양한 차문화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차문화 정신을 대중화시켜 나갔다. 특히 일본의 차문화는 불교 사찰의 다실문화를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사찰의 차 상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하였고, 이를 드라마나 TV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그 결과 일본 불교의 발전과 일본 차문화의 대중화, 그리고 차문화콘텐츠의 창의적 발전과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일본의 차문화 활성화와 대중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나 불교계이다. 한국 불교가 사찰의 다실과 차문화 공간을 개방하고, 사찰의 정원과 자연경관을 휴식과 명상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불교 방송과 TV를 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차문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한국의 차문화는 불교문화와 함께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사점

한국 불교의 차문화콘텐츠 활용 및 개발에서 일본 차문화는 종교적, 사상적, 사회적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의 차문화는 중국 차문화와 선사상을 바탕으로 일본식 전통문화로 정착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차문화도 불교와 일본 차문화를 활용하여 한국식 전통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업은 일본의 차문화콘텐츠 성공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33개 사찰을 시범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2004년 불교문화사업단이 출범하면서 이 사업은 해마다 꾸준히 신규 운영사찰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정부와 불교계의 의지가 부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드라마, 음악, 그리고 영화를 중심으로 한류(韓流)를 형성하며 해외에 널리 전파된 반면, 전통문화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의 미비와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내외적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정신적·물질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 사업에 정부 예산 약 1,000억 원이 투입되었고, 한국 불교계는 그에 따른 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적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도 내외국인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찰은 출범 당시의 33개에서 2011년까지 109개로 늘어났다. 또한 참가자도 2002년 총 2,558명에서 2011년 총 887,41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346.91%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선정 기

344) 김도경 외, 『템플스테이 시설현황 및 활용 보고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1, pp.

준을 보면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여건과 잠재력 등이 그 평가 대상이었다. 선정 기준은 문화재 보유(역사성과 전통성 평가)와 운영 시설(숙박, 체험 공간 평가), 운영 인력(전담여부 평가), 운영 능력(프로그램 기획, 홍보 평가), 그리고 주변 환경(자연조건, 생태 평가) 등이었다. 위 내용으로 평가해 볼 때 템플스테이 사업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산업으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은 전통문화 체험과 종교적 수행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³⁴⁵⁾

내국인 참가 동기		외국인 참가 동기	
휴식, 일상의 재충전	22.2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23.9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14.2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21.6
도시로부터의 일상 탈출	12.6	호기심	15
가족 또는 동료들과의 친목	8.7	종교적 수행	9.7
호기심	7.9	휴식, 일상의 재충전	8.9
회사, 단체의 방침에 의해	7.8	도시로부터의 일상 탈출	8.8
종교적 수행	7.5	스님과의 대화	3.8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6.7	해당(참가) 사찰에 대한 관심	2.7
해당(참가) 사찰에 대한 관심	4.7	회사, 단체의 방침에 의해	2.1
스님과의 대화	4.7	가족 또는 동료들과의 친목	1.4
생태체험 활동에 참가 위해	1.5	생태체험 활동에 참가 위해	1.2

<표 1>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단위 %)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내국인과 외국인들을 동기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휴식·일상의 재충전과 도시로부터의 일상 탈출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템플스테이는 휴식과 일상의 재충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 스트레스 및 갈등 해소,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을 내국인 대상 체험

19~26.

34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p. 26.

문화콘텐츠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호기심, 종교적 수행, 휴식과 일상의 재충전 순으로 나타났다.³⁴⁶⁾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그리고 종교적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 2>³⁴⁷⁾와 같이 기본형과 특화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형은 예불, 참선, 108배, 운력, 발우공양 등 사찰의 일상을 체험하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불교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화형은 기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찰 고유의 문화자원과 주변의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사찰과 자연환경의 문화콘텐츠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의 고유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각 사찰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 자료, 그림, 그리고 유물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각 사찰의 차와 차 도구, 그리고 차문화콘텐츠도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의 사찰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교관련 자료와 도구와 차문화, 그리고 정원문화까지 차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형은 사찰문화체험과 휴식과 템플라이프,³⁴⁸⁾ 특화형은 전통문화체험, 수행, 특별기획(테마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한국식 차문화와 정원문화, 그리고 차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한국 전통문화의 홍보, 한국 차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참가자의 증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46) Ibid., pp. 19~26.

347) 대한불교조계종, op. cit., pp. 32~33.

348) 템플라이프는 숙박하지 않고 당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찰안내, 참선, 다도 등 한두 가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형태이다.

구분		특징	콘텐츠 유형
기본형	사찰문화체험	-기본적인 사찰문화의 체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기본	-사찰 안내, 예불, 포행, 운력 ³⁴⁹⁾ , 참선, 108배, 다도 등
	휴식	-개인의 휴식과 안정	-스님과 다담, 개인기도 수행
	템플라이프	-당일 체험 프로그램 -사찰안내, 참선, 다도 등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체험	-사찰 안내, 참선, 다도, 발우공양 등 특정 프로그램을 당일 집중 체험
특화형	전통문화체험	-지역의 전통문화나 세시풍속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한지공예,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차 만들기, 전통 음식 및 사찰 음식 만들기와 명절 절기 문화 체험 (추석. 설. 대보름 등)
	수행	-자아성찰 및 종교적 각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간화선, 위빠사나, 절 수행, 염불수행 등 수행 입문 및 심화 프로그램
	특별기획 (테마프로그램)	-소통, 치유, 웰빙, 친목 등 특정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지역의 문화환경,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사찰의 독특성을 확보	-다문화가정, 실직자,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치유와 용기 주기 -생태체험, 철새탐조, 스토리텔링 등 사찰의 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역축제, 스포츠 등 특수한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교육 및 연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 -외국어 교육, 예절 교육 등 집중 훈련의 프로그램을 운영	-한문·영어 학당, 충·효 및 예절 교육, 불교학교 등

<표 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과 특징

2010~2011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가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표 3>을 살펴보면, 스님과의 대화가 8.45점이며, 다도 체험은 8.44점, 108배는 8.43

349) 여러 사람이 힘을 구름처럼 모은다는 뜻에서 운력(運力, 雲力) 또는 울력이라고도 한다. 일반에게는 삶의 한 방편인 노동을 뜻하나 사찰에서는 수행의 하나로서, 특히 선종에서는 중요한 수행 수단에 속한다. 중국 당나라 때 백장선사(百丈禪師)는 90세에도 다른 대중들처럼 운력을 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제자가 그의 노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농기구를 감춰 운력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백장은 하루를 굶었다. 제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고 대답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행에 달리 형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로서, 수행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 연등·염주 만들기는 8.33점, 포행·명상은 8.29점, 참선은 8.08점 등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³⁵⁰⁾ 외국인들은 다도체험을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프로그램 전체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외국인들이 다도체험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정신적, 예술적, 사회적 특징 때문이다. 한국의 사찰들은 향후 사찰의 경제적 자립과 보유 문화유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차문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분	다도	스님 과 대화	108 배	연등· 염주 제작	포 행	예 불	참 선	발우 공양	울 력	인경· 사경	만족 도 전체 평균
내국인	8.44	8.45	8.43	8.33	8.29	8.10	8.08	7.97	7.82	7.71	8.16
외국인	9.01	8.75	8.66	8.36	8.81	8.28	8.44	8.25	8.13	8.08	8.50
전체	8.73	8.60	8.55	8.33	8.75	8.19	8.26	8.11	7.98	7.90	8.33

<표 3>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만족도

이처럼 템플스테이 사업은 2002년부터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과 전승 발전에도 도모해 왔다.

또한 템플스테이는 생활문화 전반까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 콘텐츠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템플스테이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일반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표 4>를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사찰 템플스테이를 통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①대중문화관광, ②문화교육 및 체험관광, ③마음치유와 웰니스(wellness)³⁵¹⁾ 관광, ④스마트(smart) 관광, 그리고 ⑤희망의 관광으로 발전해야 한다.

350) 대한불교조계종, op. cit., p. 35.

351)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그리고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템플의 의미와 가치	문화 관광 자원	전통문화 체험	사회 공익적 활동	국민여가와 정서함양	기타
응답자 수 417(96)	98(24)	213(33)	19(7)	80(25)	7(1)
비율	23.5(27)%	51.1(37)%	4.6(8)%	19.2(27)%	1.7(1)%

<표 4> 템플스테이의 의미와 가치

* 표에서 오른쪽 괄호 안의 숫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금융위기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요가, 명상, 힐링, 템플스테이 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마음 치유와 웰니스가 확산되면서 문화관광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일상생활 정보를 활용한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전통적 소재에서 이색적인 이벤트를 발굴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는 일본의 불교문화와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일본의 차문화 그리고 정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일본의 차문화와 정원문화는 사찰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차문화는 사찰의 다실에서 시작되어 개인의 다실로 전파되었으며, 그 중심 테마는 체험, 학습, 명상, 휴식, 그리고 소통이었다.

오늘날의 일본 문화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꿈꾸는 일본인들의 다도문화와 정원문화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다도문화를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농축시킨다면, 템플스테이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정원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힐링, 명상, 치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즉, 한국 불교 사찰의 내부 역량과 외부 자연환경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집적시키고 프로그램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다도문화와 정원문화의 개념과 특성들을 적용한다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 역할은 차문화콘텐츠가 하게 될 것이다.

일본 불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확립이었으며, 일본 차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와비사상이었고, 일본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선사상을 적용한 검소하고 소박한 다실문화였다. 이는 일본 차문화콘텐츠의 정수였다.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통문화인 차문화와 정원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외래문화도 이해해야 한다. 현대 일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융합과 화합,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찰문화와 사찰 주변의 정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사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음식과 음료, 그리고 주거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한국 사찰의 차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차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생성되었으며, 사찰의 차문화는 한국 정신문화의 근본이요 토대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불교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차문화 프로그램과 사찰의 차문화콘텐츠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교적 측면에서 차문화에 익숙한 차인 및 일반인들의 참여로 불교와 타종교의 화합과 융합, 그리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사상적 측면에서는 차문화를 통해 불교의 금욕주의 사상과 현대의 세속주의 사상을 융합하고 절충하여 검소함과 소박함, 그리고 실천적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차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의 차문화를 전파할 수 있고, 차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2차 재교육 집단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불교문화와 차문화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예술적 측면에서 사찰에서 생산하는 차문화 관련 상품이나 도구들의 예술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차경원리에 의해 사찰 주변의 자연경관을 사찰의 차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측면에서 사찰의 템플스테이 공간이나 다실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과 명상, 그리고 힐링을 유도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여섯째, 산업적 측면에서 차문화는 역사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사찰이 차문화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OSMU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불교와 사찰, 그리고 차문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차문화 단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불교 사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차 관련 상품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찰의 경제자립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 불교와 사찰에 대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1. 원문

『三國遺事』.

『三國史記』.

元曉, 「涅槃經宗要」, 『大正藏』권38.

元曉, 「大乘起信論別記」, 『大正藏』권44.

李格非, 『洛陽名圓記』

計成, 『園治』

王褒, 『童約』

2. 日書

『公事根源』

『東國高僧傳』

『東大寺要錄』

『萬葉集』

『夢中問答集』

『本朝文粹』

『妙法蓮華經』

『師光年中行事』

『西宮記』

『續日本紀』

『本朝法華驗記』

『山上宗二記』

『新古今和歌集』

『日吉社神道秘密記』

『弘法大師年譜』

『行基大菩薩行狀記』

家塚智子, 『中世茶室考』, 立命館文學 605, 2008.

橋本素子, 『中世茶室』, 洛北史學 11, 2009.

古田紹欽譯·著, 『榮西 興禪護國論·喫茶養生記』, 講談社〈禪入門1〉, 1994.

光村推古編輯部, 『京都 茶の庭』, 光村推古書院, 2007.

末本文美士 堀川貴司, 『賣茶翁』, 江戸漢詩選 第5卷 僧門, 岩波書店, 東京, 1996.

福山有聲軒 編著, 『賣茶翁-偈語外集』 「與某人」, 京都名古屋, 1934.

福山有聲軒 編著, 『賣茶翁-偈語外集』 「對客言志」, 京都名古屋, 1934.

復本一郎, 『芭蕉における 「さび」 の構造』, 塙書房, 1973.

山田新市, 『江戸茶』, 八坡書房, 2007.

小山京子, 『中世京都庶民茶室』, 洛北史學 6, 2004.

小川後藥, 『茶文化史』, 文一総合出版, 東京, 1980.

人見必大, 『本朝食鑑』

神津朝夫(著), 『山上宗二記入門一茶の湯秘伝書と茶人宗二』, 角川學芸出版, 2007.

田中樞治郎 編, 『賣茶翁-偈語』 「賣茶口占十二首」, 花月庵藏板本, 大阪, 1928.

井口海仙, 久田宗也, 中村昌生(著), 『日本の茶家』, 河原書店, 1983.

川嶋將生, 『樂茶』

千宗室, 『裏千家茶道のおしえ』, 일본방송출판협회, 2004.

千宗室(著), 『裏千家今日庵歴代(第4卷) 仙叟宗室』, 淡交社, 2008.

千宗室(著), 『裏千家今日庵歴代(第3卷) 元伯宗旦』, 淡交社, 2008.

編輯部, 『賣茶翁集成』, 「梅山種茶譜略(姆尾藏板本)」, 主婦友社, 東京, 1975.

玄惠, 『喫茶住來』, 茶湯繪畫資料集成, 平凡社, 東京, 1992.

黑板勝美編, 『日本後紀』, 吉川弘文館, 1974.

本郷恵子, 『買い物物日本史』, 角川學藝出版, 2013.

熊倉Ü功夫, 『日本煎茶文化成立』, 綠茶通信 4, 2002.

3. 저서

가모노 조베이, 조기호 역, 『호조키』, (주)제이앤씨, 2004.

- 가와사키(笠原一男, 川崎庸之), 계환스님 역, 『일본불교사』, 우리출판사, 2009.
-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 조율, 2010.
- 공의식 외,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2002.
- 구마쿠라 이사오 엮음,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미』, 한림신서, 1998.
- 구태훈, 『일본문화사』, 재팬리서치21, 2011.
- , 『일본고대·중세사』, 재팬리서치21, 2008.
- , 『일본문화 이야기』, 재팬리서치21, 2012.
- 권오병, 조위덕 저, 『스마트 웰니스 테크놀로지』, 진한엠앤비, 2013.
- 김도경 외, 『템플스테이 시설현황 및 활용 보고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1.
- 김명배, 『茶道學』, 학문사, 1992.
- , 『日本の 茶道』, 保林社, 1987.
- 김영, 『일본 문화의 이해』, 제이앤씨, 2007.
- 김영순·최민성 외,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 김용범, 『김용범의 간차록』, 개미, 2011.
- 김용안,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제이앤씨, 2009.
- 김운학, 『傳統茶道風俗調査』, 「현대, 응송」,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80.
- 김종덕, 『일본고전문학의 흐름』, 제이앤씨, 2013.
-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살림, 2013.
- 김현주, 『Tourism Vision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누노메 초우후우, 이진수 역 『현대과학으로 읽는 다경』, 이른아침, 2011.
- 다카세 요이치, 나카 다카히로, 박경자 역, 『일본의 정원』, 학연문화사, 2013.
- 다치바나노 도시쓰나, 다케이 지로, 마크 킨 주해, 김승윤 옮김, 『사쿠테이키』, 연
암서가, 2012.
- 대한불교조계종, 『템플스테이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 渡邊照雄, 김진만 옮김, 『日本の 佛敎』, 한림신서, 1995.
- 도서출판 범함,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교연아카데미, 2004.
- 동국대학교, 『선과 자아』, 동국대출판부, 2002.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템플스테이 성과분석 및 5개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Robert Bellah, 박영신 역,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삼영사, 1981.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일본의 사상』, 한길사, 2012.

마쓰오카 세이코, 이연숙 역, 『만들어진 일본』, 프로네시스, 2008.

마츠오 겐지, 김호성 역,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명법,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씨아이알,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여행실태조사』, 2011.

박성각, 『선예술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5.

박전열, 『남방록 연구』, 이른아침, 2012.

-----, 『일본다도의 정신』, 시사출판, 2008.

박현수, 『일본 문화 그 섬세함의 뒷면』, 책세상, 2007.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石田瑞磨, 이영자 역, 『일본불교사』, 민족사, 1995.

센 겐시쓰, 박전열 역, 『일본 다도의 마음』, 월간다도, 2006.

-----, 나야소탄 해설, 박전열 역, 『일본다도의 정신』, 시사출판, 2008.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 『일본차문화유적』, 초롱, 2009.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템플스테이의 심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 방안 연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0.

심원섭,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시공사 편집부, 『저스트 고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시공사, 2013.

심경호, 박전열, 윤상인 외,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16』, 나무와 숲, 2010.

스에키 후미히코, 이태승 역, 『근대 일본과 불교』, 그린비, 2009.

아이엔알플러스, 『2010-2011 템플스테이,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2011.

야나기 무네토시, 구마쿠라 이사오 역,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美』,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8.

엄인경, 『일본 중세 은자문학과 사상』, 역사공간, 2013.

에이사이 선사 저, 류건집 주해 『喫茶養生記 註解』, 이른아침, 2011.

염숙, 『다도학입문서』, 국학자료원, 2011.

오경아, 『정원의 발견』, 궁리, 2013.

오카쿠라 텐신, 정천구 역 『차의 책』, 산지니, 2009.

오쿠보 료준, 요시모토 하지메 역, 김환기, 『일본 불교문학의 이해』,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와타나베 쇼코 저, 김진만 역, 『日本の 佛敎』, 昭和, 1995.

유전성산 저, 한보광 역, 『禪과 日本』, 불광출판사, 1995.

윤혜영, 『일본문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3.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문학사상사, 2003.

-----,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문학사상사, 2003.

이에나가 사부로, 이영 역, 『일본문화사』, 까치, 1999.

이용규, 『일본 궁정정원의 공간구성』, 신성출판사, 2009.

이일숙, 『시대별 일본문학사』, 제이앤씨, 2002.

이재수 외,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전략과 과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1.

이진수, 서유진, 『일본다도의 이해』, 이른아침, 2013.

이진수, 이진미, 주은철, 『찾잎 속의 차』, 이른아침, 2008.

인순 저, 이부키 아츠시, 정유진 역, 『중국선종사』, 운주사, 2012

임우기 외, 『소설 토지 용어. 인물사전』 13권, 솔출판사, 1997.

재단법인 끈니치안, 박민정 옮김, 『일본다도의 이론과 실기』, 월간 다도, 2007.

정순분, 『일본고전문학비평』, 제이앤씨, 2006.

정영선,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1990.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2009.

존 K. 페어뱅크 외, 김한규 외 옮김, 『동양문화사』 상, 을유문화사, 2003.

주간종교사, 『종교총감(宗敎總監)』, 성화사, 1976.

최범술, 『한국의 다도』, 보련각, 1975.

최현각, 『선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3.

폴 발리, 박규태 역, 『일본문화사』, 경당, 2011.

카시와하라 유센, 원영상 외, 『일본불교사 근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사회와 문화』, 제이앤씨, 2006.

황진수, 『한국정원 (KOREAN GARDEN)』, 지니, 2012.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2.

허인순, 함한희, 이한정 외, 『이미지로 읽는 일본문화』, 어문학사, 2009.
 홍익재, 『차생활문화대전』, 2012.
 히니타 가즈마사, 남이숙 옮김, 『젠지모노가타리의 세계』,昭和, 2004.
 히사마츠 신이치, 후지요시 지카이, 김수인 역, 『다도의 철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4. 논문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경애, 「일본 '와비차(わび茶)'의 성립과 전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5.
 김경희, 「센리큐의 다도정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2.
 김방룡, 「선승(禪僧)들의 차문화에 대한 일고(一考)」, 『韓國禪學』 제21호, 한국선학회, 2008.
 김서현, 「일본 전다도(煎茶道)와 한국 다도의 대조 : 다도의 정신문화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1.
 김성도, 「19세기 일본 불교 건축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일원 사찰의 불전 건축의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제22권 제7호 통권 제213호, 대한건축학회, 2006, pp. 163~172
 김서현, 「일본 전다도와 한국 다도의 대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승윤, 「사쿠테이키(作庭記) 연구: 동아시아적 작정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양희, 「『신코킨와카슈』(신고금화가집) 연구 : 불교사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5.
 노근숙, 「일본 초암차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차문화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명천, 「선(禪)과 일본무사도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 석림 제41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7.
- 박규태, 「창가학회(創價學會)에 대한 일고찰 : 불교혁신운동의 측면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20집,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 박동춘, 「응송 박영희의 다법 연구」, 진주 산업대학 세계차학회 발표논문, 2008.
- 박동춘, 「草衣禪師의 茶文化觀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순희, 「현대 한국다도에 끼친 일본 차문화의 영향」,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순희, 「한, 일 茶道의 비교연구 -말차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49권, 2011.
- 박전열, 「일본의 다도전통의 문화산업화 경향에 관한 현지조사연구」, 『日本學報』 제78집, 한국일본학회, 2009.
- 송상숙, 「日本 茶書에 나타난 佛教思想 : 『禪茶錄』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10.
- 이재호, 「전통 축제의 체험 프로그램 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병춘, 허달재, 「허백련 선생의 차생활과 철학사상」, 『한국차학회지』 11호, 한국차학회.

5. 웹사이트

- <http://www.koreatea.or.kr> 한국차문화협회.
- <http://www.teaunion.or.kr> 한국차인협회.
- <http://utour.gwangju.go.kr> 광주문화관광포털.
- <http://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 <http://gongju.museum.go.kr> 국립공주박물관.
- <http://gyeongju.museum.go.kr> 국립경주박물관.

www.egawa-mus.or.jp 財団法人穎川美術館.
<http://www.omotesenke.com> 表千家 不審菴.
<http://www.urasenke.or.jp> 裏千家 今日庵.
<http://www.mushakouji-senke.or.jp> 武者小路千家.
www.pref.aichi.jp/kyoiku/bunka/bunkazainavi 文化財ナビ愛知.
<http://www.shojyu.jp> 河田松壽.
<http://www.city.shizuoka.jp/deps/norin/tea> 시즈오카현 공공적 문화시설.
http://www.ocha-ken.com/pc_top.html 오차켄 홈페이지.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rint/country/countrypdf_ja.pdf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732&cid=40942&categoryId=31572>
<http://www.city.shizuoka.jp/deps/norin/tea/>
<http://www.hongkongnavi.com/special/5024450>